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 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정성
빅맨평생통장
♦예금 거래 실적이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1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일류기간이 최고 30%까지 높아집니다
문의전화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태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5월 14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27 호

흔히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말한다. 이 말은 이미 옛말이 되었으며 오늘날은 "인생은 길고 예술도 또한 길다"라고 표현함이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 사회는 변화가 적은 단조로운 사회였기에 인생이 짧게 느껴졌으나 오늘날의 사회는 과거의 50년, 100년간의 변화가 1년 정도의 변화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생이 길게 느껴진다.

내가 어릴 때 일을 회상하면 그것은 마치 역사 소설에 나오는 조선조나 고려시대의 일로 착각하게 된다.

초등학교 4학년때 전등불을 처음 보았으며, 어릴 때 단발머리의 여성을 신기하게 바라보았고,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김 종 서

밥상 위에 있는 쌀밥 한그릇에 군침을 삼켰는데 오늘에 와서는 TV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고, 여성의 핫팬티에 무감각 해졌으며, 강비를 플레스테롤이 많다고 기피하게 되었다. 이 얼마나 큰 변화인가?

이렇게 사회가 급격히 달라지는 오늘날은 과거에 비해 참회할 일도 더 많아진다. 과거에는 어떤 문제에 부딪치면 그것의 해결방법을 선대의 지혜에서 찾았지만 오늘은 선대에서 경험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문제가 허다하게 밀려오기 때문에 부딪친 문제를 잘못 해결하는 수가 많아졌다.

미래준비 '오늘 참회'에서

그러나 나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 또한 미래를 꿈꾸지도 않는다. 장차 어떤 일을 성취하겠다고 구상해 본 일도 별로 없다. 나에게는 다만 오늘이 있을 뿐이다. 오늘은 과거의 종착역이며 미래의 시발역이기 때문에 오늘에 과거의 과(果)가 깃들여 있으며 미래의 인(因)이 배태(胚胎)되어 있다.

흔히 참회를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이라고 본다면 이와 같은 참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옛날식 참회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장차 저지를지도 모를 잘못은 과거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회가 격심하게 변함으로 길게 느껴지는 인생의 여정에서의 참다운 참회는 오늘 이 순간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다만 오늘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나의 참회의 다짐이다.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구독 · 광고 문의 (02)737-8881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apia.com

대학생 불자

마음다스리기 주력

현대불교, 대불련 '신행의식' 조사

"자의로 불교귀의" 60.4%

"개종 생각해본적 없다" 80.7%

불자대학생 10명 중 6명은 자의로 불자의 길을 선택했으며, 절반이상(60.1%)의 학생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신행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80.7%가 개종을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응답해 불교인으로서 강한 자기 확신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고영삼)의 후원으로 4월15일부터 5월6일 대불련 23개 지부 173개 지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불련 신행의식과 운영현황'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관련기사 6~7면〉

불자대학생의 주된 신행활동은 법회참석(34.7%)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명 중 6명(62%)은 수지독송하는 경전이 없다고 응답해 대학생들의 신행활동이 개인보다는 단체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전을 즐겨 읽는 응답자 가운데에는 천수경(30.6%) 반야심경(27.4%) 금강경(11.3%) 등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불련 활동에서는 48.7%가 타종교에 비해 부진하다고 지적했으며, 이유로 회원들의 열의부족(51.0%) 종단 지원부족(40.6%)을 꼽았다. 또 대학생들은 현재의 지도법사에 대해 72.7%가 만족하고, 3명 중 1명이 상담 및 생활지도에 대한 깊은 관심을 요구했다. 이는 준사회인으로서 겪게 되는 대학생의 학업 · 취업 · 이성문제 등 상담자 대화자로서의 지도법사 역할을 요구한 것으로, 생활문화를 통한 포교방향 모색과 지원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필선 기자〉



"노란연등… 북동포에 佛恩을" 불기 2541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불자들은 굶주리는 북녘동포들을 위해 자비보시의 노란 연등을 밝히고 있다. 하루속히 기아에서 벗어나길 기원하면서. 〈정토포교원=고영배 기자〉

"초파일 남북불자 한목소리 낸다"

첫 공동 봉축 발원문 봉독키로
조불련, 남북 불교대표 회담 제의

14일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남북한 불교도가 분단 이후 최초로 남과 북에서 동시에 '공동발원문'을 봉독한다. 조계종(총무원장 월주)과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호)은 부처님오신날 공동발원문을 확정하는 한편 남북 대표자회담이 논의되고 있다.

〈남북공동발원문 22면〉

조계종 총무원은 6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발원문은 대북식량 지원을 위해 4월 13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실무자회의에서 초안을 북측에 전달하면서 시작돼 수정안을 되돌려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며 "6일 조불련이 최종안을 보내옴으로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봉축 공동발원문은 지난해에도 북측이 제의해 왔으나 의견차이로 무산됐다. 공동발원문은 "분단의 가슴아픈 설움을 가시지 못한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를 동시에 갖고 사회와 중생을 위한 대승보살도의 실천행에 용맹정진할 서원을 굳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능관스님(사회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태호위원장이 전화를 통해 16일~17일 양일간 북경에서 월주스님을 만나고 싶다고 제의해 왔다"며 "조불련에 대표자회담에 앞서 10~12일 북경에서 실무자 접촉을 갖자는 내용을 팩시밀리로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시청앞 아기부처님 '통일염원'



봉축위원회(위원장 월주)는 2일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부처님 오심을 봉축하는 '아기부처님 3면 입상' 점등식을 봉행했다. 1면은 '천상천하유아독존'을 나타내는 탄생불, 2면은 연등축제를 상징하는 연등불, 3면은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불로 제작됐다.

이날 점등식에는 월주(조계종 총무원장), 민곡(태고종 총무원장), 성초(진각종 통리원장), 광우(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법종(보문종 부원장)스님을 비롯 조순 서울시장, 송재건 조계종 전국신도회장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북동포 돕는일 이타적 자비실천"

월주 총무원장 봉축사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7일 부처님오신날 봉축사를 발표했다.

월주스님은 "중생요익의 지혜로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법등명(法燈明)이 되자"고 당부했다. 또 스님은 "북한 동포를 돕는 일은 이타적 자비정신으로 시작되어야 민족공동체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다"며 "자비무적의 정신을 하나로 결집한다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청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 종교인연대 통일 준비하자"

전불련 정책토론회

통일이후 남 · 북한간의 이질감 해소와 갈등극복에 종교가 중요역할을 차지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이를위한 남북 종교인간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불교운동연합(의장 지선)은 6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민족통일과 불교'라는 주제로 제3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정경란씨(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는 '독일통일과정에서의 교회의 역할'이란 발제문을 통해 "동서독 교회는 분단 40년동안 지속적 교류를 통해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후의 혼란 속에서도 가장 먼저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다"며 "그러나 남북 종교인들은 독일과 한반도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종교적 교류를 통한 연대활동 및 대화와 협력을 통해 동질성 회복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분단이 가져다준 비정상적인 삶과 역사속에서 이를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님오신날 특집 28면 발행

석가모니불 전생 500대원	24 · 25면	부처님 미소 닮고 싶어요	21면
100세 문성스님 수행한담	10 · 11면	각종단 봉축법어	22면
원로스님의 시국 해법	3면	신도회장들의 발원	23면
며느리 3代 자비행	9면	태풍부대 신행현장	27면
선재들의 법명이야기	17면	사찰이 변하고 있다	19면



"
지난 35년간 국가기간산업을 선도해 온 효성중공업-
끊임없는 기술창조로 21세기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얼굴을 알리기보다는
기술을 알려 온 기업 - 효성중공업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핵대산업.
피부로 느낄순 없지만 꼭 있어야 할 중추산업.
중공업은 모든 산업발전의 근본이자 원동력입니다.
지난 35년간 국내 중공업계를 묵묵히 이끌어 온 효성중공업-
멈추지 않는 도전의식과 기술창조로
풍요롭고 아름다운 21세기를 실현해가겠습니다.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 알고보면 가까이 있습니다



전력사업부

■ 변압기, 차단기, 전자동, 계전동, 몰딩기, 절연설비



기전사업부

■ 전동기, 발전기, 감속기, 주차설비, 환경보존설비, 특수차량, 이동설비



자동화사업부

■ 계장설비, UPS, PLC용 전력반도, 물류 SYSTEM, SERVO SYSTEM, FA SYSTEM, 산업제어 SYSTEM



건설사업부

■ 아파트, 오피스빌딩 등 각종 건축공사, 도로, 항만건설 등 토목공사, 조경공사, 준설공사

봉축사설

부처님 이 세상에 왜 오셨나

지난 60년대까지만 해도 북전(北傳)의 기원(紀元)으로 부처님 탄신을 약 3천년전의 일(進三千載)로 써왔다. 그뒤 국제불교계의 통설로 된 남전 기원설을 따라서 올해는 불기 2541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한다.

그런데 불기는 부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점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거꾸로 부처님 입멸을 기점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오신날은 정작 2621년이 되어 마땅하다. 부처님 80세를 더해야 하기 때문이다.

네팔의 룸비니 마야당 안에는 부처님탄생 광경이 돌을새김으로 새겨져 있다. 방금 태어나신 아기부처님이 서서 바른손으로 하늘쪽을 가리키고 계신다. 태어나자마자 일곱걸음을 걸어서 '천상천하에 오로지 내가 높다'라고 선언하셨다 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도 하거니와 이 선언은 부처와 나라는 분별 따위를 처음부터 벗어난 해탈을 의미하고 있다.

그런 부처님께서 왜 이 세상에 태어나셨나? 그분 혼자서 성인으로 추앙받기 위해서 오셨나? 사실인즉 지구 위의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 오랫동안 우리는 음력 4월초파일이면 온통 절과 거리에 연등을 밝혀 부처님의 광명세계를 장엄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토록 중생으로부터 섬겨지는 대상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닐 터이다. 불교는 특히 북종선(北宗禪) 당시부터 4홍서원을 법요의 중요한 회향으로 삼게 되었다. 밀교에서는 6대서원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중생이 부처님과 부처님 정법에 의해서 내세우는 대승적인 발원이지만, 이에 앞서 부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온갖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원대한 발원(發願)을 세우신 존재이다.

아미타불의 48대원, 약사여래의 32대원 그리고 보현보살의 10대원도 우리에게는 낯익은 것이다. 게다가 사바세계 본존불이신 석가모니부처님의 5백대원의 규모는 또 얼마나 장엄하기 짝이 없는가. 불보살이란 바로 가없는 중생에 대한 이같은 자비와 제도의 발원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아기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직후 서 있는 모습은 그 뒤로 수행을 강조한 나머지 성도(成道) 당시의 좌불로 바뀌어 고정되다시피한 것이다. 이는 출가 중심의 위엄을 반영하거니와 장차 부처님의 모습은 이 세상 구석구석의 중생을 찾아가는 부처님, 걸어가는 부처님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오고 있다.

아니, 좌불의 모습 그 자체에서도 우리는 어떤 중생에게도 빠짐없이 다가가는 불보살의 본체를 읽을 줄 알아야겠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은 이렇거니와 이에 대한 중생은 무엇인가. 중생이란 불보살이 제도해 주기만을 바라는 대상이거나 그런 대상도 못되는 어리석음과 어둠으로 꽉 차 있는 불쌍한 대상일 뿐이다.

중생이란 의미는 많은 생류(生類)이다. 생존하는 일체가 곧 중생이다. 그런데 이 중생은 미혹의 세계에 갇혀있으므로 이런 미혹중생을 제도하기로 서원한 존재인 불보살은 주체이고 중생은 객체로 되고 만다.

그러나 중생의 커다란 의미 안에는 불보살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그야말로 불보살과 중생의 차별이 한 가닥 자취도 없는 상태인 것이다. 그렇다면 중생이란 중생의 여러 종류가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세계이다. 중생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공생(共生)의 세계가 아니라 불보살과 중생까지가 주객과 자타의 차별을 타파한 일여(一如)의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다.

석가모니부처님의 5백대원은 〈비화경(悲華經)〉이나 그밖의 경전을 통해서 전해진대로 과거세 보장불 처소에서 세운 대비심의 성취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광대무량한 발원은 석가모니불로 태어나신 이 세상의 새로운 발원이기도 하다. 이같은 부처님의 발원을 이미 부처님의 것이 아니라 중생 전체가 받아들임으로써 이제까지의 중생이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되었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오신날의 진정한 뜻은 아기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이자 우리 모두 중생 모두가 새로 태어남으로써 부처와 중생의 경계를 적멸시키는 그날인 것이다.

이런 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대웅전 앞뒤를 연등의 불빛으로 환하게 밝혀놓는 일과 더불어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그동안 꺼져있던 등불을 밝혀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오탁악세의 현실 가운데 빠져 있다.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까지도 실로 온갖 타락과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종교는 어떤가. 종교조차도 '가난'과 '무소유'의 고귀한 덕목으로부터 멀리 표류된 것이 오늘의 숨길 수 없는 실정이 아닌가.

이런 때일수록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는 일이 부처님의 5백대원에 보답하는 길임을 새삼스레 깨쳐야 하는 것이다. 이로써 석가모니부처님께 귀의한다.

법사제 효율적 운영방안

열린 마당 — 법사

"제자들아, 이제 전법의 길을 떠나거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인천(人天)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잡아함경〉 부처님이 성도하신후 제자가 60여명에 이르렀을 때 내린 전법선언이다. 조계종이 정한 '전법의 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태부족인 법사현황, 자격, 호칭문제, 법사제의 효율적 운영안 등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교육·선발 객관적 기준 마련
스님·재가법사 역할분담 필요

서윤길 〈동국대교수·불교학〉



스님을 대상으로 한 전통적인 법사의 개념은 현대에 와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스승'이면 승속을 막론하고 법사가 될 수 있다는 경전적인 의미가 강조되어 오히려 재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조계종에서도 '포교를 담당하는 승려 및 재가자'를 모두 '포교사(포교법사)'라고 규정함으로서 비슷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군부대 교도소 직장·직능법회 등에 설법할 스님이나 재가법사가 크게 부족하다고 한다. 불자들은 재가법사 보다는 스님들의 법문을 원하지만 스님들은 수행하랴 불사하랴 바빠 법문할 시간이 없다고 한다.

조계종 포교원도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님·재가법사를 두루 참여시키는 법사은행제도를 추진한다고 한다. 법사의 교육과 선발, 관리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 훌륭한 법사를 충분히 배출한다면 법사난을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이와함께 기존에 양성된 재가법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재가법사 중에는 포교당이나 사찰을 운영하면서 실제 법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도 있지만 대다수는 법사 자격을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死藏)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스님들이 전담해 온 시중종무를 재가법사에게 맡기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재가법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스님들의 다양한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출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스님은 수행을 위주로 하고 재가법사는 포교를 전담하는 것이 불교중흥을 위한 적절한 역할분담이 될 듯하다.

법사현황

1만여명 활동…교육·관리 절실
단기교육후 품수…자질론 대두

수년전 우리나라 재가법사의 수가 7천여명에 이른다는 추정(법사회보 제14호)이 나온 바 있다. 최근 조계종포교원, 대원회, 법사회, 전국법사총연합회, 법사종, 한국불교교화원, 전국여법사회 등 법사(포교사)고시를 거쳐 배출하는 전문적인 법사외에도 불교교양대학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법사자격을 수여받는 포교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적어도 1만여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계종 포교원에 등록된 포교사만 해도 3천여명에 이른다.

재가법사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수요공급의 원칙에서 볼때 불자들이 재가법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한편으로는 스님들이 신도나 일반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포교활동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군부대, 교도소, 경찰, 직장·직능·지역법회 등에서는 법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군부대의 경우, 1백10여명(군목 4백50명)의 군법사들이 3백30여 군법당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법사 및 법당의 숫적 열세와 종단의 지원부족으로 효율적인 군포교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 경찰포교의 경우는 전체 2백50개 경찰서중 2백여개(경승실은 70여개)의 경찰서에 5백40여명(경목은 1천8백67명)의 경승이 위촉되어 있지만 이중 절반에 가까운 경찰서에서는 활동이 거의 유명무실한 형편. 6만여명의 재소자가 수감중인 전국 46개 교정시설에는 교화법사가 7백여명(기독교 3천2백여명)에 불과하다. 130개의 직장법회와 53개의 직능법회의 경우는 상임법사가 있는 곳은 10%미만이며 지도법사가 없는 곳도 상당하다. 이같은 숫적인 문제외에도 '3개월 짜리' 법사가 양산되는 등 법사의 자질 문제는 더 우려되는 점이다. 현재 포교원과 불교교양대학 등이 자구적인 노력으로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가법사제도를 공식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의 설립과 종단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승단과의 위상정립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포교원이 추진하고 있는 법사은행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문제도 고려할 만하다. 〈재〉

법사호칭 이렇게…

"스님-법사 재가-포교사 호칭 구별해야"

성수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법사' 호칭은 원칙상 법력과 덕을 지닌 스님에게만 부여될 수 있다. 법사란 용어가 일반화되어 재가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종헌·종법상에서는 정의가 되어있지 않다. 다만 '법계법'에 견덕 중덕 대덕 종덕 종사 대종사 등으로 수행력과 종단 위계서열의 기본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포교법'에서는 "종법에 의하여 자격을 갖추고 각급 포교시설에서 직접 포교를 담당하는 승려 및 재가자"를 '포교사'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통용되고 있는 '재가법사'는 포교사라 함이 옳다. 우리와 비슷한 전통을 지닌 중국·대만에서도 스님에게만 '법사' 호칭을 쓰고있다.

그러나, 승속망라해 관례처럼 사용되고 있는 '법사'호칭에 대한 통일문제와 재가자 품계 등의 논의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종법에 반영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현대는 재가신도의 역할이 날로 높아가는 전문화시대이다. 각계각층 재가신도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종단의 틀로 수렴하여 종단이 사부대중의 신행공동체이자 한국사회, 나아가 인류를 구제해 나가는 서원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이를 선도해 나가는 몫이 재가신도 지도자에게 있음은 물론이다. 조계종은 포교사고시의 엄정한 관리와 합리적 운영에 노력하고 포교사의 위상정립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출·재가 막론 일반적 명칭으로 변화"

임기준 〈연화장세계 상임법사〉



불교교단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승가(僧伽)'는 원래 출가 및 재가 제자를 모두 포함한 4부대중을 의미했다. 이것이 중국을 거쳐 들어오면서 교단이 승단(僧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축소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불법을 강설하는 스승은 승속을 따질 것 없이 법의 높고 낮음에 달린 것이다.

전통적으로 고승이 법단에 올라 법을 설할 때 '법사'라 불리워지며, 근대까지도 이 개념은 전해져 왔다. 하지만 현대에는 '법사'란 개념이 출가승려와 재가법사를 아우르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이밖에 무속에서 길흉화복을 점쳐주는 이들이 법사라고 불리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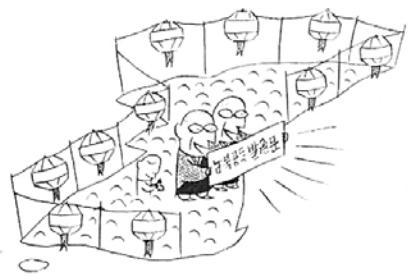
따라서 '법사'라는 용어가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호칭의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럴 바에는 기독교의 전도사와 대비되는 전법사로서의 '법사'를 일반화하는 문제를 고려할 만하다.

한때는 4부중에서 재가법사를 추가해 6부중을 만드는 논의가 진행된 적이 있다. 동국대 불교학과 출신으로서 출가승려가 아니더라도 군법사로 임용될 때 대덕법계를 수여한 점이나 군법사가 전역후 종단이 수용하지 못해 인력을 낭비하는 문제 등이 이런 논의를 낳았다.

원래 출가승려는 교단에서 수행자였다. 따라서 포교사업이나 교리설법은 재가법사들에게 맡겨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현대만평

박구원



한마음으로 통일을!

현대불교 구독신청 (02)737-8881

奉祝 불기 2541년 부처님오신날



사진 : 지해스님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

如來는 평등과 자유의 상징
萬物이 아기 부처님 탄생을 기뻐하듯
이세상은 깨달음이 있어 행복합니다.

大韓佛教曹溪宗
宗正 老天月下
總務院長 太空月珠

전법의 해

원로스님에게 듣는다 위기 어떻게 헤쳐갈 것인가

'나만 잘살면' 큰 병폐…인과법 알아야

대지가 몸살을 앓고 있다. 생태계도 성한곳이 없다. 눈에 보이는 세상, 귀에 들리는 세계가 모두 썩어가고 있다. 요즈음 한반도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

본지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오늘의 위기 극복과 '청정국토' 회복의 길을 큰스님들의 청량법어로 듣는다.(게재 무순)

〈편집자 주〉

질 문

❶ '심청정 · 국토청정'이라고 했는데, 세상이 자꾸만 오탁악세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에 이르기까지 6근이 청정치 못해서 일까요?

❷ 물흐르듯 늘 여여한것이 법계라면 오늘의 이 위기상황도 그대로 법계의 한 모습입니까?

❸ 우주에 존재하는 유정 · 무정 일체가 주인으로서 공생하는 것이 자연의 질서 일진데 인간이 환경을 오염 · 파괴하는 이유는 어디서 비롯 됐을까요. 그 병폐의 뿌리와 과보가 궁금합니다.

❹ 경제난이 심각합니다. 극복 할수 있는 지혜를 일러 주십시오.

❺ 돈과 명예가 있는 곳에 부정부패가 있습니다. 한보사태 역시 그 한 예인데요, 부정부패를 근절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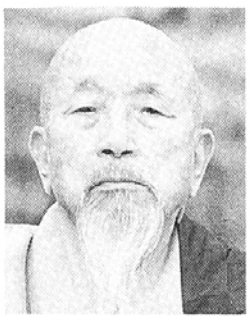
❻ 생각없는 사람들의 과소비도 우리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이들을 일깨워 주십시오.

❼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큰 일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꿈꾸는 대권주자에게, 그리고 주권행사를 할 국민에게 각각 바른 정치의 길을 일러 주십시오.

❽ 북한동포를 돕는 우리의 마음자세는 어떠해야 하나요.

비룡스님〈월정사 조실〉 "뿌린씨앗 스스로 거둬야"



① 조선시대에는 양반에 눌려서 살다가 일제시대에는 총 · 칼에 억압을 당하고 해방이 되어 민주주의로 자유를 얻었다. 그러나 예의와 도덕심은 땅에 떨어지니 나라가 혼잡한 것이요, 돈만 있으면 양반이 되니 오탁악세가 된 것이다.

② 지금이라도 초등학교에서부터 중 · 고등, 대학까지 〈동몽선습〉 〈명심보감〉 〈대학〉 〈소학〉을 가르쳐야 예의와 덕심(德心)을 알고 청소년들이 문란하지 않을 것이다.

③ 자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는 자신이 거두는 것임을 안다면 삼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④ 부귀공명 누렸다고 기세등등하지 말고 돈자랑 마오, 어리석음의 극치일세. 부족할 때 만족할 줄 알고 절제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

⑤ 불법(佛法)을 바로 알아 인과(因果)가 있으면 과보(果報)를 받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정치가는 반드시 사리사욕이 없을 것이다.

⑥ 과소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한다. 노동자와 농민이 부귀해야 하고, 공업(工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한다.

⑦ 이 세상에서 준 것은 받고 받은 것은 갚아야 한다. 인과와 과보를 아는 사람, 사리사욕 없이 정치를 잘 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말을 먼저 내세우고 언변만 좋은 사람은 실속이 없다. 진실한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 한다. 지도자가 국민을 잘 살게 하고 편안하게 할 때 풍년이 들고 나라가 태평해 진다. (王養安時年豊太平乾坤)

⑧ 북한동포를 구제하는 식량을 보내면 군량미로 전용하고 옥수수만 양민에게 돌아간다. 식량을 주되 화합통일(和合統一)에 도움이 되도록 주어야 한다. 화합통일이 된다면 남한에서 식량을 많이 구해서 도와줘야 하고, 통일이 되면 수해지역을 복구시켜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남한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놓아야 한다.

덕암스님〈태고총림 방장〉 "봉사심내는 정치인 선택"



① 세상이 혼탁해지고 인간성이 상실돼가는 근본적 원인은 다름아닌 우리의 사리사욕에 있다. 오늘날과 같이 사회악이 만연하고 사악한 생각이 무성한 것은 우리 인간이 탐진치 삼독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② 물론 이것도 법계의 한 모습 그대로다. 무위(無爲) 유위(有爲)의 모든 제법(諸法)이 법계인데 어찌 이를 벗어날 수 있겠는가.

③ 환경문제는 근본적으로 생활 속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개인은 개인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공중도덕정신이 결여돼 있으니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주변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오염된 환경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

④ 경제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전국민이 하나가 돼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려움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다. 긴축 · 절약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특히 분수에 맞는 생활이야 말로 경제난국을 타개하는 지름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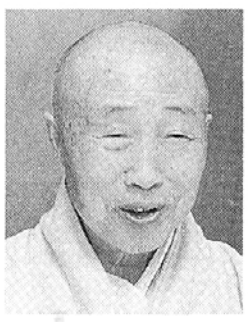
⑤ 부정부패는 사리사욕에서 비롯된다. 사리사욕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극단적인 이기심의 발로다. 부처님 법이 오늘날까지 여여히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이의 행복을 우선시했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한다.

⑥ 과소비는 제 마음을 모르고 확고한 생활신념이 없기 때문이 비롯되는 것이다. 마음을 청정히 하고 이타행을 깨달아 보라. 거기에 불법이 있고 행복이 있다.

⑦ 대권주자는 애국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사욕을 버리고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구태는 이제 벗어나야 할 때다.

⑧ 오직 동포애로서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함께 한다는 마음자세를 가져야 한다. 도와줘도 도운 것이 없고 받아도 받은 것이 없는 서로가 하나라는 일체감이 필요하다.

성수스님〈법수선원 조실〉 "탐심은 이웃까지 망쳐요"



① 중생계는 천재지변이나 물질로 인한 재앙 또는 인간 사이의 인재 등 장애가 많다. 불심이 깊고 수행이 철저하면 재앙에 슬기롭게 대처하지만, 어리석고 어두우면 혼미에 빠진다. 결국 지혜가 밝아야 묘리가 생긴다. 수행하라.

② 시운(時運)에 따라서 민심(民心)이 천심(天心)이 되어진다.

③ 세상 이치가 인과응보의 도리속에서 이루어 진다. 내가 거울을 들여다 보면 내 모습이 거울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인과는 결국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다. 또한 업력은 수미산을 대적하며 바다보다 깊고 죽은 뒤에도 과보를 받는다. 피를 나눈 부자(父子) 사이라 할지라도 사후에 갈 길이 각기 다르며 과보를 대신하여 받아줄 수도 없다. 또한 인과의 도리는 외상(빚)이일 초(秒)도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④ 경제가 정말로 소중한 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불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깨달음이며 지혜이다. 인생 경제 우주의 이치를 꿰뚫는 명철한 깨달음 속에 경제의 이치도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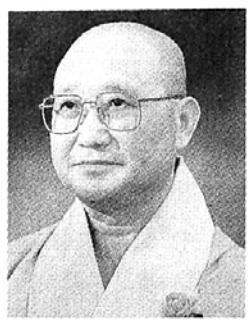
⑤ 극악한 한마디로 말해서 다 죽어야 한다.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탐심의 악은 개인 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 심지어 나라까지 망치는 고질적인 망국병이기 때문이다.

⑥ 돈이 귀한줄 알때가 목전(目前)에 있다.

⑦ 나라와 국민을 위한 애국자는 눈 닦고 봐도 안 보인다. 눈 뜬 국민이 없기 때문에 눈 뜬 대통령이 없다.

⑧ 나는 70년대 부터 남한 백성 모두가 하루에 십시일반(쌀 한술, 돈 100원)으로 모아서 도와주자고 주장했지만 실행되지 못하였다. 이미 6.25 한국전쟁 직후 3천만 동포가 진정 민족의 앞날을 한치라도 생각해 통일을 먼저 고려했더라면 지금에 와서 도와야 하니 말아야 하니 할 것도 없다.

숭산스님〈화계사 조실〉 "집착 버려야 청정심 회복"



① 마음은 본래 청청하다. 모양과 이름에 집착하여 살게 되면 본래 마음을 모른다. 모양과 이름에 집착하지 아니할 때 본래성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때 6근은 청정해지고 오탁악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

② 법계의 사물은 천차만별이나 서로가 인과 관계를 갖고 있다. 때문에 어느 하나도 혼자서 존재할 수 없다. 즉 우주의 만물은 각기 하나와 일체가 서로 연유하여 있는 중중무진한 관계에 있다.

③ 실리주의에 빠져 우주의 대원칙을 파괴한 것이다. 눈앞의 이익과 편리만을 위해 우주의 철리를 어긴것이다. 이로 인해 환경뿐만 아니라 윤리, 사상까지 무분별하게 파괴됐다. 자연과 인간은 둘이 아니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④ 오늘날의 심각한 경제난은 복합적인 문제이다. 하루빨리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 한가족, 한민족이라는 동체심을 지녀야 한다.

⑤ 부와 명예는 독사와 같아 자칫하면 눈과 귀를 멀게한다. 특히 부와 명예의 달콤함에 빠지게 되면 나라의 경제까지 좀먹게 된다. 한보사태 역시 이러한 결과다. 재물의 탐욕에서 벗어나 절제하고 자족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⑥ 무절제한 소비문화가 만연될 때 그 가정과 사회는 서서히 부패되고 결국 존폐의 위기까지 처하게 되는 법이다. 모든 사람들이 '나 하나쯤'이라고 생각에서 벗어나 '내가 먼저' 라는 소비관을 가져야 한다.

⑦ 대통령은 국민의 지도자이다. 후보자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애정을 갖고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정치적 경험보다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⑧ 북한이 미운것은 김씨집안의 정권이지 그 체제 밑에서 신음하는 동포는 아니다. 우리가 진정 전쟁을 막고 남북화해를 이루려 한다면 북한이 가장 절박하게 식량을 원하고 있는 지금 도와야 한다.

우룡스님〈학성선원 한주〉 "내형제가 굶고 있는데…"



① 마음의 주춧돌을 잘못 놓은 것에 원인이 있다. 물질도 정신도 아닌 우주의 중심에 주춧돌을 세워야 하는데 물질의 세계에 맞춘 가치관단을 내리니 착각할 수 밖에 없다. 정신과 물질이 갈라지기 이전의 세계를 참구하는 것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② 오늘의 위기상황은 자신이 만든 것에 불과할 뿐 본래 있는 위기상황은 아니다. 내가 흐려지니까 대우주도 전부 흐려지는 것이다. 흐려진 가치기준에서 벗어나 자신을 맑고 순수하게 밝혀 가는 것이 중요하다.

③ 물질과 육체에 주춧돌을 놓다 보니 육체에서 야기되는 욕망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한다. 자연과 대우주의 진리에 맞추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씨앗을 뿌리면 열매 맺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④ 욕심은 끝이 없다. 그러니 자기의 분수를 정확히 깨우쳐 욕심을 비워야 한다. 그러면 경제난이라는 것은 없다.

⑤ 모두들 생각하는 테두리가 너무 좁다. 경제계 정치계 할 것 없이 몸뚱아리의 이름만 생각한다. 내가 뿌리는 씨앗이 어떤 열매를 가져 올 것인지를 생각하며 행동해야 한다.

⑥ 심안을 떠나야 되는데 육안으로 쳐다보면 언제나 속게된다. 항상 진리를 향한 마음으로 자기 발등에 칼이 떨어지는지, 불이 떨어지는지 똑똑히 살피며 살아야 한다.

⑦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욕심을 버리고 양심을 되짚어 봐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 없다. 그리고 국민들은 자기 발등 찧고 사는 사람들이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도록 마음을 순화해야 한다.

⑧ 북한동포라도 거리를 두고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 내 형제가 배가 고프고 헐벗고 있다는 생각으로 도와야 한다. 내가 배고파서 먹을 것 찾겨 먹듯이 그렇게 도와야 한다.

법륜사 양로원 안내문

노후를 부처님과 함께 …

삼보귀의 하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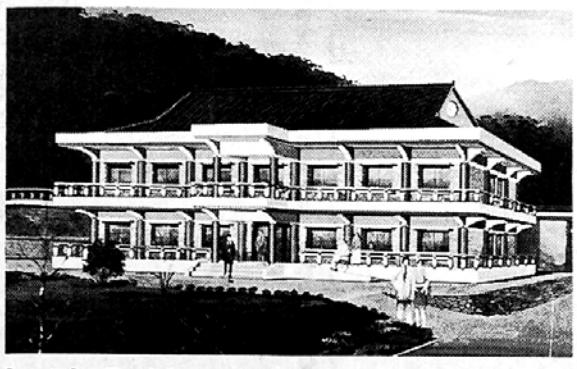
급변하는 사회적인 변화로 대가족제도가 무너지고 개인주의 만연과 물질이 좌우하는 배금사상의 톱니바퀴속에서 우리의 자랑인 효(孝)의 근본(根本)이 흔들리는 현실속에서 허덕이다 보니 부모와 자손 형제등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인성이 무너지는 것을 어찌하리!

이러한 불안요소가 정년퇴직하신 분이나 연로하신 노인분께서는 한을 갖게됨에 따라 가족간에 갈등이 심화되니 누구에게 책임있단 말인가?

하루가 일년같이 빠른시대에 살고 있는 연법(緣法)인 것을 세상을 떠났다해도 연법은 계속 유지되는 것!

우리 불자님께서는 인연법을 중요시 하므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효행을 할 수 있는 길은 부모님의 몸과 마음을 편안케 해 드리는 것이 유일한 효행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소승이 평소에 보고 들은바 원력에 힘입어 금번 가야산과 지리산이 합쳐진 만대산에 산수 수려하고 운치 좋은자리에 법륜사 대웅전 및 양로원을 창건함에 따라 낙성식前에 불성 깊은 불자님과 인연되어 남녀노인을 자비심 도량에 모시기를 부처님前에 예를 올립니다! 아담한 현대식과 한옥이 어울린 최고의 설계 및 시설 또한 자체농사로 무공해 음식을 제공하면 가족분이 오셔서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특히 주말 농장을 입주하신 노인분들의 가족에게 무료로 제공하며, 욕탕 및 독서실, 오락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되고 또한 얼키고 설킨 삶의 지치고 허한 가슴에 맺혀있는 한을 기도와 좌선 예불 등을 통해서 노인의 자성이 밝아 성불할 것이며 이러한 여건을 마련해 주신 가족분들께서도 그 공덕이 세세 손손까지 부처님의 복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노인분들의 건강과 취미에 따라서 비구니스님께서 불보살을 대하듯 자비심으로 모시게 되오니 많은 인연을 지면을 통해 남 · 녀 노인분을 한정된 인원까지 모시겠습니다.



구분별 양로 내용 및 금액			
1	구 분	유료양로원	기 타
2	남 · 녀 총 인 원	65명 남녀	간염, 폐, 악성피부, 전염성제외
3	방 1 실 인 원	1 실 1 명	서로의 성격을 보고 사주상의 합인을 선정
4	평생양로부담금	1 명 해 당	4천만원 단 사망시 공제됨
5	부부양로부담금	2 명 해 당	1인 삼천오백만원 합7천만원 공제됨
6	평생환불부담금	1 명 해 당	삼천만원에 월30만 사망시 보증금 환불
7	고 시 준 비 생	1 실 1 명	식대, 편의시설 제공 월30만원
8	편 의 시 설	각 방 마 다	벽장농과 거울부착 텔레비젼 전화기등설치
9	접 수 년 월 일	1997년4월1일부터 1997년 5월30일까지	
10	입 주 년 월 일	1997년 5월1일부터 입주까지	

※ 뜻과 불심의 행을 신천하는 가정에 삼보의 자비가 충만하소서!

※ 빠른 시일안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미리 접수바랍니다.

문의안내 : 합천법륜사 (0543)955-1379
마산법륜사포교당 (0551)21-8775

※ 계좌번호 : 우체국 610097-0119059(김상봉)

※ 대구은행계좌 : 208-08-024746(손동분)

법 륜 사 주지 김운봉 총무스님 손자혜 총무 정병진 합장

"종무제도 개선·대중포교 강화"

진각종 새 통리원장 성 초 대정사



"창종 50주년이었던 지난 해가 그동안의 종단 사업을 결산하는 해였다면 올해는 이를 토대로 종단의 새 역사를 만드는 첫 출발점입니다. 첫단추를 여민다는 각오로 종단 중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일 진각종 제25대 통리원장에 취임하는 성초 대정사는 8일 교계기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4년 임기동안 추진할 20가지의 종단 대내외 사업계획을 밝혔다.

"이제는 포교사업에 더욱 진력할 생각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 온 포교부를 올 10월중에 신설해 해외, 청소년, 군포교 등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 계획입니다"

올 6월 중국 해동심인당 헌공불사와 8월 L.A불광심인당 수계관정불사를 통해 해외포교의 기틀을 다지는 한편, 교역자 재교육 실시 등을 통해 포교에 종단의 힘을 집중시킨다는 계획이다. 문화·학술, 복지사업 역시 성초 통리원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 "대중에게 우리 종단을 알리고 이해시키기' 위해 밀교사전 간행 및 창종 5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등의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종교의 대 사회적 역할도 강화할 것입니다"

'닫혀있다'는 세간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대중에게로 적극 다가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성초 통리원장은 종무행정 전산화·정보화 등 제도 개선과 자문위원회 신설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등 내부 사기진작에도 심혈을 기울인다는 각오다.

한명우 기자



사형수 8명 구명…"복지시설 절실"

재소자 교화 30년 삼 중 스님

"교도소에 들어갈 사람 없는 날이 곧 불국정토의 시작이라 봅니다"

14일 부처님오신날로 재소자 교화 30주년을 맞은 삼중스님(자비사 주지·전국교도소 재소자교화후원회장).

67년 대구 보현사 법사로 있을 때 "초파일법회에 법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찾아간 대구교도소 법회에서 강당이 떠나가도록 울려퍼지는 찬불가 소리에 충격을 받아 그 이후 줄곧 재소자 교화에 나섰다.

그동안 스님이 만난 사형수만 3백여명. 또 스님의 구명운동으로 최재만씨 등 8명의 사형수가 목숨을 건졌다. 현재도 김선자씨 등 3명의 사형수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범죄예방 측면에서 2천여 곳의 교도소를 방문하여 들은 재소자들의 수많은 사연을 단행본으로 묶어 〈가난이 죄가 아닐진데 나는 죄가되어 죽습니다〉등 12권의 저서를 출간, 수익금은 사형수가족돕기에 사용해오고 있다.

"재소자 교화는 진정한 '인간방생'의 실천이다"는 삼중스님은 "앞으로도 평생을 재소자 교화에 힘쓰고 싶다"며 "재소자들이 출소하여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터전이 될 복지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원〉



조계종 '금강경전서' 출판기념회

조계종 〈금강경 전서〉 출판기념법회가 지난 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기념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승가대학원장 무비스님, 승가대학교 총장 지하스님, 동국대 역경원장 월운스님, 불전국역연구원장 혜남스님,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우스님 등 1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5월 문화인물 초의선사 기획전

5월의 문화인물 '초의선사'의 생애와 유물을 보여주는 기획특별전이 31일까지 사간동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개최된다. 3일 열린 개막식에는 월주(조계종 총무원장) 지하(중앙승가대총장) 홍선(중앙승가대 불교사학연구소장) 여연(일지암 주지)스님, 정덕용(문체부 7 획실장) 허재남(차인연합회 수석부회장)씨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백담사 '만해기념관' 상량식

'만해기념관' 상량식이 7일 신흥사 회주 오현스님, 주지 도후스님, 이수성 신한국당고문, 최각규 강원도지사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담사(주지 마근)에서 개최됐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 명호근회장은 "만해스님의 자유, 민족, 평화, 생명사상을 오늘에 되살려 국민교육의 장으로 기념관을 건립하게 됐다"고 건립취지를 밝혔다.



불교사진 연합회 회원전

불자 사진작가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불교사진연합회(회장 이병윤) 회원전이 6~14일 조계사 경내에서 개최됐다. 6일 거행된 개막식에는 영담(부천 석왕사주지), 혜창(조계종 총무부장)스님, 김광삼(현대불교신문사장), 안장헌·이승민(사진작가)씨 등이 참석했다. 이번 사진전에는 안장헌씨의 '석굴암' 등 50여점의 사진이 전시됐다.

교 차 로

평화방송 대담 출연



법정 맑고 향기롭게 모임 회주는 14일 오후3시 평화방송에 출연, 장익주교(춘천교구장)와 부처님 오신날 기념 특별대담을 한다.

광동중고 교사 수계식



일면 광동학원 이사장 스님은 6일 광동중학교 법당에서 광동중 교사 20명과 광동종고 교사 14명 등 34명의 교사에게 계를 주었다.

어린이집 일일교사



법현 前 태고종 총무부장은 15일 갈현어린이집에 일일교사로 초빙돼 어린이들에게 불교동화를 들려줄 계획이다.

시민위한 기원법회



상명 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 스님은 2일 무등산관광호텔에서 천운스님(향림사조실) 현고스님(송광사주지) 송언종 광주광역시장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민을 위한 조찬 기원법회를 개최했다.

효 함앙 인천시민 축제



선일 조계종 인천사암연합회장 스님은 8일 인천실내체육관에서 '효사상 함양을 위한 인천시민 대축제'를 개최했다.

'늘푸른…' 시집 출판회



성목 산이 깊은절 주지(시인)는 14일 낮12시 두번째 시집 〈늘푸른 나의 어머니〉 출판기념법회 및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회를 봉행한다.

개교 91주년 기념식 가져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7일 '개교 91주년을 맞아 녹원스님(동국학원 이사장) 정병조교수(부총장) 모짜마루씨(일본 동국전기전산학교 이사장) 등 교수·학교관계자·학생 등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한편 김재형(KBS PD)씨는 동국대 금장휘장을 받았다.

티벳학술단체와 결연

정병조 (사)한국불교연구원 원장은 14일 티벳불교 학술단체인 '티벳 하우스(이사장 도붐 툴쿠)'와 자매결연을 맺는다. 인도 뉴델리에 설립된 이 단체는 불교와 세계 각종교와의 전통·제의·성가 등을 비교-연구하는 인도주재 티벳정부 산하 학술단체 이다.



법동복지관·자혜원 위문

이은정 대전교원불자연합회 회장(보문고 교장)은 17일 법동종합복지관, 31일 자혜원을 각각 위문하고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새긴다.

WFB 태국본부 낙성식 참석

박동기 WFB(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본부 회장은 WFB 태국 본부 낙성식에 참석하기 위해 8일 출국했다.

이 낙성식에는 박동기 회장, 이치란 사무국장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김기숙기자(대한불교신문)는 18일 오후2시 방배동 그린웨딩홀에서 차성준씨(LG정보통신)와 화촉을 밝힌다.

고침 지난호(제126호) 4면 '대부도 둥지어린이집 위문' 동정기사 사진은 능인정사 법경스님이 아닌 기원정사 법경스님이기에 바로잡습니다.

게 시 판

♣ 알림

주부부업 알선업체 찾아=공창사회복지관(관장 심산스님)은 주부들의 자아실현과 여가선용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할 업체를 찾고 있다. (051)363-2063

간병인교육=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스님)는 26일~30일까지 5일간 취업대비와 가족봉사를 위한 제1기 간병인 교육을 실시한다. 수강료는 무료. (02)723-4773

♣ 답사

정기산행=대구불교산악회(회장 김장근)는 18일 5월 정기산행을 실시한다. 장소는 충북 영동 민주지산이며, 출발은 오전7시 동신초등학교 앞이다. 참가비 1만5천원.(053)556-3553

불교문화기행=불교신행연구회(원장 김현준)는 25일 불교문화기행을 실시한다. 답사장소는 완주 화암사, 위봉사이며 출발은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서초구민회관 앞이다. 참가비 3만원. (02)587-6613

♣ 강좌

무료바둑강좌=원심회(회장 덕신스님)는 18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1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무료바둑강좌를 개설한다. (02)720-4528

불교의 이해=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6월 2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7시 종로성당에서 '불교의 이해' 교양강좌를 실시한다. (02)816-2250

♣ 화촉

권오현 불교방송 전무의 차남 혁호씨가 김지현씨를 맞아 10일 오후1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화촉을 밝혔다.

"충청불심 묶는 초석 다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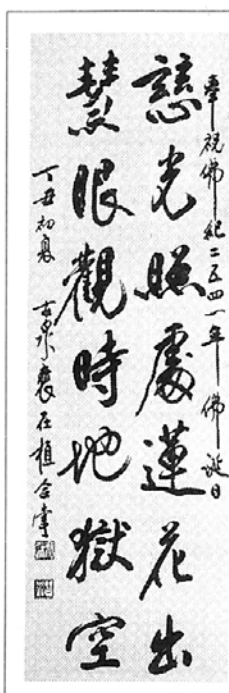
청주 BBS 새 지사장 각 현 스님



각현스님(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이사장)이 8일 열린 불교청주방송 긴급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새 지사장에 선임됐다.

스님은 "다양한 정보제공과 질높은 프로그램제작으로 청주지역 불자들에게 사랑받는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또한 "최근 불교청주방송과 관련된 현안문제들은 서울 본사와의 협의와 지역불자들의 여론을 수렴해 순리대로 하나씩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연〉



배재식씨 봉축휘호

'자비가 비추는 곳에 연꽃이 피고 지혜의 눈으로 볼 때 지옥이 사라진다'

고천 배재식 부산서예협회이사장(동일초등학교 교장)은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휘호를 본사에 보내왔다.

고천선생은 국전 제24회(75년) 대통령상을 수상한 국전초대작가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본부 모금 현황

△서울역캠페인 2,061,200원 △대불련 부산지부 8,051,000원 △우리는 선우 4,000,000원 △지장정사 1,811,960원 △다르마법우회 2,000,000원 △명성여고 1,784,300원 △강화도 보문사 1,140,000원 △정토포교원 승만회 700,000원 외 13개단체 3,752,550원 △이송자 1,000,000원 △손경연 1,000,000원 외 149명 7,918,980원 △밥 한 공기 나누기 운동 6,487,960원 △한 끼 굶기 운동 205,000원 〈7일 현재 총 367,315,703원〉

- 후원금 접수(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2541 부처님오신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

● 국회 정각회장 ●

국 회 의 원

서 석 재

▶ 전 화 : 02-784-3280, 788-2317
▶ 尋牛會 : 02-738-0726~8
FAX : 02-737-7128

봉 2541 Buddha's Birthday 축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

'97 청정운동 실천지침

1. 지계수행의 생활화를 위하여
- 매일 참선, 염불, 사경 중 하나를 실천한다.

2. 보시의 생활화를 위하여
-매월 가족단위로 일정액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쓴다.

3. 근검, 절약의 생활화를 위하여
- 호화사치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4. 환경개선의 생활화를 위하여
-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다.

5. 전통문화의 유지,계승을 위하여
- 한가족, 한단체가 하나의 문화재를 선정하여 보호, 선양한다.

청정운동은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을 위한
신행개혁운동이며 사회개혁운동입니다.

청정운동추진위원회

121-050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내 (재)대한불교진흥원
TEL 02-719-2606 FAX 02-719-5052

불자 세상보기

美의원 10명 첫 결의안

"위안부동원 日사죄·보상하라"

2차대전중 일본이 저지른 모든 전쟁범죄에 대해 공식사과와 보상을 일본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이 윌리엄 리핑스키 미국 하원의원 등 초당파의원 그룹 10명의 주도로 미의회에 제출된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6일 워싱톤발로 보도했다.

결의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731부대 생체실험, 난징대학살, 포로학대 등의 전쟁범죄 행위에 대해 일본정부가 아직도 공식 사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명확한 사죄 △보상 △위안부 등의 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인도적 기금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특히 일본군 포로가 된 4만8천여명의 군인 및 민간인에 대한 보상으로 본인 및 가족에게 2만2천달러씩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모두 10억5천만달러(우리돈 9천5백억원)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모든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공식사죄, 보상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미국 의회에 제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음식쓰레기 북동포 굶주리는데…

하루 1만5천t…연간 8조원 1만t 식량 북기아 해소



◇7일 서울 종로구 위생업협의회 회원들이 탑골공원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결의대회를 가졌다.

4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권오기 통일부총리가 "김일성이가 생전에 '북한에 하루 1만톤의 식량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다'고 했다는데 우리는 하루에 버리는 음식쓰레기가 1만5천톤이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보라"는 고건 총리의 지시로 토론회는 끝을 맺었다.

음식물쓰레기는 수분과 염분이 다량 함유돼 불에 태우기 어려울 뿐아니라 매립하더라도 침출수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악성 폐기물'이다. 하루 평균 18만여톤이 발생한다.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8조원어치,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0%가 넘는 양이다. 사료 또는 퇴비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2%에 그치고 있다.

각 시·도와 환경부는 '음식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를 정도로 이 문제에 골몰하고 있다. 경기도는 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화, 재활용시설 운영 예산지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음식쓰레기 비중은 90년 27.4%에서 95년 31.6%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음식물쓰레기의 주발생원은 음식점(42%)과 가정(41%), 시장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소(13%) 등이다. 여기에서 줄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몇가지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주방싱크대에 스타킹이나 양말을 걸어놓고 음식물쓰레기를 물기가 빠질 때까지 넣어둔다. △음식점에서는 양파 등을 담는 망사형 자루를 사용하면 물기를 제거할 수 있다. △과일껍질은 그대로 버려도 된다. △국물이 많은 음식은 국물을 먼저 하수구에 버린 뒤 물기를 뺀 건데기는 봉투에 넣어 버린다.

음식쓰레기 줄이기는 절약은 물론 처리비용 절감의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는 국민의 의식이 변해야 음식물쓰레기 공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불교의 눈 "오관게 생활화 합시다"

도원스님(천태종 명락사주지)은 "우리가 1년 동안 버리는 음식량이면 굶주리는 북녘동포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먹다 버리는 일은 죄악을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적당량의 음식섭취 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양할 때 불자들이 외우는 오관게(五觀偈)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의 좋은 가르침이다. "음식을 받고는 다섯가지로 살펴보되, 공력이 얼마나 들었으며 어찌하여 여기 왔나. 내 도덕과 내 행실이 이 공양을 받을만한가. 나쁜 마음 끊으려면 탐진치가 으뜸일세. 여윈 몸 낫는데는 다시 없는 약이리니. 도를 이루고자 이 음식을 먹사오리." 〈사분율 행사초(行事鈔)〉

〈유교경〉에서도 "음식을 대할 때에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며, 좋은 것은 취하고 맛없는 것이라고 싫어하지 말며, 마땅히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만 먹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봉축칼럼

여래의 깃발이여



김 중 배
〈참여연대 공동대표〉

흔히 '위기'는 또한 '기회'라는 말이 회자된다. 모든 위기엔 필경 그 위기를 몰아온 원인이나 병리가 걸려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 위기의 원인이나 병리를 다스리려면 새로운 정도회귀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뜻에서일 터이다.

그러나 오늘의 이땅엔 위기의 신음소리만 어지럽다. 구태여 한보사태니 대통령의 아들이니 하는 현실의 소재들을 끌어들일 필요도 없다. 부패의 악취와 정경유착, 경제의 추락과 시민의식의 미성숙 따위가 한탄되면서도, 극복과 전환의 등불은 보이지 않는다.

절망의 터널 밝히는 등불

어쩌면 오늘의 현실과 어울리지 않는 수작이 될지도 모르나, 명색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무리속에서 '인과의 권고'를 새겨 깨닫은 이를 찾아보기 어려운 탓이리라.

"샘 구멍을 막는 나그네는 물줄기를 붙들지 않아도 저절로 마르고, 불씨를 꺼버리는 어른은 끓는 솥을 쳐들지 않아도 저절로 멈춘다."

그들은 입을 모아 척결과 근절을 떠벌이지만, 부패의 물줄기는 그대로 흐른다. 탈선의 솥은 여전히 끓어오를 뿐이다. 한마디로 샘 구멍과 불씨를 남겨둔 채 겉가죽만을 주물러대는 탓이다.

그뿐이 아니다. 오늘의 시점은 이 땅의 겨레에게 대전환의 결단을 요구한다. 굳이 '세계화'의 선소리에 동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제 국제화의 생존경쟁 속에서 선진의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공업화의 낡은 틀도 정보화의 새틀로 가꾸어내야 한다.

돈과 지역성이 지배하는 정치문화도 탈바꿈되어야 마땅하다. 정치란 더 말할나위도 없이 '더불어 삶'의 기술이다.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네가 있는 더불어 삶의 세계에서, 돈과 지역으로 울타리를 치는 정치란 이미 바른 이름의 정치일 수 없다. 더구나 지구촌의 더불어 삶이라는 기류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그 배타와 폐쇄의 낡은 문화를 어울림과 열림으로 이끌어올리는 작업은 비단 정치의 몫만은 아니다. 시민의 몫이며 겨레의 몫이다. 당장 굶주림으로 시들어가는 저 북녘의 겨레를 떠올려 보더라도 그러하다. 우리의 소원인 통일은 무엇의 통일인가. 국토의 통일인가. 아니다. 우리의 소원은 민족의 통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낡은 시대를 주도해온 낡은 지배계층은 이미 얻은 그들의 이권을 지키고자 새로운 틀을 설계하지 않는다. 새로운 질서를 궁리하지도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위기 이상의 위기이다. 희망의 새싹을 묻어버리는 절망의 핵심이다.

때문에 세상은 어지럽고 세상은 어둡다. 이런 때 떠오르는건 역사가 전해주는 두 개의 등불이다. 그 하나는 흔히 염세 철학자로 알려진 고대 그리스의 디오게네스가 대낮에 들고 다녔다는 랩프이다. 그는 대낮도 어두울 수밖에 없는 시대에, 랩프를 켜들고 사람다운 사람을 찾아다녔다고 전해진다. 가히 그 목마른 심정을 헤아릴만 하다.

또 다른 하나는 불경에 보이는 바라문 수행자의 횃불이다. 그도 역시 대낮에 횃불을 들고 다녔으나, 디오게네스와는 다른 뜻에서였다고 한다. 현자로 변신한 부처님의 물음에 그 수행자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하도 우매해서 밝음을 믿지 못하고 있소. 그래서 횃불을 들어 그들의 앞을 비쳐주는 것이오."

불경은 그 오만과 어리석음을 "장님이 촛불을 든 것과 같아, 남은 비추지만 자신은 밝히지 못하네"라고 노래하고 있지만, 오늘의 안타까움은 그 오만과 어리석음의 횃불마저 그립게 한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은 어떤 연극을 방불케 하는 그따위 등불의 수작에 빨려들 때는 아니다. 탐욕과 성남과 어리석음의 불길을 잠재우는 스스로의 등불(自燈明), 법의 등불(法燈明)을 켜올려야 할 때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

겨레가 신음하는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대전환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또 무엇인가. 탐욕의 불길이다. 성남과 원망의 불길이다. 그리고 어리석음의 불길이다. 그 번뇌의 불길을 다스려야만 위기는 기회의 이름을 획득하게 된다. 대전환이 요구하는 새 틀과 새 질서도 짜여지게 된다. 물론 불법의 세계인 정토는 멀다. 어쩌면 완성을 허락하지 않는 영원한 추구의 과녁이 정토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불법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그만큼 일치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래의 깃발을 받드는 이들이여. 아니, 여래의 깃발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여. 이젠 제발 산간에서 떨쳐나와 현실의 세계에도 법의 등불을 더욱 밝혀주기 바란다. 등불의 밝힘에 더욱 정진해주기 바란다. 등불이 꺼진 세계엔 위기와 기회의 변증법이 살아나지 못한다. '파사현정'의 일대 전환도 기약되지 않는다. 아, 여래의 깃발이여, 등불이여.

지계 금주 파계

과학재단 설립 150억 출연

●… 대성그룹 김수근회장이 그룹창립 50주년(5월 10일)을 맞아 1백50억원을 출연해 해강과학문화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앞으로 에너지공학 건설 정보통신 환경 육림사업과 관련된 기술분야의 인재양성 및 학술연구 등을 주로 지원한다. 과학기술처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내년 1월께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벌인다.

노인들 용돈모아 장학회 설립

●… 경기도 김포군 김포노인대학 할아버지 할머니 2백여명이 지난 1년 동안 용돈을 모은 7천3백만원으로 2일 윤리장학회를 설립했다. 지난해말에도 군내 7개 중학교에 30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학교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 사고로 숨진 어린이의 학부모 박기환씨(41)가 3일 아들이 다니던 초등학교를 방문, 1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박씨는 또 위로비와 보상금도 학교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건교부, 점심 5천원 이하로

●… 건설교통부가 최근 과소비추방에 공직자들이 앞장서자는 취지로 정부제2종합청사에 근무하는 건교부 직원 9백여명에게 5천원 이하로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주변 업소 60여곳의 리스트와 메뉴를 자세히 소개한 소책자를 배포했다. 건교부 직원들은 점심식대를 아낀 돈을 저금통에 모아 사회복지시설에 보내기로 했다.

부산시, 장애인 민원 宅配

●… 부산시는 1일 등록장애인 2만6천 9백여명에 대해 6월 1일부터 주민등록과 호적 등-초본 등 20종의 민원서류에 대해 동사무소에 전화신청하면, 담당직원 또는 통장이 집까지 배달해주는 '장애인 민원택배'를 실시키로 했다.

신촌 문화거리로 선포

●… 김병수 연세대총장 등 각계저명인사 26명으로 구성된 '신촌문화거리조성특별위원회'는 7일 첫 사업으로 연세대 앞 신촌거리에서 '문화선포식'을 갖고 신촌을 문화거리로 선포했다. 신촌일대 대학은 물론 인근 5개 초중고교 교장과 학생대표들도 참석해 교육환경을 해치는 향락문화를 바로잡자는 운동에 동참했다.

정부예산·기금 낭비심각

●… 재정경제원은 6일 남강댐 김해공항 확장, 인천국제공항 새만금방조제 경부고속철도 등 주요 국책사업의 공사비 예산이 사업초기 계획보다 최고 5배까지 불어났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6일 정부기금에 대한 감사결과 변칙운용 낭비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각종 기금의 폐지-통합운용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고속도 휴게소 식품 비위생

●… 식품의약국안전본부는 전국 92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휴게소 13곳과 유통식품 12건을 적발해 해당 시군구에 통보했다고 6일 발표했다. 위반 휴게소들은 유통기간이 지났거나 무허가 원료 사용, 냉장상태 불량, 변질된 식품 등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꽃박람회 부실시공·무질서

●… '97 고양 세계꽃박람회장의 '주제관' 곳곳이 7일 내린 비로 하천처럼 변해 관람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쓰레기더미와 음료수 등 각종 물건값이 많게는 시중가의 5배에 이르고 있어 박람회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아동복에 가짜 외국상표

●… 유아·아동복을 생산하지 않는 외국의 유명 의류상표를 부착, 국산 유아·아동복을 생산해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일부 의류업체들이 피에르가르뎅 아놀드파마 등 유아·아동복을 생산하지 않는 외국상표를 부착해 판매하고 있다.

1만원권 위폐 잇따라 발견

●… 마산과 창원에 이어 부산과 대구에서도 1만원권 위조지폐가 5일 잇따라 발견됐다. 경찰은 지금까지 발견된 위조지폐는 동일범이 컬러복사한 뒤 야간을 이용해 택시요금과 물건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중국산 참기름이 국산으로

●… 값싼 중국산 참깨가루로 제조된 참기름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나원식품의 '꼬소미 참기름'과 롯데삼강의 '롯데델가 참기름' 등은 참깨대신 중국에서 수입한 참깨가루를 70% 정도 섞어 참기름을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2541 Buddha's Birthday

봉 전법·교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

총 재 이외윤
이 사 장 정성도
상임이사 이정숙
원 장 백운월
이 사 배창윤 배정길 유춘득 이용규 구자일 박종 이정명
감 사 강정산 박충서
총무부장 법경
기획부장 명현 차장 운선
포교부장 현진 차장 이승우
사회부장 지암 차장 이덕법
규정부장 설산 차장 백금강
홍보부장 법농 차장 해동
재정부장 송묘심 차장 한세천
편집부장 이혜옥
대한불교학장 박종
법사동우회회장 배송암
연예인위문단장 남강수
무료직업안내 장정선
중앙정법원장 한광진
신월청소년독서실관장 배정길



사단 법인 한국불교교화원 임원일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56-16 TEL : 964-8044, 8085 FAX :965-3143

2541 부처님오신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

비전! 동국100년

21세기 '참사람 열린교육' 실현을 위해
지금, 동국대학교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96년 교육개혁실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명문사학으로의 명성을 재확인한 민족사학 동국대학교-비전! 동국 100년 마스타플랜사업의 실천을 통해 21세기 세계문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비전 1. 열린교육실현
비전 2. 캠퍼스 특성화 실현
비전 3. 다양한 투자재원의 확보와 연구기능의 사회참여강화
비전 4. 한·양방 의료협진체제 구축

※동국대학교 LA진출-Dongguk Royal University
'자비의 실천' 일환으로 18년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LA의 로얄한의과대학 및 부속한방병원을 인수하여 동국로얄대학교로 교명을 바꾸고 21세기 세계화의 기수가 되었습니다.

동 국 대 학 교 총 장 宋錫球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장 吳綠園

본교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지인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한다.

부처님오신날 특집

대불련 신행의식 조사

"졸업후 신행지속" 47%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지성불교의 산실로서 미래불교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창립 35주년을 맞은 대불련은 올해를 '신행혁신의 해'로 정하고 '신행을 통해 현재의 침체를 벗어나 한국불교의 진정한 리더로서 거듭나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대불련의 신행의식과 현황조사'를 실시, 바람직한 대불련상을 정립하고,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설문조사는 우편 또는 면접조사 방법을 택했으며 489명의 불자 대학생이 응답했다. 응답자는 남자 273명, 여자 216명이며 학년별로는 1학년 177명, 2학년 174명, 3학년 87명, 4학년 5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편집자 주〉



◇대불련은 자신의 혁신이 대불련을 바로 세우고 한국불교를 희망적으로 이끌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사진은 여름수련대회 모습).

시주 안한다 57.5%…반야심경 욀수있다 65%
불음주 56% 불망어 27% "지키기 어렵다"

'X세대'로 불리는 신세대들을 흔히 자기표현과 자의식이 강하다고 말한다. 불자대학생들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6명이 주위의 권유나 영향없이 스스로 불자의 길을 선택했으며, 개종에 대해서도 80.7%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데서 확연히 드러난다.

가족종교 불교 68.3%

불교에 귀의하게 된 동기는 불교의 가르침을 삶의 지표로 삼기 위해서(39.0%), 사찰분위기와 불교문화(30.5%) 불교의 사상이나 철학적인 면(26.9%)이 좋아서라는데 고른 응답분포를 보였다. 이는 불교의 가르침이 어느 종교보다도 윤리적이며 철학적인 진리를 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대불련 가입동기를 묻는 질문에서도 비슷한 비율로 분석됐다.

가족의 종교는 68.3%가 모두 불교였으며, 일주일에 2~3회(23.9%) 한달에 1번(17.4%) 일년에 3~4회(15.3%) 주기로 사찰을 찾아 신행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자대학생들은 신행의식은 확고한 반면 신행활동에서는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에 가도 시주를 하지않는 불자대학생이 57.5%나 되며 수지독송하는 경전이 62.0%가 없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65.4%만이 〈반야심경〉을 욀 줄 안다고 응답했다. 이는 타의로 불교를 믿게된 학생에게는 더욱 심해 73.3%가 절에가도 시주를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타의에 의해 불교에 귀의한 사람은 부모님(48.1%) 선배(19.4%) 친구(14.7%) 순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지독송하는 경전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천수경(30.6%) 반야심경(27.4%) 금강경(11.3%) 등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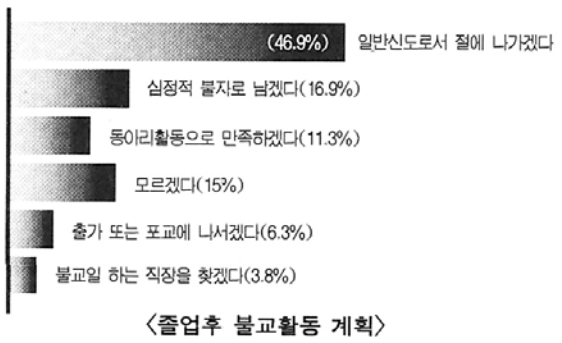
경전은 가끔(35.5%) 또는 하루 1회(13.8%) 일주일에 1회(13.8%)정도 읽고 36.5%는 틈나는대로 참선 염불도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61.6%는 참선 예불 중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참선 염불 독경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학생이 25.8%에 달했는데 바빠서(34.7%), 방법을 몰라서(30.7%), 번거로워서(16%), 관심이 없어서(10.7%)라는 이유를 들었다.

80% 이상 회비로 운영

평소 법회참석(34.7%)과 교리 및 경전공부(16.5%)로 신행활동을 하는 불자대학생 60.1%는 신행활동 동안 마음다스리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오계 중 과반수 이상(56.0%)이 불음주를 가장 지키기 어려운 항목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불망어(26.7%)를 지적했다. 평소 호신불 또는 단주를 몸에 착용하고 있는냐는 질문에 절반이상(58.1%)이 그렇다고 답했으며, 착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도 39.4%에 이르렀다.

졸업후에는 절반만(46.9%)이 일반신도로서 절에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을 뿐 심정적인 불자로 남겠다(16.9%) 동아리활동으로 만족하겠다(11.3%)는 등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더우기 불교계서 일하겠다는 3.8%에 불과했다. 이는 종권지향적 승가풍토(20.8%) 승가위주의 종단운영(22.5%) 포교부족(22.4%) 등 한국불교의 병폐를 지적한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대불련을 미래 한국불교의 주역으로 양성하기 위해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대불련 운영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반수이상(51.3%)이 타종교 대학생단체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활발한



〈졸업후 불교활동 계획〉

대불련 35년 어제와 오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초대회장 신호철)는 1963년 서울지역 17개 대학 불교학생회와 삼군사관학교 불자 대학생들의 원력으로 탄생, '엘리트집단'으로서 35년의 성상을 이어왔다.

서울대학교 불교학생회가 서돈각박사(불교진흥원 이사장)를 지도교수로 매월 불교사상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하면서 각 대학 불교학생회 창립이 불길 번지듯 퍼졌고, 4개월여만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구성이라는 한국불교사에 남을 개가를 올렸다.

'한국불교바로세우기'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엘리트집단'으로 주목받은 대불련은 출범당시의 신행중심 기조에서 70~80년대에는 민중불교운동론을 제기, 한국불교를 선두에서 이끌어 왔다. 그러나 △교계의 대학생포교에 대한 인식부족 △포교프로그램의 부재 △인재양성에 따른 일꾼교육의 연계성 미흡 △지도법사 부족 △자립력 결여 △회원간의 결속력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며 돌파구를 찾지 못한채 90년도를 맞는 시련의 과거를 보냈다.

성타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은 "회원의 급격한 감소, 활동력의 상실 등 시련을 겪긴 했지만 대학생불자들의 정의롭고 순수한 비판은 암울한 시대를 살아야했던 기성세대에게 자기반성의 계기를 제공했고, 우리 역사가 나아가야 할 잣대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대불련은 올해를 '신행혁신의 해'로 정했다.

35년차의 신행혁신은 새내기 유치 공개강좌 개최, KBUF불교아카데미 운영, 북한동포돕기운동, 교리·시사토론·수행·풍물·불교문화소모임 등을 통해 빛을 발하고 있다. 복지단체에서의 봉사활동 또한 변화된 모습 중의 하나이다.

1963년 창립 23개 지부 173개 지회
민중운동 한몫… 97년 '신행혁신해'

동문모임 '大佛'

18만 회원 95년 재결집
홍파스님·박세일수석등 회원

대불(大佛). 18만여명의 동문으로 구성된 대불련 총동문회는 67년 결성된 학사불교회의 맥을 이어 95년 4월16일 창립됐다.

초대 이사장에 명호근씨(쌍용화재해상보험(주)사장)가 추대됐으며, 신상철(6년차 본부회장)사무국장이 실무를 맡아 하고 있다. 또 휴암(은해사 기기암) 홍파(관음종 총무원장) 보광(동국대 교수) 법현(불교레크리에이션 회장)스님, 오형근(동국대) 신규탁(연세대) 고준환(경기대) 연기영(동국대)교수, 박세일 청와대사회복지수석, 박주탁 수산그룹 회장, 박찬주 국회의원 등 대불련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다.

'대불'은 출범당시 법인 구성을 통해 포괄적인 사회참여를 지향하는 단체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열악한 경제기반 등의 이유로 2년여의 준비과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부로부터 승인불가 판정을 받아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대불'은 대불련출신 스님 의사 변호사 교수 교사 사업가들을 산하기구인 학술원(원장 오형근) 복지원(이사장 명호근) 등에 영입, 전문영역을 구축할 계획이다.

2541 부처님오신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

● 대보사 ● "가족도량"



대승 큰스님

두손 모읍니다…

지난, 4월15일 저희 '대보사' 불도량을 북가좌동에서 이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처님오신날에 즈음하여 한분한분 직접 찾아뵙고 연락드리지 못한점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한 도량은 연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통편 또한 어느곳에서든지 이용하실수 있는 곳입니다.

언제든지라도 저희 '대보사'를 방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처럼 복잡하고 세인들의 마음이 착잡할때 일수록,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좋은 만남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답답하신 일이 있으실때에는 언제라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 '대보사' 도량은 음악도량이기도 합니다. 음악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승 '법현'을 찾아주십시요. 그리고 취미활동으로 악기를 다루고 싶으시다거나, '선' 또는 '명상'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편 : 홍제전철역에서 마을버스 이용 대림APT 하차
(전화번호 : 338-4594~5)

포교당안내

▶ 위 치 : 봉천역 시장통 사거리
▶ 평 수 : 50평
(옥상·베란다·방3개·입식부엌)
▶ 보증금 : 2천5백만원, 월70만원
▶ 시설비 가격절충 가능
연락처 : 02)882-6323

▶ 위 치 : 대구시 두류동
▶ 평 수 : 51평, 3층
▶ 보증금 : 2천만원, 월40만원
▶ 수련장 가능
연락처 : 053)626-7220
053)656-8808

기타광고

탈종공고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귀하
사찰명 : 제천암
주 소 : 충남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 428번지
주 지 : 하필갑
노쇠관계로 인해 부득이 탈종을 공고함.
1997. 5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성북리 393-1
대 원 사
연락처 : 0331)262-0606

학생모집
▶ 포교교육과 : 동양종교, 종교음악, 역학지도
▶ 유아교육과 : 유아놀이, 아동미술, 생활미술
▶ 종무 행정 : 상담실무, 상담행정, 생활상담
1. 수료후 수료증 수여 및 자격증 (포교사, 법사, 유아지도자, 청작놀이사, 불음법회사, 상담사, 역학사) 취득가능
2. 소형버스 통학가능
3. 충북괴산에서 월 2회~4회 강의
전화 : (02)931-6075~6
(0582)535-1987
(교육청 인가 97호)
만대교학대학원



바른불인
천부경의 참뜻 바로 보이다
대원 문재현 역저
T.597-2460

病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 관 단 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 수련장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 안내 : (0593)34-1115~6
012-598-1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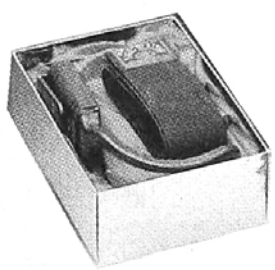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옥좌 복전함
• 음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강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광사) 대웅전 문짝 닫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지사) 대웅전수미단닫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真工 합장

氣치료(초능력)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적같이 고치짐.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처료 불가병.
○ 절에서 가족과 같이 생활하실 노보살님 모십니다.(노부부도 가능)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
(조치원역에서 10분거리)
광 불 사
주지 대원 합장 0415-63-0749
011-453-8611

不老化精 안내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천태 산골 사람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지(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천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역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밤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맑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如來健康院 合掌
☎ 053)655-2227

백두활법사 자격취득 교육안내
■교육안내
· 본회 자격 취득후 지부 운영 가능
· 교육 수료자는 공인활법사, 스포츠 마사지사의 자격을 부여함
■교육내용
· 활법기초이론 및 교정술(카이로프라틱교육)
· 경추, 흉추, 요추, 골반…
■교육기간 : 2개월(특별속성반 2주)
■교육대상 : 침구 지압, 맛사지 종사자 직장인, 일반인, 대학생, 스님
(사)백두건강활법협회
서울특별시지부
서울시 중랑구 상봉1동 100-17
TEL)434-2017

단전 자동 氣 운동 열풍!



예로부터 신선이 된다고 하는 최고의 건강법으로 알려진 단전회음 "氣" 운동열풍이 인기다. 그러나 너무 힘들고 어려운것만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 아주 간편하고 쉽게 단전,회음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잠자리에 누워 스위치만 누르면 20분간 짜릿짜릿한 미세진동파가 단전과 회음을 운동시켜 준다. 단전은 인체 에너지(氣)의 중심이며 단전운동을 통하여 20대 못지않는 건강과 활력을 찾을 수 있다.

대소변이 시원시원해지는 *단전, 회음 건강운동기!!*
■ 장벽에 수십년 묵은 숙변도 7~15일이면 확실히 배져나오고 소변이 힘차게 쏟아집니다.
■ 장속에 독소가 빠져서 피로가 없어지고 얼굴색깔이 달라지고 힘이 솟아납니다.
■ 단전·회음운동으로 精氣가 강화됩니다.
⊙ 책자를 무송해 드립니다
韓國傳統 氣 健康 硏究會
Tel. 02)455-6944(代)

광고문의
현대불교 생활정보
광고 효과도 좋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광고주께서 기대하시는 광고효과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리수
취급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 일체 불교악세사리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신 생 아 작 명
역학개인지도
738-2045.2046
조계사옆 현대불교신문사 앞
韓國民俗哲學硏究所

좌골신경통·목,허리 디스크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院長 張三洙
전문시술원 압구정역
야·七一一·四三七〇
주·五四三·七三〇六

간경화·완치 보장
만성 신장병·정신질환·신병
0552-82-8128, 811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홀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 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감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대불련 신행의식 조사

"교육프로 태부족" 56%

상담·생활지도 관심 높아
수련대회 가장 기억 남아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부진하다고 응답한 48.7% 중 51.0% 40.6%가 각각 회원들의 열의부족, 종단 지원부족을 이유로 지적했다.

지도법사에 대해서는 상담 및 생활지도(32.5%) 외에도 불교학생회 운영에 대한 관심(26.2%) 근기에 맞는 법문(15.9%) 교리 및 수행지도(15.9%)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보였다.

지회는 80%이상을 회비로 충당(56.1%)하거나 선배 및 불교단체·사찰지원(33.1%)으로 운영하며, 신입회원은 커리큘럼(32.9%) 입문서(23.0%)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신입생·기성회원을 위한 특별한 교육이 없다는 응답도 각각 25.0%, 31.1%에 달해 그동안 대불련 포교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교육프로그램의 부재를 여실히 나타냈다.

대불련 활동 중에서는 수행학교(수련대회 29.9%)와 1천80배·교리학습·스님법문(각각 14.9%) 등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답했다. 또 시간의 부족(30.0%) 회원들의 열의부족(26.0%) 재정의 부족(21.3%)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한편 대불련이 불교계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묻는 질문에는 31.8%가 영향을 끼칠만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을 뿐 절반에 가까운 42.9%가 체면유지 정도로 별다른 비중이 없다고 응답해 줄어드는 회원 수와 함께 위기감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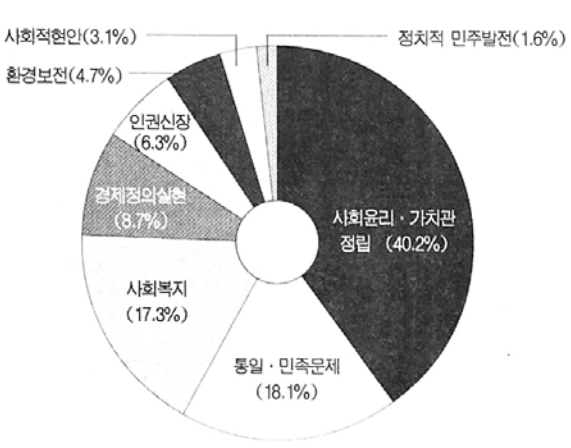
한국불교의 전반을 묻는 질문 중 자신이 다니는 전법도량에 대해 57.8%가 6~8점(10점만점)의 높은 점수를 준 반면, 수행이 여법한 스님은 10~3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출가자들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또한 조계종 개혁 3년에 대해서도 47.9% 20.5%가 각각 달라진게 없다,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한국불교의 사회참여에 대해서는 절대다수의 76.7%가 만족했으며, 사회참여가 필요한 분야로는 사회윤리·가치관 정립(40.2%)과 통일·민족문제(18.1%) 사회복지(17.3%)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윤리정립에 불교 나서자

반면, 인권신장(6.3%) 환경보전(4.7%) 사회적현안(3.1%)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표했다. 이는 인권신장 등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불교본연의 모습과 방법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로 풀이된다. 또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불교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대중화(27.0%)와 시대적 덕목으로써의 생활화(25.2%)를 우선으로 꼽았다.

도필선 기자



〈한국불교 사회참여 필요분야〉

대불련 연혁

1963 8.26 조계사에서 창립발기위원회 결성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덕성여대 동국대 서울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 17개 대학과 삼군사관학교 대표 참여)
9.22 동국대 중강당에서 창립총회
1965 3.28 제2차 대의원 총회-지부설치시작
7.10 고려대 불교학생회 회원 수련중 장마로 10명 사망
1966 4.30 서울지부 결성
11.3 민족문화수호전국대학생 궐기대회
1967 3.19 제 4차 대의원총회-대불련 회기 및 마크·회가 제정
4.15 강원지부 결성
10.1~3 학사불교회 창립
10.5 세계불청대회 최동수 명예회원 (대불련 대표) 참가
1969 7.15 전북지부 창립
1970 10 티베트난민지원 및 모금운동 강연회
1971 6.30 〈대학불련보〉 창간
10.11 일본 와세다대학 불교청년회와 토론회 개최
1972 8.17 제1차 화랑대회(82년까지 계속)
1973 2.22 대불련 만해 한용운선사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발족
1974 8.2 제1차 여학생 다도 수련회
1975 3.25 한·일 불교세미나
8 화랑대회 무산(긴급조치 9호에 의거 연합활동 금지)
1976 10 일본 동경대, 경웅대, 와세다대학 초청세미나
1981 7 〈진리의 벗〉 창간
1982 5.25 명진홍목사 불교비방설교 항의 규탄대회
7.28 제1차 한국불교 1600년대회
1984 10 교과서 왜곡 규탄성명
10.17 10·27법난 규탄성명
11 총선에 대한 시국선언 발표
1986 9.10 불교자주화 및 사회 민주화 쟁취 철야법회
10.16 불교관계악법 철폐 공동대책위원회 및 백만인 서명운동 본부 발족
1987 6 6월항쟁 참여
6.22 조계사 집회
1991 5.18 제등행렬 폭력 만행 규탄
1992 2.13 제1기 수행학교
8 대불련 역대회장단 회의결성
11.21 창립 30주년 기념사업회 총회

설/문/문/항

1. 불교에 귀의한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①1년이내(9.2%) ②1년(21.7%)
③2년(10.5%) ④3년(9.9%)
⑤4년(3.3%) ⑥5년이상(45.4%)

2. 불자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주위의 권유나 영향에 의한 것입니까?
①자의(60.4%) ②타의(39.6%)

3. 권유나 영향을 받았다면 가장 영향을 준 분은?
①부모(48.1%) ②형제(3.1%)
③친척(0.8%) ④선생님(3.1%)
⑤선배(19.4%) ⑥친구(14.7%)
⑦스님(3.9%) ⑧기타(7.0%)

4. 스스로 선택했다면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①사찰분위기와 불교적 문화가 마음에 안정을 주어서(39.0%)
②불교의 사상이나 철학적인 면이 좋아서(30.5%)
③불교의 가르침을 삶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26.9%)
④가족과 자신의 복락을 위해서(3.6%)
⑤기타(0.4%)

5. 가족의 종교는?
①모두 불교(68.3%) ②타종교(5.0%)
③무교(15.5%) ④다종교(11.2%)

6. 사찰을 찾는 횟수는?
①일주일에 1번(13.8%)
②일주일에 2~3회(23.9%)
③한달에 1번(17.4%)
④한달에 2~3회(9.4%)
⑤일년에 1~2회(8.0%)
⑥일년에 3~4회(15.2%)
⑦일년에 5~6회(12.3%)

7. 절에 기린 시주를 하십니까?
①예(42.5%) ②아니오(57.5%)

8. 반야심경을 욀 수 있습니까?
①그렇다(65.4%) ②외지 못한다(34.6%)

9. 수지독송하고 있는 경전이 있다면 무슨 경전입니까?
①반야심경(27.4%) ②천수경(30.6%)
③ 금강경(11.3%) ④법구경(8.1%)
⑤화엄경(3.2%) ⑥기타(19.4%)

10. 경전읽기는 어느 정도 합니까?
①하루 여러차례(4.6%)
②하루 1회(13.8%)
③일주일에 1회(13.8%)
④일주일에 2~3회(9.2%)
⑤기점(35.5%)
⑥읽지 않는다.(23.0%)

11. 관소 참선·염불·독경을 하십니까?
①매일한다(13.8%)
②됩니는대로 한다(36.5%)
③일주일에 1번(22.6%)
④안한다(25.8%)

12.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바빠서(34.7%)
②방법을 몰라서(30.7%)
③관심이 없어서(10.7%)
④번거로워서(16.0%)
⑤장소가 마땅치 않아서(8.0%)

13. 참선·예불 중 자신과 관련된 기도를 합니까/
①한다(61.6%) ②안한다(37.7%)

14. 관소의 신행활동은?
①법회참석(34.7%)
②교리 및 경전공부(16.5%)
③참선(7.8%)
④염불·독경(7.8%)
⑤사회봉사활동(6.1%)
⑥사찰소임활동(13.1%)
⑦수련대회 참가(12.0%)
⑧없다(2.0%)

15. 신행활동을 하면서 가장 비중을 두는 것은?
①마음 다스리기(60.1%)
②불보살의 가피(3.2%)
③심의 지혜를 찾는다(22.2%)
④깨달음 추구(11.4%)
⑤기타(3.2%)

16. 오계 중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은?
①불살생(3.3%) ②불투도(6.7%)
③불사음(7.3%) ④불음주(56.0%)
⑤불망어(26.7%)

17. 타종교로의 개종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①있다(19.4%) ②없다(80.7%)

18. 광소 호신불 또는 단주를 몸에 착용하고 계십니까?
①예(58.1%) ②아니오(39.4%)

19. 졸업후 불교활동 계획은?
①일반신도로서 절에 나가겠다(45.9%)
②동아리활동으로 만족하겠다(11.3%)
③신정적 봉지로 남겠다(16.9%)
④승가 또는 포교에 나서겠다(6.3%)
⑤불교입을 하는 직장을 찾겠다(3.8%)
⑥모르겠다(15.0%)

*대불련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0. 대불련에 입회하게 된 동기는?
①불자로서 당연히 입회했다(21.4%)
②심의 지표를 불교에서 찾기 위해(22.7%)
③주위 사람의 권유(19.5%)
④동아리를 갖기 위해(22.1%)
⑤불교교리를 배우고 싶어서(14.3%)

21. 법우님이 속한 지회 모임의 권관 회원 참가자 수는?
①10명 내외(32.1%) ②20명 내외(34.6%)
③30명 내외(11.5%) ④40명 내외(4.5%)
⑤50명 내외(4.5%) ⑥50명 이상(12.8%)

22. 현재 지도법사의 감화력(만족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기대 이상이다(32.0%)
②보통이다(40.7%)
③부족한 편이다(13.3%)
④지도법사가 없다(12.7%)

23. 지도법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①법회 날짜와 시간을 지켜주었으면 한다(9.5%)
②근기에 맞는 법문을 해주었으면 한다(15.9%)
③상담 등 생활지도를 해 주었으면 한다(32.5%)
④교리 및 수행지도를 해 주었으면 한다(15.9%)
⑤불교학생회 운영에도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26.2%)

24. 지회운영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①80% 이상을 회원 회비로 충당(56.1%)
②회장을 비롯한 몇 명이 부담한다(4.1%)
③수익사업, 특별회비 등(6.8%)
④선배 및 불교단체(사찰 포함)의 지원(33.1%)

25. 지회에서는 신입회원 및 초심자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십니까?
①입문서를 중심으로 교육(23.0%)
②교재없이 수시로 질해서 진행한다(25.0%)
③커리큘럼에 따라 진행한다(32.9%)
④특별한 교육이 없다(19.1%)

26. 기성회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어떻게 하십니까?
①교리시험 중심으로 교육(16.2%)
②교재없이 수시로 질해서 진행한다(22.3%)
③커리큘럼에 따라 진행한다(26.4%)
④특별한 교육이 없다(31.1%)

27. 대불련 활동 중 가장 좋게 기억에 남는 것은?
①1천80배 또는 3천배(14.9%)
②발우공양(3.7%)
③새벽예불(5.2%)
④교리학습(14.9%)
⑤스님의 법문(14.9%)
⑥수행학교(수련대회)(29.9%)
⑦기타(16.4%)

28. 대불련 생활중 가장 큰 어려움은?
①지도법사의 부재(5.3%)
②재정의 부족(21.3%)
③법회공간의 미비(4.7%)
④시간의 부족(30.0%)
⑤회원들의 열의 부족(26.0%)
⑥프로그램의 미비(12.0%)

29. 대불련 활동을 타종교 대학생단체와 비교한다면?
①활발한 편이다(27.0%)
②비슷하다(24.3%)
③다소 부진하다(36.2%)
④매우 부진하다(12.5%)

30. 부진하다면 그 이유는?
①회원들의 열의부족(51.0%)
②종단차원의 지원부족(40.6%)
③선후배들의 유대부족(7.3%)

31. 불교계 내에서 대불련이 차지하는 위상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①비중이 매우 높다(6.5%)
②영향을 끼칠만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31.8%)
③이름에 대한 체면유지 정도다(26.0%)
④다른 비중이 없다(16.9%)
⑤이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18.8%)

32. 대불련이 한국불교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불교일꾼의 배출(33.8%)
②종단지도부 등 불교내의 비판 활동(13.9%)
③기복불교에서 지식불교로의 전환 등 불교의 이미지 쇄신(32.5%)
④회원포교에 기여(19.9%)

33. 대학생 대상 포교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①교리강좌, 수행학교 개설 등(17.8%)
②불교문화활동의 확대(63.8%)
③봉사를 통한 신앙활동 강화(13.8%)
④기타(4.6%)

34. 선후배들에게 바라고 싶은 점은?
①경제적 지원(16.4%)
②신행길잡이(25.0%)
③동문결속, 유대강화(55.3%)
④기타(3.3%)

*한국불교 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35. 자신이 다니는 사찰이 전법도량으로써 맞점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10점 만점)
①1~3점(6.9%) ②4~5점(15.5%)
③6~8점(57.8%) ④9점이상(19.8%)

36. 수행이 여법하다고 생각되는 스님은 대략 몇 % 쯤 된다고 보십니까?
①10~30%(50.9%) ②31~50%(24.5%)
③51~70%(12.7%) ④80%(11.8%)

37. 비구니 스님의 위상강화에 대한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적성(89.4%) ②반대(8.5%)

38. 조계종의 개혁 3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성공적이다(11.0%)
②비교적 성공적이다(17.8%)
③별로 달라진게 없다(47.9%)
④완전히 실패했다(20.5%)

39. 한국불교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느 분야가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경제정의 실현(부정부패·부조리추방 등)(8.7%)
②정치적 민주 발전(1.6%)
③사회복지(17.3%)
④통일·민족 문제(18.1%)
⑤인권신장(6.3%)
⑥환경보전(4.7%)
⑦사회윤리·가치관정립(40.2%)
⑧사회적 현안(3.1%)

40. 현재 한국불교의 사회참여에 만족합니까?
①매우 만족(1.8%) ②그런대로 만족(15.6%)
③보통(26.8%) ④대체로 불만(46.1%)
⑤아주 불만(10.2%)

41. 불교문화 가운데 사회적으로 확산시켜야 될 것을 고른다면?
①산우공양(5.2%) ②재중공사(12.5%)
③차생(5.4%) ④무소유 보시정신(36.9%)
⑤5계(15.2%) ⑥지지·포살(17.0%)
⑦동체대비(7.5%) ⑧기타(0.3%)

42. 한국불교의 병폐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종권지향적 승가풍토(20.8%)
②승가위주의 종단운영(22.5%)
③계율 문란(9.8%)
④비조직적 집체(10.3%)
⑤교리의 현대적 적용문제(14.2%)
⑥포교부족(22.4%)

43. 한국불교의 나아갈 방향을 하나만 꼽는다면?
①재중흥(불교인구 저변확대)(27.0%)
②환대화(역강, 교리, 경전 전산화 등)(22.1%)
③세계화(세계불교주도)(11.6%)
④사회화(사회역할증대)(14.1%)
⑤생활화(시대의 덕목으로써)(25.2%)

2541 부처님오신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

호국참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
주지 정영도 대중일동 신도일동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64번지
종무소 : 993-3161~3 주지실 : 993-5002
FAX : 0396-671-1445

대한불교조계종 관음기도도량
남해보리암
주지 동욱 대중일동 신도일동
▸경남 남해군 도현면
전화 : 0594-6500,6115

대한불교조계종
봉정암
설악산 적멸보궁
주지 설응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전화 : 011-361-2828

대한불교조계종
심원사
주지 정영도
신도일동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호1리 72
전화 : 0353-55-3468

대한불교조계종
등명락가사
주지 청우
총무 진종
신도회장 곽기웅
가섭회장 신호승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산17
전화 : 0391-44-5475,5337

농촌한식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76-2
전화 : 0391-647-6696

올젠
대표 권영호
▸강원도 강릉시 금학동 99-10
전화 : 0391-647-3245

관음불교사
대표 김용식
제사용품, 농악기구, 불교용품, 방자 유기류 전문
▸강원도 강릉시 금학동 29번지
전화 : 0391-42-8880

대한불교조계종
신륵사
주지스님
대중일동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282
전화 : 0337-85-2505

대한불교조계종
낙산사
주지 송지홍
신도일동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
전화 : 0396-671-2447~8
FAX : 0396-671-1445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사
회주 고담 태정
주지 斗山 일면
총회장 정형식
신도회장 이불이성
거사림회장 임인수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불암동
전화 : 0346-65-8345
0346-554-0635

우주정사
주지 법현
부처님 氣를 전달하여 디스크 환자, 관·다리 마비환자, 신경통·관절염 환자를 치료하는 기적의 손을 가진 스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138-2
전화 : 0331-251-2871
0331-252-1766

불교 전적 29점 '국보'

대부분 경전…보물도 60% 이상

우리는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먼저 석굴암, 다보탑과 같은 유형의 문화재를 떠올리겠지만 우리의 관심이 미처 닿지 못하는 문화재가 바로 고서, 전적류의 문화재들이다. 이들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지만 우리민족의 얼과 정신을 계승해온 소중한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다.

세계최고의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경〉 등 이들 전적류 상당수가 불교문화재이다.

320여점이 넘는 국보 보물지정 전적류 가운데 절반이상이 불교관련서 들이다.

국보지정 전적류 총 48점 가운데 29점이 불교 관련서(표 참조)들이고 보물지정 불교관련 전적류도 1백여점 이상이다.

이들 지정문화재 불서는 경전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방광불화엄경류가 40여점이고, 묘법연화경류도 37점이나 된다.

또 〈금강반야바라밀경〉과 〈반야바라밀경〉 〈유가사지론〉 〈사십이장경〉 등 다양한 불교경전이 남아 있다. 그 형태에 있어 신라시대에는 짧은 다라니 등의 불경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고려시대에는 국교로 승격된 불교가 호국이념과 결부돼 대장경 판각 등 불교서적의 제작이 가장 활발하였다. 이에 반해 조선시대에는 숭유억불정책의 영향으로 주로 경사(經史) 중심의 책들이 간행되었다.

국보 제196호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경서. 신라 경덕왕 13년(754년) 연기법사의 발원으로 제작됐으며 당시 사경의 특징과 서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고려 공민왕 22년(1373년)에 목상지에 은으로 쓴 법화경 완질본인 국보 제185호 〈상지은니묘법연화경〉은 정교한 글씨의 희귀본이다.

전주 덕운사에서 간행된 불경인 보물 제877호 〈금강반야바라밀경〉은 다른 불서에서는 볼 수 없는 설법도가 이채로운 귀중한 자료다.

이들 경전류 외에 조선 세종대왕이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위해 수양대군 등에게 명하여 제작했다는 보물 제523호 〈석보상절〉은 석가의 일대기를 한글로 번역한 불교성전이다.

또 중국 당나라의 선승인 영가현각스님의 〈선종영가집〉(보물 제641호)과 보조국사 지눌의 〈목우자수심결 합철법어〉(보물제769호), 〈선립보훈 권 상·하〉(보물제 700호)등 고승관련 법어집도 다수 전해지고 있다.

이은자 기자

◇불교전적류 국보

지정번호	이름
185	상지은니묘법연화경
196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
202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37
203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6
204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 36
210	감지은니불공견색신변진언경
211	백지묵서묘법연화경 권 1~7
212	대불정수능엄경 권 1~10
215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권31
234	감지은니묘법연화경 권1-7
235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보현행원품
241	대반야바라밀다경 권249
243	현양성교론
244	유가사지론 권17
246	대보적경 권59
251	대승아비달마잡집론
256	대반야바라밀다경 권 제1
257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제29
265	대반야바라밀다경 권 제13
266	대방광불화엄경 권 제2, 75
267	아비달마식신족론 권 제12
268	아미담비파사론 권 제11, 17
269	불설최상근본대락금강불공삼매대교왕경
271	현양성교론 권 제 12
272	유가사지론 권 제 32
273	유가사지론 제 권 15
276	유가사지론 권 제 53
277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 제36
279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 제74(권제6)



◇동국대에 소장돼있는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국보 제212호).

"책으로 문화재 여행"

서점마다 특설코너 '북적'

90년이후 출간 '붐'…답사기 인기

'97 문화유산의 해

'97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우리 문화유산 바로알기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문화유산 관련서들이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최근 서점마다 문화유산 관련 도서 특설코너까지 생겨나고 있는 이들 문화유산 관련서들은 답사 여행의 안내서 뿐 아니라 대중교양서로도 점차 자리잡아 가고 있다. 특히 우리 문화유산의 전통과 역사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불교문화재 관련 책들은 90년 이후 출간붐을 이룰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다.

일반인 대상의 인문교양서로 출간된 권영필교수(고려대)의 〈실크로드 미술〉과 장충식교수(동국대)의 〈한국의 불교미술〉 문명대교수(동국대)의 〈한국불교미술의 형식〉 〈한국불교미술사〉등은 불교미술의 역사와 사상적 배경을 이해함과 동시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관조하는 심미안을 키워주는 본격 불교미술 개론서들이다.

스테디블서로 자리메김한 대원정사의 〈한국의 불교미술〉도 11년만에 개정증보판으로 나와있다. 불교미술의 정의로부터 불교미술 전반을 알기쉽게 소개한 이 책은 선문화의 올바른 이해 단청과 고려불화등 한국불화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을 추가해 불교미술 입문서로서 완벽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책으로 보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문화유산의 현장을 직접 찾아 그 향취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각종 답사기도 다수 나와 있다.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촉발시켰던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2〉를 필두로 한국문화유산답사회의 〈답사여행의 길잡이〉시리즈, 유적발굴에 얽힌 이야기를 담은 정재훈씨의 〈문화의 산길 들길〉등.

여기에 불교문화와 문화재를 고스란히 지켜오고 있는 전통사찰관련서도 연이어 출간되고 있다. 최완수씨의 〈명찰순례 1.2.3〉, 이고운, 박설산씨가 함께 쓴 〈명산고찰따라(전4권)〉 〈한국의 폐사〉 〈한국의 절터〉 등이 그것.

일반인들이 쉽고 재미있게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한 〈그림으로 배우는 우리의 문화유산〉, 섬세한 유물과 고미술품을 다루는 실무 지침에서 부터 여러 가지 보관방법등 문화재 다루기를 현장감있게 소개한 〈문화재 다루기〉도 흥미롭다.

이밖에 〈한국인이 만든 일본국보〉와 〈부끄러운 문화답사기〉등도 꼭 한 번 읽어볼 만한 책이다.

〈은〉

'책, 우리의 미래' 서울 국제도서전

15~19일, KOEX

'97 서울국제도서전이 '책,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한국종합전시장(KOEX) 1층 태평양 전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창립 50주년을 맞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한국 출판 50년의 성장과정과 책의 발전과정을 조명할 '창립 50주년 기념 특별전'과 '멀티미디어 출판 특별전'을 개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출판문화 시대를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청소년 권장도서 35종

간행물윤리위 발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권혁승)가 신록의 계절을 맞아 우리 청소년들이 읽어야할 권장도서를 발표했다.

일제 잔재의 흔적들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문화답사기〉를 비롯 일연스님의 〈삼국유사〉, 어린이에게 밝은 동심의 세계를 열어줄 환상동화 〈푸른 머리의 사나이〉 등 11개 분야 35종이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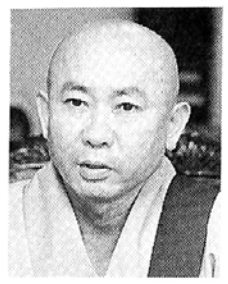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2	현대인이 만난 부처의 마음	혜 원	가람기획
3	마음을 다스리는 법	김정빈	둥 지
4	49재 공덕과 의미	편집부	이바지
5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6	석가와 크는 아이	어린이청학연구소	산 하
7	힘든세상 도나 닦지	효 림	가서원
8	부처님은 왜 신을 가르쳤나요	우 학	좋은인연
9	그까지 살좀있으면 어때	학 림	여시아문
10	암자로 가는 길	정찬주	좋은날

구입문의:(02)737-0695

나와 경전 7

아함경



지 하
〈중앙승가대 총장〉

1958년 봄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나는 당시 열아홉이었고 그해 4월에 울진 불영사에서 스님들과 함께 생활하는 기회가 있었다. 이것이 불교와의 첫 만남이었다. 그후 나는 속리산 법주사에 입산하게 되었고 법주사 강원에서 경전을 접하게 되었는데 나의 어린 가슴에 와닿은 경전의 모든 부처님 말씀은 경이로움 그자체였다.

경전공부에 점점 환희심을 내게 되었을 무렵 나는 강원교육을 다 이수치 못한 채 종단의 종비 1기생으로 64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 입학하였고 스님학생들의 기숙사인 백상원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동국대에서의 공부는 대승경전 중심의 강원교육과 달랐다. 동국대에서는 구사론 유식학 아함경 등을 먼저 가르쳤다. 이때 〈아함경〉이 초기불교 근본불교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경전임을 처음 알게 되었다.

65년 동국역경원에서 한글대장경이 출간되면서 〈아함경〉은 널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각종 번역물이나 단행본이 발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글대장경 아함부는 우리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아함경〉이였다. 그래서 방학동안 꼼짝않고 기숙사에 박혀 앉아 싱그러운 숲속 백상원 공기를 마시며 밤을 세워 〈아함경〉을 읽었다.

〈아함경〉은 중아함, 증일아함, 장아함, 잡아함 네가지로 전해지고 있는 방대한 경전이다.

부처님께서 교화하신 시기인 초기불교 시대로 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집대성된 경전이 바로 〈아함경〉이다. 〈아함경〉은 근본불교의 중심사상인 사제팔정도 십이인연 등의 교리를 설한다. 이것은 불설(佛說)에 가장 가까운 것이면서 우리 일상생활의 실제적인 교훈이 되는 가르침들이다. 그러므로 〈아함경〉은 다른 어떤 경전보다도 부처님에 가깝고 사상적인 변화도 거의 없으며, 이설의 대립이나 대 소승의 구별도 보이지 않는 근간이 되는 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

〈아함경〉은 불교의 연기사상, 자비정신,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과 더불어 대승의 근본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이타의 보살사상등을 총체적으로 설하고 있다.

우리는 초기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시대를 지나 오늘날 대중불교 민중불교를 주장하는 적극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오랜 세월속에서도 변함없이 모든 불교경전과 사상의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아함경〉에 설해진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잡아함 장아함에 보면 나구라 장자에게 부처님께서 마음에 병이 드는 것은 물질에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일러주신다. 이에 대해 사리불이 구체적 설명을 장자에게 다시 해주게 되고, 장자는 부처님과 그 제자인 사리불에게 감사와 존경심을 갖게 돼 목숨이 끝나는 날 까지 삼보에 귀의하겠다고 맹세하게 된다. 삼보에 귀의하는 것은 중생에게는 큰 복전이 된다는 것을 실례로써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혼탁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점점 불교의 근본정신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한 번쯤은 읽고 새겨봐야 할 경전이 바로

사성제·팔정도 說한 근본불교 핵심

중심잃은 현대인들 꼭 읽었으면…

〈아함경〉이라고 생각한다.

근본불교의 모습을 맛볼 수 있고, 부처님의 체취를 느낄 수 있으며 삼보의 존귀함을 일러주신 부처님의 말씀이 바로 〈아함경〉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근본불교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부처님 당시 불교의 원형을 찾아보자는 학문적 의미도 있지만, 현재의 불교가 불교 본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출가수행 위주의 부파불교시대에 대승불교도들이 중생구제를 이야기한 부처님 본래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자며 대승불교의 보살정신을 고양시켰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불교도들이 신비주의나 초월주의에 빠져 바르지 못한 길을 향해가고 있는데 대한 우려에서 불교를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근본불교로 되돌려 놓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불기 2541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부처님의 체취를 느낄 수 있고, 초기불교 근본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아함경〉을 읽으며 자신속에 내재되어 있는 본래 부처의 마음을 다시한번 체험해 보기를 여러 불자들에게 권한다.

2541 부처님오신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

● 부산한마음 선원 신도회 ●

신도회장 이하경 박성빈
부 회 장 채선일 현기섭 서민자
재 무 김원순
총 무 정성용 송경자

● 법형제회 ●

회 장 박 해 일
총 무 백 문 현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중리 522번지
전 화 : 051-403-7077

2541 부처님오신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

大韓佛教普門宗 普門寺

住 持 黃法俊
副住持 趙妙觀
總 務 李法善
教 務 金眞雨
財 務 吳仁太

▶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3가 168
전화 : 928-3797
926-9752

전국비구니회

회 장 광 우
회원일동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전화 : 02-733-5467
팩스 : 02-735-6789

동 명 불 원

주 지 영산 덕천
신도일동

▶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7호
(풍납동에서 암사동으로 이전함)
전화 : 3427-0108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학 장 무진장
이사장 김재일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반야회
회 장 김재일
사무국장 구본설
기획실장 문종순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 전화 : 732-1206~8 · 팩스 : 732-1207

한국재가불자연합
공동회장 안동일
이종구
황석동
박정애

▶ 서울시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웅전갤러리 4층
· 전화 : 732-1216 · 팩스 : 732-1207

시방세계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 수속
불교성지순례 전문
(주) 혜초 여행사
안국동로타리(조계사앞)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빌딩3층
전화 : (02)733-3900

"자비심, 아름답고 소중한 이유"

며느리 3代 보살행현장
광명보육원



◇어린이날 있었던 경기지역 아동시설단체 예능발표회 준비에 여념이 없는 아이들. 비록 아픈 기억이 있지만 자신들을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 결코 외롭지 않다.

44년간 거쳐간 1천여명에겐
이곳은 부처님 품같은 보금자리
친자식보다 더 가슴졸이며 키워온 아이들
흠없는 모습으로 사회에 나갈때
온갖 궂은 일은 보람으로 꽃핀다

하늘거리는 나무자락 사이로 보일듯 말듯 다가서는 곳 광명보육원.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일영유원지를 끼고 돌아 외길로 곧장 나아가면 고즈넉한 사찰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도립사. 이 사찰이 광명보육원과 한 몸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웅전을 지나 20m쯤 걸어 들어가니 햇살을 받은 연등이 반짝거리며 찾아 온 이를 반긴다. 시방세계의 한구석 자리를 펌치고 부처님 품속에 안긴듯 초파일을 맞은 광명보육원은 평화롭기만 하다. 보육원 건물 왼편 돌계단 몇개를 오르면 마주치는 텃밭, 그리고 오른편의 작은 건물 '무하문화사랑방'이 마치 잘 짜여진 절집 분위기를 연상케 한다.

이곳엔 외길 불심으로 44년간 자비행을 쏟고 있는 3대(代)고부의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다. 설립자이자 초대 원장인 故 서복조 시할머니(65년 타계)에서부터 2대 조준경 시어머니(82세)와 현원장 김영자 며느리(50세)가 가업을 이어오고 있다.

김영자 원장은 오늘도 보육원 막내둥이 진영이(6)의 재롱으로 시간가는 줄 모른다. 또박또박한 말투로 "나는 커서 스님이 될거야"라고 따들어대는 진영이가 대견스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다. 그러나 흐뭇해하던 표정도 잠시, 며칠 전부터 우울한 모습을 보이던 지원이(14)가 자꾸 마음에 걸린다. 4살 때 이곳에 온 지원이는 항상 밝고 명랑했다. 그런데 중학교에 진학하고부터는 이따금씩 우울해 하곤 한다. 기억조차도 없는 부모가 보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자신을 버렸다는 증오심에서일까.

보육원 아이들 33명은 모두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아이들보다도 더욱 세심한 배려와 교육이 필요하다. 그것은 단순한 직업관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아이들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알면서도 김원장이 보육원 아이들을 맡게 된 것은 사실은 시어머니인 조준경할머니 때문이다. 81년 조준경 할머니의 맏아들과 결혼한 김원장은 시어머니와 함께 아이들을 돌봐왔다. 그후 8년의 세월이 지난 89년 '이제 보육원을 내가 맡아보지 않겠느냐'는 시어머니의 권유를 김원장은 흔쾌히 받아들였다. 평소 존경해 오던 시어머니가 해온 일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를 김원장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어린이날 열린 경기도 지역 아동시설단체 예능발표회때의 실수를 떠올리며 즐거워하던 아이들의 관심사는 어느덧 부처님에게로 옮겨졌다. 며칠동안 장구, 징, 꽹과리 등을 짊어지고 구슬땀을 흘렸던 예능발표회 준비도 즐거웠지만 선생님으로부터 부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며 여유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도 아이들에겐 신나는 일이다.

지금까지 이곳을 거쳐간 아이들은 어림잡아 1천여명이 넘는다. 이들 중에는 벌써 60대를 바라보는 장년층도 있을 뿐더러 사업가에서부터 회사원,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 속에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신의 몫을 다하고 있다.

김원장의 시어머니 조준경 할머니는 주방에서 코가 땅에 닿을 듯 구부러진 허리를 곧추 세우며 아직도 아이들 밥상을 손수 차리겠다고 고집을 부린다.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63년부터 시어머니 밑에서 보육원 일을 시작해 74년 원장에 부임한 이후 며느리에게 물려주기까지 30여년동안 아이들과 함께 살아온 '세월의 습관'이 몸에 밴 것이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맨 먼저 찾는 사람은 할머니. 아이들의 잘못이 있으면 지금도 회초리를 들고 "이 할미가 늙었어도 내 녀석 버릇 가르칠 힘은 있다"며 호된 꾸지람을 내린다. 그러나 이내 돌아서서는 눈물을 훔친다. 친자식보다도 더 가슴 졸이며 키워 온 아이들. 어디에 내놔도 흠없는 자신의 아들 딸로 키우기 위해서 가끔은 엄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그런 사랑을 안다. 그래서 할머니를 의지하고 따른다.

보육원 운영은 특성상 남자보다는 여자가 적합하다. 아이들 수만 많을 뿐 한 가정을 꾸리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조준경 할머니는 아직도 자신의 시어머니 서복조 할머니를 잊지 못한다. 보육원을 처음 설립했던 서복조 할머니의 '보육원을 온화한 가정처럼 만들자'는 살아생전의 소신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주방일, 빨래, 청소 등 온갖 궂은 일만 도맡아 해왔다. 보육원에 들어온 후 밖이라곤 몇번 나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공생을 아이들과 함께 해 온 조준경 할머니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넘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지도 모른다.

이들 며느리 3대에게는 어린 아이들에게 사랑을 쏟을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힘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다. 남편과 자식들. 세 며느리의 남편들은 보육원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여자들이 할 수 없는 보육원 구석구석을 챙기는 일에 전념했다. 특히 서복조, 조준경 할머니의 맏아들은 잠시나마 보육원 이사장직을 맡는 등 어머니의 뜻을 받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자식이 부모의 가업을 잇는 예는 그리 흔치 않다. 부모가 이룩한 업에 대한 자식의 존경과 소명의식이 있지 않고서는 참명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직계 자손도 아닌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뜻을 이어 3대째 사회복지활동을 펼치고 있는 곳 광명보육원. 더욱이 이들 며느리 3대는 모두 신심깊은 불자로 이타행을 실천해와 지역민의 존경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앞선 두 할머니가 겪어 왔고 또 현재 김원장이 겪고 있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 다름아닌 열악한 재정환경. 후원자들의 도움과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비로는 아이들의 욕구를 마음껏 충족시켜 주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광명보육원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 있다. '오히려 조금 모자란 것이 낫다.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의 희망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3대째 내려오는 광명보육원의 삶의 목표가 바로 그것이다. 광명보육원은 이 목표를 향해 오늘도 쉼없이 서로를 감싸안고 내일을 향하고 있다.

글=한명우 사진=고영배 기자





◇며느리 3代의 자비행이 이어져 오고 있는 광명보육원. 신심 깊은 이들 며느리 3代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그들의 숭고한 '아이사랑' 역사를 잇고 있다.

▲부모의 사랑을 잃은 아이들이지만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아이들. 아이들에게 있어 이곳 광명보육원은 바로 사랑을 꿈꾸는 자신들만의 보금자리이다.

▶광명보육원을 설립한 서복조할머니가 복원한 도림사는 광명보육원 식구들의 정신적 의지처이다.





1代 서복조 원장



2代 조준경 원장



3代 김영자 원장

초대원장 故서대광명보살

故 서복조 여사가 광명보육원을 설립하기까지는 남다른 과정을 거쳤다. 6·25 직후인 52년 63세 되던 해 피난지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서여사는 당시 먹을 것을 얻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전쟁직후라 먹을 것이 없었던 사람들을 그냥 뿌리치기에는 인정이 허락치 않았기 때문. 그러나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자 서여사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남은 여생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80여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현 광명보육원 자리에서 삶의 터전을 잡았다.

음악 2동을 지은 서여사는 이들에게 각별한 사랑을 베풀기 시작했다. 이들과 함께 논밭을 일구고 거기서 얻은

52년 움막 2동으로 시작
전쟁고아등 80여명 삶터

보육원옆 도림사도 복원

쌀과 작물을 팔아 생계를 유지해 나갔다. 몇몇의 어른들을 제외하고는 전쟁고아가 대부분이었던 터라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가 보다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돌보아야겠다는 생각에 54년 당시 보사부로부터 재단법인 광명보육원 설립인가를 신청, 허가를 받았다.

보육원의 이름이 광명(光明)인데는 이유가 있다. 서여사는 신심이 돈독한 불자로 보육원을 설립하기 전까지 틈나는대로 전국 각지의 사찰을 참배했다. 그것도 큰 절보다는 형편이 어려운 작은 암자를 찾아다니며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보시했다. 그것을 안 어느 스님이 서여사에게 '서대광명'이라는 불명을 내렸고, 서여사는 자신의 불명을 따서 보육원 이름을 '광명'이라 지은 것이다.

광명보육원 바로 옆에 자리잡고 있는 도림사 역시 서여사가 복원한 사찰이다. 처음 장흥에 왔을 때 다 허물어져 가는 도림사를 보고는 안타깝게 여기다 보육원이 자리잡은지 4년이 지나던 해 복원을 하고 주지스님을 모셨다.

서여사는 65년 작고하기까지 보육원외에 지역 복지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결손가정의 아이들과 지역의 어려운 일에는 마다하지 않고 앞장섰다.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해 장흥면은 면사무소 앞에 공덕비를 세우고 지금도 서여사의 노고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자인품(慈仁品) ②

垂洪無爲 수공무위
不害衆生 불해중생
無所嬈惱 무소요뇌
是應梵行 시응범행

애써 일을 지으려하지 않고
중생을 해치지 않으며
번뇌에 시달리지 않으면
이것도 범행에 알맞느니라

常以慈哀 상이자애
淨如佛敎 정여불교
知足知止 지족지지
是度生死 시도생사

항상 자비롭고 가엾은 마음에
청정하기가 부처님 가르침 같고
만족할 줄 알고 그칠 줄 알면
이것은 생사를 건너는 것이다(그는 생사를 벗어나리라)

少欲好學 소욕호학
不惑於利 불혹어리
仁而不犯 인이불범
世上所稱 세상소칭

어진 선비는 삿되지 않아서
편안한 마음자리 근심이 없고
하늘에서 보위해주나니
지혜로운 이 인자함을 즐긴다

晝夜念慈 주야념자
心無剋伐 심무극벌
不害衆生 불해중생
是行無仇 시행무구

밤낮으로 자비를 생각하고
마음에 꺾어 이기려는 생각 없어
중생을 해치지 않으면
그런 행에는 원수가 없으리라

不慈則殺 불자즉살
遣戒言妄 위계언망
過不與他 과불여타
不觀衆生 불관중생

인자하지 않으면 살생을 하게되고
계율을 어겨 거짓말을 하고
남과 더불어 지내지 않으며
중생을 살피지 않는다

酒致失志 주치실지
爲放邊行 위방일행

"만족할줄 알고 그칠줄 알면 생사넘고
자비심내면 저도 이롭고 세상도 건져"

욕심이 적고 배움을 좋아하고
세속 이익에 미혹되지 않고
어질어서 남의 것 범하지 않으면
세상이 이를 칭찬하리라

仁恕無犯 인수무범
不興變怏 불흥변앙
人爲諍擾 인위쟁요
慧以默安 혜이묵안

어질게 사는 이는 범하지 않고
변란이나 원망을 일으키지 않고
사람들이 어지럽게 다투더라도
지혜로워 묵묵히 편안하리라

普憂賢友 보우현우
哀加衆生 애가중생
常行慈心 상행자심
所適者安 소적자안

어진 벗을 두루 걱정해주고
중생들을 돌보아 가엾이 여기며
항상 인자한 마음으로 행하면
어딜가나 편안하리라

仁儒不邪 인유불사
安止無憂 안지무우
上天衛之 상천위지
智者樂慈 지자락자

後墮惡道 후타악도
無誠不眞 무성부진

술은 바른 뜻을 잃게 만들어
방일한 행동을 하게하며
나중엔 악도에 떨어지게하니
정성됨도 없고 참됨도 아니니라

履仁行慈 이인행자
博愛濟衆 박애제중
有十一譽 유십일예
福常隨身 복상수신

어진 길을 가고 자비를 행하고
중생을 널리 사랑해 제도하면
열한가지 기림이 있으니
복덕은 항상 그의 몸을 따르리라

臥安覺安 와안각안
不見惡夢 불견악몽
天護人愛 천호인애
不毒不兵 불독불병

누워서도 편안하고 깨어서도 편안하고
잘때는 나쁜 꿈을 꾸지 않으며
하늘이 보호하고 사람들이 사랑하니
독약도 흉기도 안 받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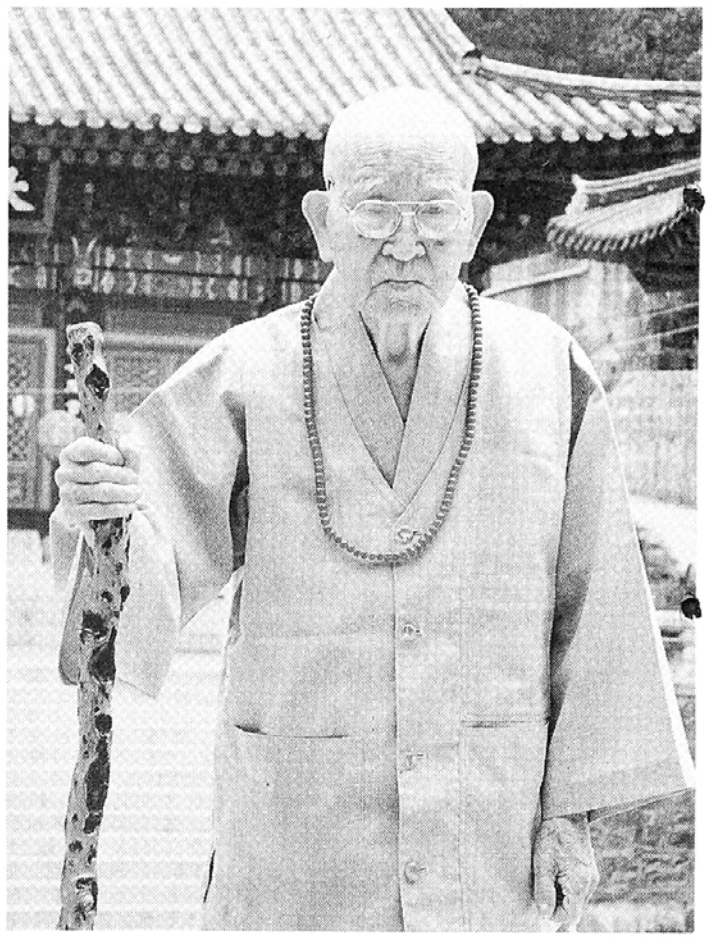
龍眼

큰 스님 수행한담

"남 속이지 않는 생활

문성스님 〈관음정사 조실〉

"100년 살았지만 입적하는 순간까지 '보현행원품' 사경하고 독송해야죠"



약력
- 1897년 경주 生
- 1910년 채서응스님을 은사로 비구계 수지
- 통도사 보통학교, 해인사 지방학림, 휘문고보, 혜화전문학교 졸업
- 통도사 만세운동 친일주지 축출에 앞장서다 4개월간 옥고
- 불교정화운동 참여
- 조계종 감찰원장 네차례 역임
- 現 부산 해운대 관음정사에 주석

지난 4월 100세를 채우니 내가 살아온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러나 나는 한미디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온 것을 얘기하면 요즘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고 사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보면 한 것도 없이 이리저리 나이만 먹었습니다, 허허….

일년중 가장 좋은 날 부처님오신날은 사중이 가장 바쁘고 고된줄도 모르고들 일합니다. 그리고 절 경내는 물론이고 대로변에 죽 늘어선 연등에서 세상사람들이 부처님께서 오신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1910년에 출가했으니 사월초파일을 절에서만 87번째 맞이하는 셈입니다. 세상 살림살이가 나아지면서 봉축 연등 수량이 늘어나 보기가 좋습니다. 또한 연등을 들고 행진도 합니다. 옛날에는 부처님오신날이 되면 대밭에서 큰 대나무를 베어다가 마당에 세워놓고 연등을 매달거나 개인의 집 앞에도 달았습니다.

그런데 연등을 달 때는 나부터도 어떤 법칙으로 단다 어떻다 하는 생각 없이 그저 스님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따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성을 기울이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오신날에 등을 단다고 해서 무조건 부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등을 다는 것은 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각자의 마음 안에 있는 부처님과 같은 환한 마음 밝은 마음을 밝히려는 것이지요. 부처님을 본받아 우리 중생도 부처가 되는 생활을 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서원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등불이어야 참다운 연등공양이 될 수 있겠지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살아계실때 인도에서 가난한 노파의 등불만이 하루 이틀 몇날이 다 가도록 꺼지지 않고 세상을 밝힌 것도 다 탐욕과 어리석음과 분심을 모두 버리고 오로지 부처님 오심을 심축하면서 부처님과 같이 마음을 밝히는 한닢짜리 연등을 밝힌 공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빈자의 일등'을 더욱 귀하게 여깁니다. 마음은 다르면서 비싼 등, 많은 숫자의 등만 밝힌다고 해서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2500여년이 훨씬 더 넘는 동안 익히 배워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부처되는 법을 일러달라고 하고 싶을 것입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나를 보세요. 실천을 했으면 내가 먼저 부처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미 방법은 수많은 경전과 법어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팔만사천 부처님 가르침 속에는 성불에 이르는 길이 팔만사천 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세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긴요한 방법을 든다면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 거창한 묘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남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한가지를 제대로

"생각 내지 않고 살기 쉽지 않지만 그것이 수행입니다 분별심 내지말고 생활 하세요"

하는 사람은 백명을 모아 놓아도 한 두 사람 나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만큼 일상의 삶을 잘 가꿔 나가는 이는 드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엄경〉에도 "믿음이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이자 여래의 지혜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심이 없고는 그 어떤 것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철저한 믿음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의 작은 부분까지도 성심성의를 다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입적하는 순간까지 〈보현행원품〉을 사경하고 독송할 것입니다. 이것은 은사이신 서응스님께서 "출가자의 수행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 보현행자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늘 일러주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신심을 바탕으로 진리를 참구해 간다면 어떤 것을 낱낱이 묻지 않더라도 자신이 바로 부처가 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것저것 자꾸 묻고 답을 들으려고 하지만 스님들이 다 답해주기는 불가능합니다. 스님들이 생활하시는 모습을 본받고 그대로 따르십시오. 스님들도 부처가 되기 전에는 함께 수행하는 수행자이시니까요.

절에서만 지낸 내 인생 87년을 돌아보면 실로 귀한 인연입니다. 그토록 만나기 어렵다는 불법을 만나 남들 한 생애 보다도 긴 날들을 보냈으니까요.

나는 원래 경주 노서동에서 태어났는데 갑자기 가세가 기울면서 속가 생활이 너무 어려워 아버님 손에 이끌려 절에 들어와 살게 되었지요. 삼형제였지만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달라 나만 절에 왔습니다. 그렇게 입산해서 통도사 대강백이시던 채서응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를 받고 지금껏 중노릇하고 있습니다. 고된 속가생활 만큼이나 절에 와서도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기억마저 흐릿합니다만 어린 마음에도 죽음을 생각했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느낀 것은 철들고 부터입니다. 지나온 일들은 다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고(苦)라는 것입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어떤 이는 가난해서 또 어떤 이는 병들어서 또 어떤 이는 일이 뜻대로 안되어서 다들 저마다 각기 다른 고통들을 당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

생활 속의 불교 (122)

부처님의 뱃속을 들여다보고 싶으면

행 함이 없는 공부, 실천이 따르지 않는 공부는 생명없는 지식을 쌓는 데 불과하다. 백번 듣고 백 번 보는 것이 한 번 행하는 것만 못하니 참된 지혜란 실천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가령 올챙이가 개구리에게 흙 냄새에 대해 물었을 때 개구리가 수천마디의 말로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어 물에 올라가 보는 경우만은 못한 것이다.

부 처님 법이 아무리 어마어마하고 광대 무변하다 하더라도 생활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다.

열 번 아니라 백 번을 보더라도 내가 직접 집어 먹을 줄 모른다면 본 것이 본 게 아니다.

자기 생활 속에서 자기의 몸으로 마음으로 하는 체험을 하찮게 여기고 어디 다른 곳에서 불법을 찾는다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얻으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부처님께서는 실천이 따르지 않는 법은 결코 정법이 아니라고 하셨고 그런 법이라면 가르치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남 의 목장에서 풀 뜯고 있는 소를 하루 종일 바라다보며 그 수를 헤아린다해도 그 중 단 한마리 나마 나의 소가 되질 않는다.

남의 돈을 하루 종일 세어보더라도 그 중에 내 돈은 한 푼도 없다.

밤 낮을 가리지 않고 보물 창고를 들여다 본들 한푼어치나 가질 수 있겠는가.

팔 만대장경을 달달 외워서 가로 세로로 꿰고 그 구절들을 척척 인용할 줄 알며 그 멋진 비유와 사구게를 남김없이 기억한다고 해도 그 중 단 하나의 사구게를 내 것으로 만들어 실천하는 사람보다 조금도 나을 게 없다.

가령 목이 마를 때에 어디서 나는 어떤 샘물이 몸에 좋고 어떤 물은 해롭다는 걸 낱낱이 아는 것만으로는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 그 보다는 물 한 사발 시원하게 들이킬 수 있는 사람의 처지가 한결 행복하고 떳떳하다.

경전의 구절들은 영원한 진리를 담아놓은 그릇이지만 그것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사람에게는 한낱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반대로 그 구절을 접하고 그것을 가슴에 깊이 새겨서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를 면밀히 음미하여 자신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만드는 사람이야말로 부처님의 참 제자인 것이다.

지식은 몸 떨어지고 입 떨어질 때 함께 떨어진다.

집 을 짓는데 벽돌의 종류, 기둥 대들보 서까래 등 온갖 재료의 종류와 규격을 줄줄 외우면서도 막상 제 손으로 집을 지을 줄은 모른다면 그는 유능한 목수도 건축가도 될 수 없다. 그는 다만 말만 많은 훈수꾼에 불과할 것이다.

그럴 경우 그의 많은 지식은 어떤 소용에 어울리겠는가.

불법은 행하라고 있는 법이지 외우라고 있는 법이 아니다.

부 처님의 거룩하신 가르침에 진실로 감동한다면 그냥 감동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그 분이 하신대로 따라 행해야 할 것이다. 다만 한가지라도.

역대 조사스님들이 초개같이 몸을 던져 참구한 그 삶이 숭고하게 여겨진다면 그 분들을 사표로 삼아 자신의 수행을 점검해야 한다. 하루에 한번씩 만이라도.

그러나 우리 주변엔 부처님을 숭배한 나머지 불철주야로 매달리면서 가피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 또 우리 주변엔 역대조사를 흠모한 나머지 그분들의 행장을 자랑스럽게 되뇌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 곁에 지금 부처님이나 조사님들이 현현(顯現)하신다면 참으로 기특하다고 칭찬해 주실까. 아니다. 오히려 가르침을 더럽혔다고 경책을 하실 것이다.

스 스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부처님과 조사님이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셨다고 해도 내가 먹고 배부르지 않으면 그 분들의 배부른 도리를 알 수 없다. 내가 직접 체험해 보지 않으면 그 분들의 뱃장 속을 단 한 치라도 들어다 볼 수 없다.

스스로 행하지 않는 이라면 그분들도 건져주지 못한다.

협찬 : 김태수 · 김성민 · 최은진

큰 스님 수행한담

마음의 연등공양 이죠"

'부처 이루겠다' 願 놓지마세요
'중생과 부처는 평등하다'는 가르침
텅빈 마음으로 늘 새기시기 바랍니다"



◇정화불사이후 조계종 감찰원장을 맡아 총무원에서 일하던 문성스님. 스님은 이후 30여년을 일체의 공직에 오르지 않았다.

"마음보다 물질 성하면 좋은 시절아냐"
성불의 길 부처님 제시…실천이 중요

니 우리네 산다는 것은 눈뜨고 있는 그 순간까지 고(苦)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고통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억에 희미하지만 6·25 한국전쟁때 내가 빨갱이들을 겪어 봤는데 그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어요. 그들도 고통받기를 싫어하고 편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 가운데 고생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그 고통을 그냥 단순히 고통이라고만 받아들이고 포기하고 만다면 우리들은 마음을 밝혀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고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길을 터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 경험에 비추어 바른 마음을 내며 고통이 단지 고통만은 아님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고 보면 결국 고(苦)라고 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누워 지내지만 한때는 옥천사에 선방을 열어 성철스님 서옹스님 청담스님 등과 6년간 지독하게 공부했습니다. 주지를 하다가 소임을 내놓고 산내 암자인 백련암에 선방을 차렸는데 당시 진정한 수좌는 60명 정도라고 했으니 선방개설이 쉬운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시절에는 먹고살기는 어려워도 공부하겠다는 마음 하나는 패기에 넘쳤습니다.

지금은 좋은 시절이라고는 하지만 도무지 공부들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좋은 시절'이란 것이 무엇인지 되묻게 됩니다. 마음이 성해야지 물질이 성해서는 결코 좋은 세상은 아닙니다. 물질이 풍족하면 정신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세상이치입니다.

한때 청담스님과 인연이 맞아 불교정화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주지들이 친일파와 대처승들이 많아 왜색불교를 척결해보자고 나섰던 것이지요. 정화불사가 정부의 도움도 컸고 해서 잘돼가자 나중에는 정화에 참여했던 집달리스님들이 또 설쳐대더군요. 그러니 다같은 부처님밥 얻어먹으면서 스님들끼리 싸움하는 형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스님들이 서로 싸움질을 하고 자기들끼리 잘못지내고 문중따지고 절따지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먹는 음식, 지내는 거처는 신도들한테 모두 의지하니 잘못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출가자들이나 재가자들 모두 부처님의 한 제자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해 생겨나는 문제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정화불사이후 나는 말았던 감찰원장 직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곳 관음정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나보다 더 좋은 생각을 지닌 분이 오셔서 종단을 바로이끌어 주시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그러나 돌이키면 당시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아 보입니다.

수행자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입산했으면 은산철벽도 부수고 말겠다는 발심으로 수도일념에 빠져도 사실상 성불에 이르기에는 모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100살이지만 빠짐없이 예불에 참석하고 주력하는 것은 바로 수행이 그러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특별히 무엇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을 성심으로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님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조석 예불도 거르면서 무슨 큰 것을 이루겠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지요. 일상의 작은 것을 아무렇게나 해버리고 어디 고상한 것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출가자나 재가자나 모두 부처님의 제자로서 항상 일념으로 간직해야 할 것은 부처를 이루겠다는 원(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제불(衆生諸佛)이 일리제평(一理諸平)'이라는 말 속에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사바세계의 깨닫지 못한 중생과 깨달음을 얻은 모든 부처님은 한 이치에서 보면 모두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중생이라고 낮고 부처님이라고 해서 높다고 하거나 깨달았다고 하니 높고 깨닫지 못했으니 낮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중생 부처 모든 것은 한자리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일념으로 참구해 들어가는 것이 바로 불법을 배워가는 것이고 자신을 밝혀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밖에 이것저것 물어봤자 부처되기 전에는 중생의 탈을 늘 쓰고 있으니 소용없는 말입니다.

중생의 탈을 벗어날 사상을 남에게 전하지도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생과 부처가 한 이치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항상 놓치지 말고 참구해 나가야 합니다.

세속에서 살고 있는 재가 불자들은 생활환경이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리작용도 다른 까닭에 중생과 부처가 다 평등하다는 말이 얼른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와 닿지 않으니 듣기 곤란할 수도 있구요. 그러나 '중생제불 일리제평'이라는 가르침은 우리 모두 생을 걸고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나는 요즘 생각을 텅 비우는 것을 화두 삼아 하고 있습니다. 절 생활하는대로만 따라서 밥먹고 예불도 드리고 경전도 읽고 산책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스님이라고 해서 특별히 고상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불교가 종교라고 하지만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라 내 마음을 닦는 방법과 마음 닦지 않는 것에서 차이가 납니다. 마음을 닦아 나가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불교입니다. 마음을 닦자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염불도 해야하고 참선도 해야하고 그렇습니다. 말이 쉬워 염불이고 참선이지 자신을 몰입하는 정진이 따라야 합니다. 더구나 세속을 떠나서 그런 공부를 하려면 힘이 들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용내를 낸다고 해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텅 비워 버리고 좋다 나쁘다 생각을 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세끼 먹는 음식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좋으면 좋은대로 하찮으면 하찮은대로 먹으면 그만이지 좋다 나쁘다 생각을 내면 곤란합니다. 그런 생각을 내봤자 누가 내 생각에 딱 맞춰 주지도 못하고 그 생각에 나만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말지요.

그렇게 생각을 내지 않고 산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처님을 믿고 가르침에 의지하고 사는 우리 불자들이라면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항상 분별을 내지 않고 생활하십시오.

텅 비워낸 마음으로 각자가 일상에서 진심을 다해 '중생제불, 일리제평'이라는 진리를 항상 참구하면서 생활해나가기 바랍니다. 자꾸 새기시기 바랍니다.

"중생제불 일리제평"
"중생제불 일리제평"

정리=천미희 기자

태아에 불법을 전하고 싶은데

문 현재 임신 중인 주부입니다. 두 살짜리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과 태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도 불법의 맛을 느끼게 할 수 있는지요.

저 자신은 불법이 좋아서 평소에 관법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저를 점검하기에 아직은 깊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문에 차라리 기독교 식의 기도나 아니면 염불·주문을 외우는게 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남편이 회사 업무 상 가끔 술을 마시는데 알고보니 여자들이 시중드는 술집을 자주 찾는 것 같습니다. 그걸 알고부터는 자꾸 나쁜 상상을 하게되고 남편의 과소비나 계를 지키지 않는 모습이 싫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숙경·전주시 완산구〉

답 일체 만물은 본래 둘이 아니요 한마음입니다. 모든게 다 사대를 근본으로 삼고 마음으로 통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 자식간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냥 직결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뱃속의 아이야 두말할 것도 없고 두 살배기 아이도 한통속이란 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 주인공 네 주인공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다 한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자가발전소에 너 나 없이 가설이 되어 자동적으로 힘을 주고 받는 그런 모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한 생각 지극한 마음으로 냈다고 하면 빛보다 빠르게 찰나에 자식들에게도 불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태교에 따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육신으로 상대를 보고 무엇을 어쩌겠다고 하면 그건 둘로 보는 게 되어서 잘 통하지도 않고 부딪침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니까 지극하게 들이 아닌 주인공을 믿고 관하면 찰나에 통하게 되니 그게 태교요 자녀 교육인 것이지요.

그러니 내 마음을 선하게, 아름답게, 자비롭게 쓰면 콩 심은데 콩나고 금은 금끼리 은은 은끼리 모이게 됩니다.

또 관법수행에 가끔 회의가 들고 그래서 기도나 염불·주문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하신다는데 그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런 회의가 드는 것도 다 제 속에서 나온 것이니 그 또한 주인공의 몫으로 돌려 놓아야 하겠지만 믿음이 약하면 자꾸 사량이 생기고 분별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럴땐 망념이 이는 것도 주인공의 일이요 안 들게 하는 것도 주인공의 일이니 알아서 하라고 굳게 믿고 놓아야 합니다. 이럴까 저럴까 하면 망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르게 됩니다.

남편의 일도 그렇습니다. 나부터 자꾸만 안좋은 상상을 한다면 안좋은대로 통신이 될 것이고 한생각 좋게 돌려 놓는다면 좋은 쪽으로 통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 좋은 상상을 하고 있다가 남편을 대하게 되면 그게 금방 전파되어서 남편의 태도나 표정부터 달라질 것이고 마음자리도 자꾸 나쁜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전파가 교란을 일으키듯 부부사이가 점점 꼬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부터 부드럽고 인애롭게 마음을 돌려야 상대도 좋게 호응을 해올 것입니다. 그것 또한 믿음이 먼저 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만공덕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선·악업 왜 마음에서 비롯되나

문 불성은 공이요 선도 악도 없다는데 선업 악업이 왜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지요?

〈강명숙·포항시 대신동〉

답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자면 영원한 생명의 불과 업식과 부모의 정혈이 한데 합쳐져야 합니다. 여기서 생명의 불이란 바로 불성, 우주의 근본을 말하고 업식이란 신·구·의로 짓는 업의 덩어리 즉 종문서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불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면서 힘만 배출해주는 자리이고 업식은 내가 한 생각 일으키는데 따라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이니 마치 설계도가 있어서 그에따라 건물을 짓듯이 인연따라 나투게 되어 있지요.

저 소달구지에 비유한다면 소는 불성이고 달구지는 육신이고 목동은 업식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목동이 이끄는대로 소는 '그냥' 움직여 줄 뿐이고 달구지는 자동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목동이 오른쪽으로 가겠다고 마음먹으면 달구지는 오른쪽으로 구를 것이고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 왼쪽으로 가게 되어있지요. 또 짐을 잔뜩 싣고 가겠다고 하면 소는 그렇게 끌고 갈 것이고 빈 수레로 가겠다고 하면 빈 수레인 채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공부를 하는 목적은 첫째로 마음을 바르게 써서 악업을 멀리하고 이왕이면 선업을 쌓자는 것이고, 그렇게 공부 길에 들어섰으면 더 나아가서 부처님께서 일러 주신대로 마음을 비우고 또 비워서 마침내 대자유인의 구경지에 들자는 것입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분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2541 부처님 오신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 주 사

주 지 김정락
총무국장 양심경
기획국장 이성종
교무국장 윤성무
재무국장 김성직

▶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 188
전화 : 0331-34-0040
0331-34-2818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
신 흥 사

회 주 무산 오현
주 지 도 후

대중일동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
전화 : 0392-636-7044, 7393
FAX : 0392-636-7556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 지 사

조 실 관 응
회 주 녹 원
부주지 법 등

대중일동

▶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동 216
전화 : 0547-436-6174
FAX : 0547-436-3174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산동화사

조 실 진 제
주 지 무 공
부주지 태 일
선원장 진 허
총무국장 성 호
교무국장 각 정
재무국장 오 정
포교국장 지 도
호법국장 법 현

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전화 : 053-982-0101~2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 해 사

조 실 일 타
주 지 법 타
승가대학원장 무 비
부 주 지 돈 명
총무국장 법 의
기획국장 장 적
교무국장 재 현
사회국장 혜 휴
포교국장 하 종
호법국장 부 용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9번지
종무소 : 0563-35-3318~9
F A X : 0563-35-0293
승가대학원 : 0563-36-2381
F A X : 0563-36-2382

고은 불교대하소설

다시 아귀노릇



► 126 ◄

그렇다면 인간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인 지옥이란 바로 인간 세계 안에서의 고통이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음에 틀림없다. 마음속의 지옥, 삶 속의 지옥 말고 따로 인간계의 남섬부주 지하에만 지옥이 있고 인간계 부근의 바다 속에 아귀계가 별도로 있는 것만이 아니다.

비고픈 세상이 아귀계이며 굶주리는 나날이 아귀계의 나날이다. 굳이 아귀계가 인간의 삶으로부터 독립된 곳에 세워질 까닭도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 전체에 얼마나 많은 굶주림으로 넘쳐나고 있는가를 조금만 살펴보아도 인간계 자체가 아귀계이기 때문이다.

부처님보다 더 나이가 많은 목련존자가 그의 어머니가 받고 있는 아귀계의 고통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자신이 그 고통을 대신 받고 싶었으나 그런 업보의 대신 받기란 이 세상의 어디에도 없었다.

다만 그는 스승의 지시대로 뭇 부처와 보살 승니들에게 온갖 음식과 과일을 바침으로써 어머니의 아귀를 면하게 할 수 있었다.

과연 부처님도 수많은 전생다생의 어느 과정에서 아귀가 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는 또한 이 세상에서의 출가 6년 수행 자체가 하나의 아귀중생 못지 않는 굶기였고 굶주린 상태의 고행을 이어가는 일이었다.

어떤 고행자는 한쪽 팔을 들고 몇년이고 몇십년이고 지내는 동안 굳어져서 마침내 그 팔을 내려도 놓을 때에 팔을 내려본즉 아주 팔을 들어올린 그대로 굳은 나머지 내려지지 않았다.

그는 아주 적은 양의 음식으로 살다가 평상시의 음식을 먹자마자 배가 터져 죽게 된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일부 수행자들 중의 어떤 사람들은 짐승과의 철저한 일치를 위해서 짐승처럼 살아갔다.

개 고행자는 개처럼 엎드려 기어다녔고 웅크리고 지아 했으며 땅바닥에 놓인 것만을 핥아먹었다.

부처님도 그런 종류의 고행을 무릅썼다.

나는 목동들이 떠나면 외양간으로 가서 어린 잿먹이 송아지들이 싸놓은 똥을 먹었다. 내 똥 가운데서 덜 소화된 것이 있으면 그것도 먹었다. … 나는 벌거숭이로 다녔다. 몸에는 나무그루터기처럼 여러 해 동안 때가 켜켜이 쌓였다. 나는 때를 씻을 생각도, 씻게 놓아둘 생각도 없었다.

나는 시체가 가득 넘쳐있는 들판으로 가서 뼈다귀들을 주워다 잠자리를 만들었다. 그러자 목동들이 와서 나에게 침을 뱉기도 하고 오물을 던지기도 하고 풀줄기로 내 귀를 찌르기도 하였다….

그런 부처님은 숨쉬기조차 오래동안 멈추는 수행을 하였다. 그는 하루에 좁쌀 서너톨만으로 살기도 하고 물 한모금 마시지 않는 아귀 고행을 하기도 하였다.

이런 고행과 아귀계의 고통은 질적으로는 다르지만 철저히 굶주리는 자가 된다는 사실은 같다.

하지만 실지로 아귀계에서 다재(多財) 아귀는 무엇이든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부족하다고 여기므로 그는 아귀인 것이다. 만족과 감사가 없는 상태, 그것이야말로 그가 아무리 큰 부호라 한들 아귀임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탐욕이야말로 아귀인 것이다.

어떤 아귀는 인간계에도 들락거릴 수 있고 천상계의 궁전에도 들락거리며 마음껏 온갖 음식의 잔치를 누릴 수 있어도 자꾸 그것이 먹고싶은 식욕의 화대로 말미암아 그는 아귀일 수 밖에 없다.

이런 다재아귀와 달리 소재아귀는 제 머리속 뇌수를 파먹던지 썩은 송장을 후벼먹던지 하는 아귀이거니와 무재아귀는 아귀계에서도 가장 아래층에 속한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음식을 먹으면 먹자마자 그것이 입안이나 목안 그리고 뱃속에서 불덩어리가 되어 활활 불타는 것이다.

이런 아귀계는 그 근원은 탐욕 때문에 얻어지는 굶주림의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

인간의 탐욕이란 짐승보다 훨씬 더 악랄하다.

제것뿐 아니라 남의 것까지 마구 삼켜버리는 그 탐욕, 기름진 것, 값비싼 것은 다 먹어치우려는 그 소유의 탐욕을 소멸시키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의 탐욕의 내일에 찾아오는 아귀계의 고통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다.

하늘 높이 나는 학(鶴)을 볼 까닭이 있다. 그 학의 내장 속은 텅 비어있다. 바닷가의 오랜 인내의 여행에 지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거북의 배를 따 보면 그 장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그런 거룩한 짐승들은 거룩함 이외에도 아주 오래 사는 것이다. 진시황의 아방궁 후원 찬모 한 사람이 그 진나라가 망한 뒤에도 다른 나라의 황제를 3대째 수라공궤를 하며 98세를 살았다. 그에게 오래 사는 비결을 물을 때마다 빙그레 웃으며 "학요리, 거북요리할 때 그 내장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더이다. 그 짐승들은 먹는 것도 지극히 적은 양이더이다."

그렇다면 왜 그 찬모는 황제한테 그런 장수의 비결을 알리지 않았던가.

아니다. 황제의 수라상이나 주안상은 항상 진수성찬이 아니면 찬모 자신의 목숨이 붙어날 수 없다.

그야말로 산해진미로 가득한 상차림만이 그런 제왕의 나날이었다. 식욕이 지나치고 색욕이 지나치고 물욕과 명리의 욕이 지나치면 탐욕이 어느 겨를에 마음의 청정세계에 들어갈 수 있으며 발흘리는 노동의 건강이 있겠는가.

심지어 산짐승도 몸이 아프면 먼저 먹는 일을 끊고 흙속에 엉덩이를 대어 흙이 빨아들이는 힘으로 몸 속의 병을 빨아내는 것이다.

고려시대 사람들의 운동에는 네발 짐승처럼 기어다니기, 거의 기어다니는 모양으로 걸레질 청소하기 그리고 법당에 들어가서 오체투지의 큰절을 계속하는 것이 있었다.

그래야 여자는 아기를 잘 낳게 되고 남정네는 천리도 이웃처럼 다녀올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이다. 더구나 그들은 맨발바닥으로 길을 걷는 일이야말로 곧 건강에의 길이기도 하였다.

요컨대 아귀는 탐욕의 오늘이었다. 탐욕은 내일의 아귀인 것이다. 이 한치도 어김없는 사실에 의해서 아귀계는 중생의 탐욕과 함께 언제 없어질지 알 수 없는 중생계이기도 하다.

또한 이런 아귀계와의 예약된 중생 가운데는 저만 배부르고 남의 배고픔과 굶주림을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이기심으로 되어있는 중생이 있다. 아무리 지금 그의 곳간에 쌀이나 곡식이 가득해도 이웃집이 굶주릴 때 아무런 도움도 주지못하는 그런 나눔의 세계를 모르는 중생은 끝내 그 자신이 아귀계에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사실은 처음부터 사실일뿐 어떤 케케묵은 교훈의 의미와도 상관없다. 그 사실이야말로 가파로운 산이 큰비로 말미암아 사태져 무너지는 것과 같은 분명한 사실일 뿐이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삼아 불법은 그 첫째 덕목에 보시(布施)를 내세운 것이고 그 궁극이 자비(慈悲)가 아니겠는가.

보시란 순수한 마음으로 남에게 물건이나 다른 것을 아낌없이 주는 행위이다.

그래서 부처님 본생담 - 자타카 - 에는 제 살을 구워서 수행자에게 공양한 토끼 이야기, 독수리에게 줄긴 비둘기들을 구하기 위해서 제 두 눈알을 독수리에게 주었다는 시바왕의 이야기도 있지 않은가.

아니 어느 세상의 수행시절에는 굶주린 호랑이에게 제 몸을 던져주어 죽어가는 호랑이를 살려낸 일도 있지 않았던가.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인 그 탐욕으로부터의 해방과 보시와 자비의 실현으로 이루어진 것이 다름아닌 부처가 아니겠는가.

우녀는 수원의 아귀계 고통을 알게된 뒤로는 무욕도에 무욕도라는 이름을 지은 인탐의 뜻을 새삼 뼈저리게 절감할 수 있었다.

"… 아귀는 굳이 섬부주 밑 5백유순이나 되는 곳에만 있지 않지. 인간계에도 천계에도 널려있지. 아귀는 굶주림뿐 아니라 먹을 것이 있어도 재보가 있어도 그 무엇이 산더미로 쌓여 있어도 만족할 줄 모르는 그것이겠지. 그러니 피나 고름도 먹어야 하고 썩은 고기도 먹어야 하겠지…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고기도 먹어야 하겠지… 아니 산사람의 고기도 먹어야 하는 것이 아귀이겠지… 자… 그러면 이 섬에 혼자 남아있는 나는 아귀가 아닌가?"

우녀는 그 자신으로 돌아왔다.

단식 10여일이 지나면서 우녀는 마음의 평화를 누렸다 "쉬자…내몸과 마음을 다 비워서"



하루에 한 줌의 생쌀을 먹는 것조차 지금의 그로서는 아귀에 가까운 노릇이라고 여겨졌다.

탐욕이 있다면, 탐욕의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스승을 삼아야 하리.

우녀는 그날로부터 하루에 한줌씩 먹는 생쌀도 그만 두었다. 그 암굴 안에는 아직도 때에 실려온 쌀이 많이 쌓여 있었다. 차츰 그런 곡식을 알아차린 쥐도 드나들고 다른 엉큼스러운 짐승도 슬슬 굴안을 기웃거렸다.

우녀는 그런 짐승들이 처음에는 그를 경계하다가 점차 우녀가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님을 터득한 뒤로는 제가 살고 있는 쥐구멍이나 산속의 어느 소굴인 것처럼 여겨 제법 허물이 없어지기 시작하였다.

지난 날 바위 위에 먹을 것을 놓아두어 까치나 다른 새들과도 가까이 지내던 우녀인지라 까치와 같매기가 그 먹을 것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것을 본 뒤 그만둔 이래 그는 오랜만에 다시 그가 먹고 지내야 할 곡식을 짐승들에게 내맡겼던 것이다.

쥐 한 두 마리는 우녀의 이마에도 올라오기 시작하였다. 우녀의 귀를 건들이기도 하였다.

차츰 힘이 없어지는 상태의 단식 10여일이 지나면서는 그는 마음 속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

이제까지 그는 공부에만 열중한 나머지 그 공부에의 탐욕을 부렸던 것인가.

"쉬자… 쉬어서 법을 받더라도 푹 쉬자, 내 몸과 마음을 다 비워서…."

"… 내 어찌 함부로 부처님의 촉지인(觸地印)) 따위를 쉽게 꿈꾼단 말인가. 여기 왼손이 있다. 이 왼손으로는 주먹을 쥐어 배꼽부분에 대고 오른손은 손가락을 펴서 아래로 드리우고 손바닥을 안으로 하고 손등을 밖으로 하는 결인(結印)이야 보리수 밑의 그분에게 맡길 일… 그것은 내가 할 노릇이 아니다. 푹 쉬자꾸나, 뱃속 텅비어…."

그림 · 조향숙

탐욕은 내일의 아귀…나눔 모르면 아귀계에 떨어질 수밖에

2541 부처님 오신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 국 사
조 실 월산 성림
주 지 응연 설조
사부대중 일동
▶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번지
전화 : 0561-746-9912~3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
법보종찰 해 인 사
방 장 법 전 (法傳)
주 지 보 광 (普光)
대 중 일 동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전화 : 0599-31-1001~3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 운 사
주 지 법 조
부 주 지 법 혜
총무국장 일 우
기획국장 법 운
교무국장 정 우
호법국장 법 의
사회국장 귀 일
재무국장 성 오
포교국장 승 헌
대중일동
▶ 경북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116
전화 : 0576-33-2324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 산 사
회 주 월 주
주 지 도 영
총무국장 일 원
기획국장 원 행
교무국장 덕 기
재무국장 덕 산
사회국장 견 진
호법국장 원 성
포교국장 각 진
대중일동
▶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
전화 : 0658-43-4441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고불총림 백 양 사
참사람 결사도량
방 장 서옹 대종사
주 지 지 선
고불총림 대중일동
▶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번지
전화 : 0685-92-7502
FAX : 0685-92-2081

왜 세계유산 '해답 제시'

KBS1-TV 초파일특집 **'팔만대장경'** 14일 방영

7백년 견딘 경판의 신비 조명
판각·인경재현…시청자 '고려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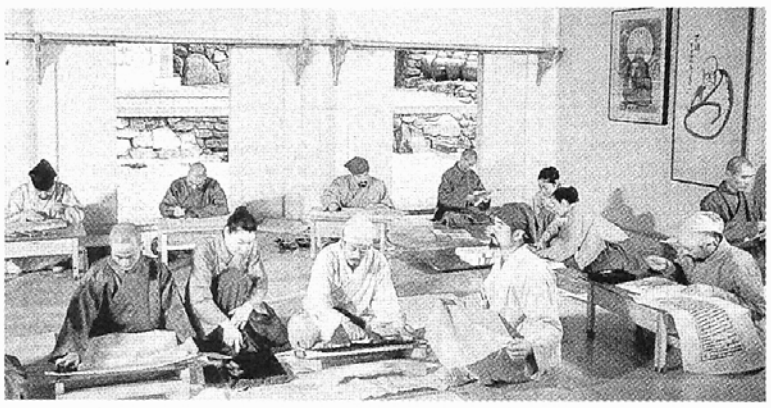
부처님 말씀을 집대성한 세계적 성보 〈팔만대장경(국보 제32호)〉.

KBS-1 TV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팔만대장경〉의 정신사적 의미와 역사적 가치를 탐색하는 특집 타큐멘터리를 선보인다. 14일 오후10시부터 1시간동안 방영되는 'KBS 10대 문화유산 다큐멘터리 팔만대장경'은 보존과학의 지혜가 돋보이는 장경각과 7백년 세월을 훼손없이 견뎌온 경판의 신비를 벗기고 역사의 재구성을 통해 대장경을 조성했던 당시 고려의 정신세계를 조명한다.

이 프로그램은 동아시아에 존재했던 여러대장경이 고려에서 조성되기까지의 역사를 통해 대장경의 판각 인경작업을 재현해내고, 간경도감 교정도감등 제도적 장치까지 둘러보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대장경을 조성하게 된 최씨 무신정권의 배경과 조성경위를 통해 항몽의 민족정신을 표출해낸다. 또한 해인사 홍제암에서 고려복장으로 대장경의 치목부터 사경 판각 인경 제본의 전 과정을 재현해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는 듯한 실감을 일으키게 한다.

이외에도 팔만대장경의 세계문화유산 지정 1주년 기념행사에서 있었던 가야산 골프장 저지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도 소개해 문화유산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강조하기도 한다. 일본의 신수대장경이 한국 학계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팔만대장경에 대한 사회사적인 재조명과 실용화를 통해 최근 진행중인 대장경의 전산화작업도 소개한다. 이 프로그램을 만든 유동종PD는 "세계문화유산이라고 누구나 자랑하고 있지만 왜 세계적인가는 사실 잘 모르고 있다"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팔만대장경의 진면목을 제대로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지연 기자



◇해인사 홍제암에서 고려복식으로 대장경의 치목에서부터 판각·인경·제본까지의 과정을 재현했다.

◇초파일(14일) 각 방송사 특집

방송사	시간	프로그램	내 용
btn	08:00	특집다큐 예불	해인사 예불을 채록, 각 사찰마다 다른 예불의 차이점과 예불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조명한다
	10:50	붓다의 고향을 가다	부처님이 탄생한 룸비니의 어제와 오늘
	12:30	깨달음의 땅 수지타아카데미	인도의 어린이들을 위해 학교를 설립하고 문맹퇴치에 나선 JTS의 활동상을 소개한다
	22:25	만등만화 공양법회	부처님께 향 등 차 꽃 과일 곡식 등을 올리는 육법공양법회
BBS	11:05	특집 대담-부처님께서 이땅에 몸을 나투신 참뜻은?	조계종 원로 석주 큰스님에게 듣는 불자의 마음가짐과 실천
	07:15	불교문화의 오늘과 내일	불교문화를 정의하고 현재와 전망을 토론
KBS1	24:10	특선영화 소림사 달마대사	중국 선종의 개조 달마대사의 일대기
	14:30	특선영화 리틀부다	베르톨루치 감독, 키아누 리브스 주연
	22:00	KBS 10대문화유산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통해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특집
	10:50	양코르 황룡사	황룡사의 모습을 컴퓨터그래픽을 통해 보여준다
SBS	23:50	천상천하 유아독존 고려대장경	부처님 8대성지 영상순례기 신비를 간직한 고려대장경의 과학적 고증
EBS	22:05	특집다큐 달마이야기	중국 선종의 초조 달마대사의 생애와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
K-TV	10:30	특선드라마 자비의 샘	미신에 빠져있던 군인이 군법사의 지도아래 불법에 인도되는 드라마
	12:30	한국의 불화	각 사찰에 현존하는 불화를 재조명
	13:00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석굴암 해인사 팔만대장경 종묘를 돌러본다
Q채널	13:00	선암사의 비밀	고찰 선암사 주변의 생태계를 밀착취재
	19:00	운문사	대표적 비구니사찰인 운문사의 하루를 소개한다
	20:00	성철 큰스님을 말한다	입적 4주기를 맞는 성철큰스님의 재조명
TTN	14:00	불교성지순례 인도	불교의 탄생지 인도성지순례
	21:30	한국의 얼 범패 영산재	전통의식 범패와 영산재를 자세히 안내한다
센츄리 TV	20:00	인디아 4부작	불교 탄생지로서의 인도의 미래를 모색
	09:00	연꽃 속에 타는 번뇌	사리의 정체와 불교에서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자운스님의 다비장을 통해 알아본다
	19:00	티벳의 정신적 지주 달라이라마	티벳의 14대 달라이라마 '텐진 지앗소'의 삶
캐치원	20:00	특선영화 카루나	이일복 감독, 조정현 옥소리 김정훈 김청 주연
PSB	09:15	특별법문 진제 큰스님	진제스님을 모시고 부처님 오신 뜻을 듣는다
TBC	12:00	붓다의 고향을 가다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 순례

석조관음보살입상 복원

경주박물관 통일신라 최대 규모



◇방치돼 있던 석조관음보살입상의 몸체와 대좌, 불두가 복원돼 국립경주박물관 뜰에 봉안됐다.

석굴암 불상에 비견될만한 통일신라시대 최대 규모의 석조관음보살입상(높이3.76m, 8세기 추정)이 복원돼 세련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강우방)은 지난2일 "4월28일 경주 낭산 중턱의 밭둑에 방치돼 있던 불상의 몸체 및 대좌를 발굴, 1930년대부터 경주박물관이 소장해 오던 불두(佛頭)와 접합해 완전한 형태로 복원했다"고 밝혔다. 몸체와 대좌는 1978년 경주박물관의 낭산 학술조사과정에서 불두와 일체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쥐불놀이(밭을 태우는 행위)로 불상의 상반신이 검게 그을리는 등 더 이상 방치될 경우 훼손이 가중돼 원형복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복원하게 된 것이다.

"찬불가 장르 개척 필요해요"

화갑발표회 가진 김 동 환 교수



'반야심경' '청산은 나를 보고' '빈손' 등 널리 알려진 찬불가를 작곡한 김동환교수(중앙대 작곡과)가 화갑을 맞아 5월 2일 호암아트홀에서 '내 마음의 노래' 가곡 발표회를 가졌다. 제자들이 스승의 화갑을 위해 마련한 뜻깊은 이날 행사에는 소프라노 양혜정 바리톤 이재환·최현수 국악인 김성녀 김성애 인천시립합창단 등이 무대에 올라 '사랑아' '그리움' ' 모란이 피기까지' 등 김동환 교수가 작곡한 일반 가곡과 '청산은 나를 보고' '삼세가 돌아닌 노래' '나는 느끼네' 등 찬불가 등 22곡을 노래했다.

김동환 교수가 찬불가에 쏟는 노력은 교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찬불가는 고정된 한 장르가 아니라 다양한 형식의 곡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더욱더 작곡가들이 찬불가에 관심을 기울여 새 곡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김교수는 지난 91년부터 불교방송 새 찬불가 100곡 만들기에 동참, '한마음 있음이여' '길을 갑니다' 등 많은 곡을 만들었고 편곡도 담당하는 등 음악을 통한 포교에 남다른 노력을 쏟아왔다.

교계에는 김교수의 제자들이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안병길(지휘) 김회경(작곡 및지휘) 박이제(작곡 및 지휘) 김수미(작곡) 방정민(피아노)씨 등이 그의 제자들이다.

이경숙 기자

무형문화재공예전 / 한국고미술대전 "한국얼 숨쉰다"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우리 조상들의 독특한 개성과 생활의 지혜를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화제의 전시회는 (사)한국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이사장 정춘모)가 오는 18일까지 잠실 롯데백화점 9층 롯데화랑에 마련하는 '무형문화재 전통공예특별전'과 한국고미술협회(회장 김종춘)가 15일부터 27일까지 공평아트센터에서 개최하는 '97 한국 고미술대전'.

'전통공예특별전'은 중요무형문화재 공예기능보유자 26명의 작품 47점을 비롯 총122명의 229점이 전시된다. 특히 지난해 새로 지정된 목조각장 박찬수씨와 금속활자장 오국진씨 등의 작품이 선보여 한국전통공예의 맥을 접할 수 있는 기회.

'한국고미술협회전'은 고미술품의 대중화와 문화재에 대한 의식 고양을 목적으로 협회가 매년 마련하고 있는 정기전. 올해는 예년보다 규모를 확대, 고미술품 1천8백여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정문화재를 비롯 개인소장의 불상, 불화, 선서화 등 우리 조상의 얼이 담긴 고미술품을 한자리에 모아 놓은 전시회와 함께 일부 작품에 한해 특별경매도 실시한다.

윤기석 기자

"부처님 집에 가요" 찬불동요집 CD 나와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에 맞춰 찬불동요집 '부처님 집에 가요'가 CD와 카세트테이프로 나왔다.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포교하는 비구니 지연스님과 대한불교민족종교예술단(단장 두관스님 부산선원 주지) 어린이 단원들이 직접 노래 부른 것.

지난 91년부터 무용단 가수 합창단 등 총 250명으로 민족종교예술단을 창립해 이끌고 있는 두관스님은 지난해 12월 제1회 부산불교 찬불가요제를 열고 이것을 음반 '108 명상가요'로 낸 바 있는 찬불포교사이다. (051)529-6188

세계 불교서화대전 30일까지 작품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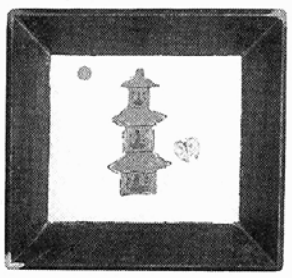
아세아서화협회에서는 오는 6월 22~26일(세종문화회관 전시실) '97 세계 불교서화대전 전시를 위한 불교서화작품을 공모한다. 작품공모는 5월 30일까지. (02)313-0756

"수묵의 진수"

송수남씨 개인전

예나르미술관 24일까지

토탈미술관 31일까지



◇송수남 作 '자연과 명상'

한국 수묵화의 산증인 남천 송수남교수(홍익대 동양화과)가 대규모 개인전을 갖는다. 인사동 예나르미술관(02-739-4200)에서 오는 24일까지 '자연과 명상전', 토탈미술관(02-379-3994)에서 31일까지 '붓의 놀림'전을 열고 후학들이 마련한 자료집 〈우리 시대의 수묵인 남천〉도 펴냈다. '자연과 명상전'에는 전통목기인 과반에 산과 구름 꽃, 탑과 절 등과 가부좌한 인물을 통하여 인간과 자연에 대한 통찰력을 담아냈다. '붓의 놀림'전에는 스며듬과 번짐 같은 수묵 특유의 미감을 강조했다.

분황사 원효문예대제전 '시민 호응'

"경주불심 한마당"

제2회 원효문예대제전이 지난 5~6일 양일간 경주 분황사, 황룡사지 및 경주시 일원에서 개최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원효스님 열반 1311주기를 맞아 열린 이번 행사의 첫째날은 경주시내 일원에서 길놀이를 시작으로 분황사앞 황룡사지 가설무대에서 경주시립합창단의 열림 노래, 경주신라국악예술단의 춤, 윤경렬옹(향토사학자)의 '원효이야기'등이 펼쳐졌고 극단 자갈치 서울놀이패한두레의 마당극 '신새벽 술을 토하고 없는 길을 떠나다'가 공연돼 절정에 다다랐다.

특히 황룡사 금당터에서 펼쳐진 부산춤패 배김새의 춤 '회향'은 원효스님의 무애행을 표현해 절묘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둘째날은 원효성사 제향대재가 분황사에서 봉행됐고 오후에는 경로잔치 거리굿 한마당이 펼쳐졌다.



◇분황사 앞 황룡사지 가설무대에서 펼쳐진 부산극단 자갈치와 서울놀이패 한두레의 마당극 '신새벽 술을 토하고 없는 길을 떠나다'.

경주=이윤호 기자

2541 부처님 오신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지리산화엄사
주지 종열
총무 서봉
교무 원진
재무 해영
호법 각진
포교 조
대중일동
▶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
전화 : 0664-782-4152,1100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주지 혜산
총무 법지
교무 무효
재무 회경
사기 범여
대중일동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500
전화 : 0677-61-1418~1422
FAX : 0677-61-1127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운악산봉선사
조실 운월
주지 경화
부주지 밀암
총무국장 화암
기획국장 법해
교무국장 계암
재무국장 수행
포교국장 화선
호법국장 혜림
사회국장 법공
총무과장 지환
호법과장 정인
봉선사 대중일동 능엄학림 일동
교구신도회 일동 봉선사 신도회 일동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55번지
전화 : 0346-555-5874
FAX : 0346-68-1958

서부은평 사원연합회
회장 서성운 (삼천사)
부회장 한자용 (수국사)
부회장 김혜진 (시연사)
부회장 이법성 (관음사)
사무총장 서혜인 (신흥사)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서성운
부설 인덕노인복지회관
인덕어린이집
종암 어린이집
수색 어린이집
개나리 어린이집
▶ 서울시 진관외동 산127-1 은평사서함 77호
전화 : 359-7756, 363-3004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조실 석주
주지 무상
부주지 원혜
총무 정안
교무 허주
재무 법수
노전 보화
도감 이삼
원주 성감
기획실장 승월
포교실장 명궁
포교국장 각의
교육국장 원광
대중일동
▶ 서울 강남구 삼성동 73
전화 : 545-1448
FAX : 544-2141

2541 부처님오신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

대한불교해탈종 총본산
제1교구본사 **소원사**
종 정 대 광
주 지 도 학
신도회장 김주선
▶ 부산시 정관면 용수리 산 5 전화 : 051-727-3050 전송 : 051-727-3052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사명대사 호국성지
재약산 표충사
주 지 신 허
사부대중 일동
▶ 경남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전화 : 0527-52-1070
전송 : 0527-52-1836

부산불교연합회
회 장 성 오
수석부회장 춘 광
상임부회장 월 강
사 무총장 보 암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3동 393-12
전화 : 051-867-0501~3
전송 : 051-867-0504

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
천 불 사
회 주 허도봉
원 주 무 공
신도회장 허보은
사부대중 일동
▶ 양산시 웅상읍 매곡리 304
전화 : 0523-82-1463
83-4668, 84-6542
전송 : 0523-84-6541

사하불교 연합회
회 장 김 종 원
부회장 석자인 · 오주암
김보원 · 김구품화
감 사 송건송
총무국장 김보각 교무국장 김진환
사회복지국장 석자영 기획실장 조혜원
규정국장 조상연 사무국장 이상철
회 원 일 동
▶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2동 산 7-35
전화 : 051-205-9302

대한불교일승종 부산종무원
낙 은 사
종 무 원 장
낙은사 주지 천혜지
▶ 전화 : 051-312-3777, 322-5918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부산지부
바라밀 포교원
원 장 효 종
신도회장 양수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881-51
전화 : 633-6412

부산시립의료원법당
▶ 부산광역시 등래구 연산동 부산시립의료원내
전화 : 864-2137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망운산 망운암
주 지 성각
신도 일동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아신리 산 1번지
전화 : 0594-63-3095~6
전송 : 051-0594-63-3097

대한불교천태종
삼 광 사
주 지 변춘광
총 무 박자정 재 무 곽수산
노 전 박해석 부 전 김갈성
신도회장 김찬권
사부대중 일 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 131
전화 : 051-808-7111~5 전송 : 051-803-1332

양정 보현선원
선원장 정여
신도회 일동
▶ 전화 :051-853-5486~7

산 사 선 행 회
회 장 이숙향
부회장 강행자 · 백북점
남화장 · 김혜숙
이성자
총 무 민현숙

부산불교고등학생 연합회
회 장 안기천(성진종합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박명환(성진종합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노철수(대웅전기공사 대표이사)
부회장 송창옥(동부산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현익채(금정중 교법사)
총 무 김원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
통도사부산포교원
전화 : 051-752-8792

자비실천회
찬불가 교실
찬불가, 가곡, 가요 등을 무료지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법향 가득한 찬불의 노래속에서 불심을 키울 분들을 기다립니다.
회 장 한영옥
지도강사 이옥희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0-267 동보빌딩 4층
전화 : 051-898-1547, 051-634-5114

대한불교조계종
해 운 정 사
금 모 선 원
조 실 임진제
주 지 하명언
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412 (32/4)
전화 : 051-746-2256,746-4812
전송 : 051-741-8882

통도사부산포교원
부 설 문화관, 시민선원, 연꽃 어린이집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
전화 : 051-816-2241

공창종합사회복지관
부 설 노인정, 지혜어린이집 재가복지센타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53-1
전화 : 051-363-2063

대한불교조계종
진 여 원
진여불교대학
회 주 혜 총
원 장 이기표
학 장 곽만연
신 도 일 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60-421
전화 : 051-337-1808, 338-1008
전송 : 051-341-6947

재단법인 불심홍법원
이사장 정 관 상임이사 하도명화
이 사 혜총스님. 조지명심.배묘음화.
서영숙. 양지혜행. 정명성행.
우판수. 백일륜화. 김대지심.
김법광화. 이보리성
사무국장 현익채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
통도사부산포교원내 203호
전화 : 051-818-4769

正法弘布를 위하여 進一步登一段하는
釜山佛教實業人會
회 장 김정태
고 문 강병중
상임부회장 서춘석 부 회 장 최용원
부 회 장 조영준 부 회 장 김윤환
부 회 장 백봉도 감 사 정호철
부 회 장 최 찰 감 사 박수복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47-14 O/P 1805호
전화 : 051-466-7174~5
전송 : 051-466-7176

부처님과 산이 만납니다
부산불교산악회
회 장 이순득
부 회 장 최소광. 류동길
박형주. 정재현
상임이사 정성구외 회원일동
부산불교산악회는 부처님과 산을 통해 심성을 맑히고자 하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04-7 혁정빌딩 7층
전화: 051-464-2020 전송: 051-464-4786

전법 · 도생 · 정진
부산불교교육대학
이사장 한재구 학 장 이하우
부학장 박주천 총무처장 현익채
교직원 일동

불자신용카드사업단
본부장 박 주 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
전화 : 051-818-8659
전송 : 051-807-7351

유마힐포교원
원 장 김정순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0-182
현대빌딩 202호
전화 : 051-644-4915~6

사단법인
부산불교신도회
회 장 류진수
상임부회장 임채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04-7 혁정빌딩 7층
전화 : 051-464-2020
전송 : 051-464-4786

대한불교조계종
선 암 사
주 지 혜 민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3동 628
전화 : 051-803-7573

대한불교조계종
문 수 사
회 주 유덕암
주 지 최지원
신도회 지장회
관음회 선행회
회원일동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61-3
전화 : 051-624-3754

대한불교해동종
경기종무원
종무원장 담 원
종 도 일 동
▶ 경기도 평택시 안중면 안중6리 산5 (능인사)
전화 : 0333-82-8324

불교전시관
1층 서적, 불구, 테이프. 초파일용품. 단청. 탁자
2층 서적
3층 불상. 탱화
대 표 조 재 원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330-152
전화 : 051-647-7393, 632-7393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감로사**
노전 보안 회주 법희
주지 혜총 법사 경법
교무 경성 재무 경원
각 신도회 일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2동 23번지
전화 : 051-809-0926,8943

부산불교녹야회
(현대불교화요선방)
매주 화요일 저녁 화요선방을 열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불자님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회장 이종판(도원)
▶ 전화 : 051-634-5114

재단법인
금정장학회
이사장 벽 파
법인 사무실 재단법인 금정장학회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산 57
전화 : 051-403-7096
전송 : 051-403-9810
▶ 연락처 : 보현선원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3동 369-22
전화 : 051-853-5486~7

대한불교해동종
경남종무원
종무원장 백 담
종 도 일 동
▶ 경남 사천시 백천동 305-1 (백 용 사)
전화 : 0593-34-4328

대한불교해동종 서울종무원
종무원장 의 성
종 도 일 동
▶ 서울 관악구 신림5동 144-36 (밀지사) 전화 : 02-878-3643

대한불교해동종 충북종무원
종무원장 법 운
종 도 일 동
▶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계리 산24 (범천사) 전화 : 0434-32-8834

2541 부처님오신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

(합) 대구측량공사

대 표 이창희

▶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183-11번지
전화 : 053/743-2448

이화피아노

원 장 홍계선

▶ 강릉시 포남동 1068-7번지
전화 : 0391/651-1315

예인꽃방

이 연 희
(통신판매가능)

▶ 강릉시 송정동 996-1
전화 : 0391/651-1698

미도양품

대 표 진 정

▶ 강릉시 성남동 61번지
전화 : 0391/648-3848

장 서 원

(냉면 전문점)

▶ 강릉시 성내동 12-13
전화 : 0391/647-8333

(사)그린훼밀리 운동연합

구미시 지부 창립 1997년 6월

지 부 장 허규선
부지부장(남) 이두석
부지부장(여) 박수옥

▶ 구미시 원평동 1028
금오시장3층 309호
전화 : 0546/ 52-8891
전송 : 0546/456-7332

대한불교조계종

부 석 사

주 지 근일

사부대중일동

▶ 경북 영풍군 부석면 북지동 148
전화 : 0572/ 33-3464

정우건축 설계사무소

소 장
건축사 서정남

※ 사찰, 고건축, 한옥설계전문
전화 : 053) 624-1500

푸른주유소

소장 곽시진

▶ 강릉시 포남동 1164-1
전화 : 0391/646-9666

최 연 규

▶ 강릉시 교1동 968-7
전화 : 0391/648-9415

금강불교 조각연구원

대표 이청원

▶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1858번지
전화 : 051)972-3912, 971-2174
전송 : 051)971-3384

(주) 한국전기관리

● 전기안전관리 용역
● 전문업체

대표이사 정희락

전화 : 053/426-2000

웨딩숍 신랑&신부

원 장 구정애

● 신부화장 전문, 드레스대여
● 턱시도, 약혼복, 연주복, 웨딩앨범, 부케, 비디오촬영

▶ 대백프라자 건너편 복개도로입구
전화 : 053/475-7004~5
012-728-7234

대한불교조계종

대구광역시 신도회 제 9 교 구 신도회

회 장 최동원

▶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714번지
전화 : 053/253-2886

대한불교조계종

분 황 사

주 지 종수
신도회장 서자비행

▶ 경북 경주시 구황동 312번지
전화 : 0561/42-9922

대한불교조계종

인 각 사

(일연선사 삼국유사 저술성지)

주 지 김대원
사부대중일동

▶ 경북 고위군 고로면 화북리 612번지
전화 : 0578/83-1161

상아종합슈퍼마켓

박 선 희

▶ 대구시 남구 이천동 712-7
전화 : 053/473-3909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대한불교조계종

대구광역시 사원주지 연합회

회 장 원명
회원사찰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37 삼영B/D BF1
전화 : 053/427-2963~4
전송 : 053/427-6505

관음사

영 남 불 교 대 학

주 지 조우학

● 신입생모집 6월12일개강, 매주 목 오전반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3동 1301-20
전화 : 053/473-5802
474-8228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포교원

관 오 사

(부설:불교사회교육원)

원 장 지도

● 기초교리 및 경전강좌 수강생모집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1374-3
전화 : 053/784-3669

대한불교조계종

금 강 사

주 지 이정우
반야유치원장

▶ 경북 구미시 원남동 1008-25지
전화 : 0546/52-0845
52-6064
53-6634

대한불교조계종

한 천 사

주 지 道 日
대중일동

▶ 경북 예천군 감천면 중거동 184
전화 : 0584/52-6911

문무전력(주)

대표이사 김상철

전화 : 053/744-3000

대한불교조계종 (재)선학원

여여선원

원장 혜운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982-4
전화 : 053/622-0336, 629-4945
전송 : 053/655-3825

대한불교조계종

거 조 암

주지 혜해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622
전화 : 0563/35-1396

한국불교연구원

대구구도회

회장 권오주
회원일동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4동 3052-7
전화 : 053)654-8533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신도회장 김법일

전화 : 053/763-2705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신도회
부회장 한법운

전화 : 053/755-5033

구청팔 · 김연미

전화 : 053/252-5895

달구벌관광(주)

대표 신동판

▶ 대구시 남구 대명동 2274-7
전화 : 053/651-9990

한 진 상 회

대표 전억종 · 김태화

▶ 대구광역시 서문시장 2지구 3층53호
전화 : 053/254-9834

상신원색인쇄사

대 표 박상신

전화 : 053/353-8415

성당정육점

하원능 · 송화리

전화 : 053/652-4275

델리원베이커리

안법인

전화 : 053/621-4315

구 지 방 앗 간

대표 박순흠

중동시장 內
전화 : 053/763-2988

2541 부처님오신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

한국불교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방장	덕암 대종	총무	명성
사		재무	승범
주지	지암	교무	정혜
선원장	향산	포교	전각
교육원장	상명	사무국장	성당

대중일동

▶ 전남 순천시 승주읍 쌍암면 죽학리 802
전화 : 0661/54-5247

전북불교회관

주지 도영
원감 회일
신도일동

전북불교회관 화엄불교대학

학장 도영
부학장 회일
교무처장 이홍식

전화 : 0652/251-4942, 77-3497

안산불교연합 합창단

●소년소녀 가장돕기 음악회에 동참해주신 모든 불자님과 함께…

지휘 : 조영근 단장 : 여여심
회장 : 반야월외 단원일동

▶ 안산시 성포동 584-1 선아빌딩
전화 : 84-3095

안산불교인 미술작가회

회원일동

▶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527-9 중앙오피스텔 906호
전화 : 0345/411-4580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 상near
지도위원 : 용음·천운
부회장 : 지현, 성호, 벽산, 종일, 지암, 영조
기획실장 : 도산, 혜림, 월산, 경주
감사 : 혜광, 법륜 기획부장 : 시각
교육원장 : 혜정 총무 : 인천
섭외홍보실장 : 혜일 재무 : 선암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 혜연 호법 : 범각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 혜종 사업 : 혜종
사무국장 : 엄성환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산1번지(무각사 내)
전화 062/376-3223~5 전송 062/376-3225

한국불교태고종 광주·전남 종무원

원장 : 최청경
부원장 : 김금룡
재무 : 윤혜종
교무 : 김시각
종회의장 : 김동환
사정위원장 : 정성관
총무 : 김지산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산 99-7
전화 : 062/375-1820

광주불교능인회

● 사단법인 광주불교 능인문화원
● 광주불교 능인회 새마을금고
● 광주불교 능인회 장의부

대표 김두원

▶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2동 480-7
전화 : 062/226-5161~4
전송 : 062/234-8485

대한불교조계종
덕룡산 문성암

대중일동

▶ 전남 나주시 다도면 암정리 899
전화 : 0613/37-0711
전송 : 0613/37-5154

광 륵 사

"불법을 일으켜 세상을 구제 합시다"

대중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392
전화 : 062/222-7801

돌탑 천불지장보살기도도량
한국불교원각종 호남종무원 **옴천사**

덕은불교대학
주지 : 정암
대중일동

▶ 전남 강진군 옴천면 개산리
전화 : 0638/33-2233

한국불교 원각종 **자성사**

주지 : 선혜
대중일동

▶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2동 639-2
전화 : 062/673-0877

여수 장군사

주지 : 전순완
대중일동

▶ 전남 여수시 광무동 933-70
전화 : 0662-41-7198

대한불교조계종
내장산 내장사

주지 : 범여
대중일동

▶ 전북 정읍시 내장동 590
전화 : 0681/33-8741
전송 : 0681/536-7414

대한불교 조계종 **금선사**

주지 : 일명
대중일동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산4-1
전화 : 062/942-3260

대한불교 조계종 **향림사**

회주 : 천운
주지 : 법인
원감 : 도관
대중일동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51-3
전화 : 062/375-7600

대한불교 조계종 **원효사**

주지 : 현지
대중일동

▶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846
전화 : 062/262-0321

마이산탑사

주지 : 이왕선
대중일동

▶ 전북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8
전화 : 0655/33-2900, 0303

대한불교조계종
능가산 내소사

주지 : 진원
대중일동

▶ 전북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268
전화 : 0683/83-3030

율곡사

주지 : 혜령
대중일동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269-4
전화 : 062/263-4575

대한불교 조계종 **증심사**

주지 : 영조
대중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56
전화 : 062/226-0107

자비정사

주지 : 일광
대중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월남동 489
전화 : 062/234-0879

군산 원정사

주지 : 정진
대중일동

▶ 전북 군산시 동흥남동 93-3
전화 : 0654/445-1756

대한불교조계종
신광사

주지 : 경주
대중일동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1동 193
전화 : 062/261-1529

우신건축사사무소

대표 : 문근
직원일동

▶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518-80
전화 : 062/525-3130, 521-1845
전송 : 062/514-1404

대한불교 조계종 **연화사**
(연화유치원)

주지 : 명신
대중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448-35
전화 : 062/227-7295

동곡사

주지 : 혜림
대중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산188-1
전화 : 062/232-6995

두리토방
몽평요

대표 : 몽향(정철수)
직원일동

▶ 전남 무안군 몽탄면 몽강리 453
전화 : 0636/52-3343

한국불교 법륜종
관음사

주지 : 도광
대중일동

▶ 전남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2구
전화 : 0684-83-6697

(주)삼립식품 **방방곡곡**

열무냉면·돈가스전문점

직원일동

▶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1001-1
전화 : 062/265-7852

삼보기업

● 철근 콘크리트 전문시공 업체

대표 : 김종금(원앙)
직원일동

전화 : 062/528-9198
062/511-1781

만덕사

주지 : 시각
대중일동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232
전화 : 062/652-4920

대한불교 화엄종 **천불사**

주지 : 선금석
신도회장 : 천등화 이영순
총무 : 보현화 이용자
자비화 김하순

▶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77-2
전화 : 062/234-7548
전송 : 062/228-1605

승달산 선혜정사

주지 : 능산당 성원
신도회 : 자비회
일심회
승달회
철성회 일동

▶ 전남 무안군 몽탄면 사천2구 827
전화 : 0636/52-3508

대한불교 조계종 **심향사**

주지 : 성오
대중일동

▶ 전남 나주시 대호동 825
전화 : 0613/34-2880

● 각종한약재 도매상
세화당한약방

대표 : 정갑봉
직원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1동 294-17
전화 : 062/225-3355~7, 224-8949
전송 : 062/225-5678

대한불교 조계종 **약사암**

주지 : 종일
대중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12
전화 : 062/222-9844

대한불교 조계종 **월출산 도갑사**

주지 : 범각
대중일동

▶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8
전화 : 0693/72-0521

대한불교 조계종 **유달산 달성사**

주지 : 혜향
대중일동

▶ 전남 목포시 죽교동 317(체육공원내)
전화 : 0631/44-1489

승달산 관음사

주지 : 이도영
대중일동

▶ 전남 무안군 몽탄면 사천2구
전화 : 0636/52-3221

● 승강기 보수전문업체 ●
성경엘리베이터주식회사

대표 : 전재성
직원일동

▶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60-2
전화 : 062/528-0462~3 핸드폰:011-601-8416
전송 : 062/528-0463

불교문화장학재단
대한불교 조계종 **천룡사**

주지 : 벽상
대중일동·이사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240
전화 : 062/234-1338, 0108
전송 : 062/234-1337

광주불교문화대학 (광주불교교육원)

원장 : 영조 이사장 : 이범식

● 불교교육 : 불교학당, 경전강좌, 불교의식강좌
● 문화교육 : 불교문화강좌, 불교미술강좌, 다도강좌, 취미, 교양강좌, 어린이학당
● 불교문화유적답사

▶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252-17(봉산빌딩 4층)
전화 : 062/228-9098 전송 : 062/228-9003

군산불교대학

학장 : 박순호 교학처장 : 김운봉
부학장 : 김성구 재무처장 : 양일용
교무처장 : 김창묵

● 강의시간 : 불교학과 -매주금요일(오후7시)
범사학과 -매주수요일(오후7시)

▶ 전북 군산시 경암동 644-3
전화 : 0654-445-4562, 43-1080

이리불교대학
이리가릉빈가 합창단

이사장 : 혜산 학생처장 : 정병호
부학장 : 김진수 사무처장 : 이재춘
교무처장 : 이택회 간사 : 신화영

·학인일동

▶ 전북 익산시 갈산동 32
전화 : 0653/54-1578

북은백일장 중등부 우수상

연 등

장정환 〈동대부중 3〉

사월이 그리워
집앞에 섰네
한세상 시름겨워
산속을 찾다
나뭇잎이 흩어지는
적입구
처마끝 풍경의
외로움
찬불가 낮은소리
어린애 웃음소리
연등에 담긴 소망이
조금씩 이루어진다
적멸산에도 연꽃이 핀다

제1회 전북파라미타 백일장 장원

사월초파일

이영미 〈전주 중앙여고 2〉

아주 오래전
사월의 어느날
멀리서 바삭에 시려온 매화씨
푸른 산 어느 곳에 내려앉아
싹을 틔웁니다
아침마다 생명을 담은
조그만 목으로 자랄 수 있어
보이지 않는 벽계등에까지
벗할 수 있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는 푸른 도포를 걷치고
때론 학사한 웃음으로
모두들에게 인사합니다
지나온 발자취도
소란스런 세상이야기도
풍경소리로 녹아내리는
사월초파일
두손 모아 피워내는 연등이
하나 둘 켜지고
견손한 등꽃의 하려함이
북소리처럼 울려올때
녹색의 나래를 떠나
또 박토를 찾아 뿌리를 내려
그리운 사람의 얼굴을
시간도 지쳐버린 어스름녘에
피워보려 합니다

"나는 불자…긍지 느껴요"

선재들의 법명이야기

누구든지 불문에 들어 수계를 받으면 법명을 받게 된다. 불자로 새로 태어났으니 열심히 정진하자는 의미에서 법명 수지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 품속에서 살고있는 13명의 어린이·청소년 불자들이 각기 가지고 있는 법명과 그에 대한 소감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착하고 슬기롭게 살라" 뜻 문수행 받아
선생님과 이름같아 놀림받아도 즐거워

정혜연 〈김미아·신중초등 2〉

구룡사어린이회에 다닌다. 내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부모님께서 법명을 부르고 야단을 치신다. 법명을 들으면 부처님께 약속한 일이 생각난다. 그래서 더욱 잘못했구나 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다고 반성하게 된다.

진실행 〈김민영·불암초등 3〉

93년 김천 직지사에서 동생과 함께 혜창스님에게 수계를 받았다. 동생의 법명은 선재다. 진실행이란 이름을 받아서 매우 기뻤다. 진실되게 살라는 뜻으로 스님께서 지어주신 것 같다.

정인 〈고명재·대구 파동초등 4〉

한마음선원 전국어린이 하계 수련법회에서 법명을 받았다. 법명을 자꾸 부르다보니 이름보다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게 신기하다. 부모님께서는 법명을 더럽히지 않도록 언행을 바르게 하라고 하신다. 법명을 받으며 다짐했던 어린이오계를 잘 지킬 것이다.

길상 〈김문수·은석초등 6〉

연화행사에서 법명을 받았는데 내 법명은 문수보살을 뜻하는 묘길상이다. 시험을 잘보거나 큰 대회에서 상을 탔을 때 역시 법명답게 잘 한다는 말을 들으면 자랑스럽고 법명을 다시 한 번 생각한다. 앞으로도 법명처럼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 것이다.

무량심 〈이소정·대조초등 6〉

2학년 때 법주사 여름수련대회에서 수계를 받았는데 법명을 받으니 진정한 불제자가 된 것 같다. 불교행사나 법회에서 스님께서 이름대신 법명을 불러주시는데 법명을 들으면 기분이 흐뭇해지고 기쁘다. 내 법명의 뜻을 그동안 잘 몰랐는데 이제부터는 마음 속에 꼭 담아둘 생각이다.

진각 〈박태윤·행당초등 6〉

93년 조계사 현근스님에게 수계를 받았고 지난 해에는 마정수기도 받았다. 절에 다니는 것이 즐겁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활동하겠다. 올해는 연등행렬 행사때 발원문 낭독을 하는데 이것도 다 수계를 받아 법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자랑스럽다.

문수행 〈백선영·은석초등 6〉

학교에서 법명을 받았다. 법명이 없을 때보다 잘못했던 일을 반성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다. 오빠가 가끔씩 문수행이라고 불러주기 때문에 즐겁고 교회에서 세례받은 친구들이 세례명을 말할 때 나는 법명을 자랑한다. '문수보살님'처럼 착하게 살라는 뜻이라고 하니 착한 어린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송암 〈신동룡·한성중 1〉

조계사 어린이회에 다녔고 지금은 조계사 학생회에 다니고 있는 조계사파다. 혜정스님에게 수계를 받고 법명도 받았다. 처음에는 오계를 열심히 지켰는데 지금은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 마음에 걸린다. 그래도 절에 다니고 스님 법문을 듣는 것이 너무 좋다.

정현 〈한정석·부산남중 3〉

내가 법명을 받은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다. 엄마가 법명으로 나를 부를 때마다 부처님이 좋아하실 수 있게 좀 더 착하게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법명을 받을 때 온가족이 서로 축하하며 법명의 뜻을 같이 새겨주고 평소에도 늘 불러주고 했으면 좋겠다.

해일 〈이재일·동대부고 2〉

동아리선배의 권유로 다니게 된 절에서 수계를 받았다. 법명을 생각하면 동해 일출의 장관이 눈 앞에 그려진다. 왠지 힘차고 생기있어 나는 그때마다 힘이 솟는다. 담임 선생님인 정해일선생님의 이름과 같아 자주 놀림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좋기만 하다.

청정심 〈박미경·명성여고 3〉

1학년 때 구룡사에서 녹원스님에게 수계를 받았다. 계첩을 받아들고 내 법명을 보았을 때 너무나 아름답다고 느껴 부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법오 〈구본철·대구 계성고 2〉

작년 12월에야 비로소 오계를 수지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고 법명을 받는다는 것에 사뭇 기대가 컸다. 법명처럼 깨달음을 얻어 정오의 태양처럼 밝아져서 가여운 뭇 중생들을 모두 비추겠노라고 친구들에게 장담했던 기억이 새롭다.

법천 〈석동진·동대부고 2〉

학교 수계식 때 법명을 받았다. 동진이란 이름은 부모님께 받은 이름이니 좋고 법천이란 법명은 부처님이 내려주신 것이니 더욱 좋다. 법명을 주신 부처님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내 일에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제3회 전국어린이 부처님그리기 대회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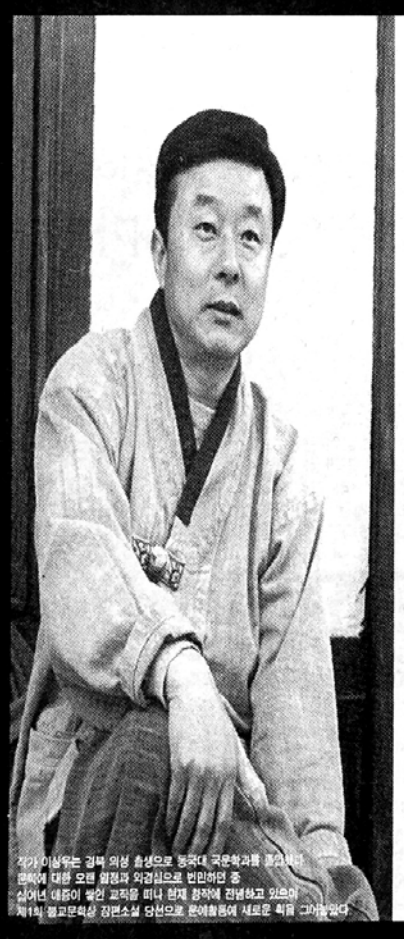


◇엄승일 〈송우초등 2〉

만화 백유경 百喩經

이향원





다 비워버려 더욱 우뚝선 저 민둥산처럼
욕망의 가슴들 자꾸자꾸 비우게 하소서!

채움의 고통과 비움의 행복을 솎아낸 불교문학 그 서사의 향기

1억 3천만원 고료
제 1회 불교문학상 수상작

비어있는 날들의 행복

이상우 장편소설

탐욕의 시대, 길은 위대한 포기밖에 없다.

저 질긴 욕망과 탐욕의 운회고리에 얽혀 신음하는 중생들.
헛된 삶의 무게에 눌려 뒤뚱거리며 얼마를 더 가야하는가?
잠시 고개들어 세상을 보면 천지에 있고 없음이 따로 없는데
아 그립다. 채움과 비움이 하나되는 삶이여.
탐욕의 시대에 헤쳐나갈 길은 위대한 포기밖에 없다.

'진흙속의 견성'이라 부를 만큼 주인공의 인물 형상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화자의 이야기로부터 주인공의 삶으로 서사의 중심을 옮겨가는 이야기 전개방식에 호감을 갖게 한다. 그것은 불교를 직접 말하지 않으면서 불교적 양상을 드러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특히 소설적 어법에 충실한 작품으로 높이 평가된다.

■홍기삼 조정래(심사위원)

불교와 대중과의 거리를 좁혀주는 작품의 전개방식이 독특하며 후경화의 기법으로 서서히 작품정신으로 유입시킴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집입가경의 묘미에 빠지게 한다. 이 작품은 불교소설의 또다른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고 불교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조민(민족통일 연구원 연구위원)



전2권/신국판/각권 값 5,800원
※지금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2동 320번지 계양B/D 2F 밀알 TEL529O14O~5·FAX5792312

종단소식

조계종

선본사 · 불방사태등 논의

총무원(원장 월주)은 19일 4층 회의실에서 본사주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종무보고를 비롯 선본사, 불교방송사태등 종단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화엄학림 제1기 졸업식

화엄학림(학장 연관스님) 제1기 졸업식이 19일 오전 11시 실상사에서 조계종단 교육관계자와 선우도량 스님, 졸업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다.

화엄학림은 95년 5월 조계종단 최초의 전문교육기관으로 개원, 이번에 첫 졸업생 5명을 배출한다. 화엄학림에는 현재 2기 5명, 3기 7명이 수학하고 있다.

불교사회교육원 효도잔치

대구 동화사포교원 관오사 부설 불교사회교육원(원장 지도)은 14일 범물공원에서 5월 가정의 달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심청이 효도잔치 한마당'을 마련한다.

관오사는 이날 지역노인 2천여명을 초청, 점심공양을 대접하고 위문공연을 벌인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불청 대구지구 소속 청년회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가할 예정이다.

태고종

청소년 통일문화 예술제

한국불교청년회(회장 도각)는 봉축행사의 일환으로 18일 오전 9시30분 보라매 공원에서 '참나 청소년 통일환경문화예술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문학부(산문, 운문) 미술부(수채화, 크레파스) 대학 · 지도자부(불교미술, 조각, 악기연주) 등 3개 부분에 2천3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6월15일 총무원 설법전에서 열릴 예정이다.

보현도량 양로원 위문

보현도량(회장 무위)은 4월 28일 경기 화성에 소재한 불교양로원 자제정사를 방문, 위문법회를 봉행했다.

보현도량 회원 및 자제정사 노인 등 1백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는 자제정사 노비구니 및 할머니들의 무병장수 기원법회와 민요부르기, 게임 등의 레크리에이션이 이어졌다.

천태종

국립극장서 천태예술제

총무원(원장 운덕)은 19일 오후 7시30분 국립중앙극장에서 천태예술제를 개최한다.

1부 초청무용 및 초청가수 공연과 2부 국악관현악 연주 및 연합합창으로 나뉘어 진행될 이번 예술제에는 종단스님의 범패 및 바라춤과 불교무용, 전통무용 등이 각각 선보일 예정이다.

삼광사 복지시설 위문

부산 삼광사(주지 춘광)는 9일 경내 지관전 불교문화회관에서 제3회 삼광효행상 시상 및 삼광경로잔치를 열었다.

부산지역 70세 이상 노인 3천5백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효부, 효녀로 뽑힌 백정임씨 등 모두 7명이 상패와 상금을 받았다.

이어 열린 2부 경로잔치 한마당에서는 화관무, 부채춤 등 고전무용과 가요 등 불자연예인의 위안공연이 펼쳐졌다.

한편 삼광사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7일 정화양로원, 천마재활원 등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선물과 성금을 전달하고 위안잔치를 베풀었다.

진각종

50돌기념 서원가 공모

통리원(원장 성초)이 창종 50주년을 기념해 새로이 서원가를 현상공모한다.

공모내용은 작시, 작곡, 작시 · 작곡 세 부문으로 성인, 청소년, 아동 불자들이 부를 수 있는 서원가에 적합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남녀노소 구분없이 일반불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서원가 현상공모 응모마감은 5월31일까지이며, 통리원 문화사회부에서 접수한다.

(02)913-0751

관음종

진해 발원정사 법당 낙성

진해 발원정사(주지 윤보성장)는 지난 2일 법당 낙성식을 봉행했다.

4층 현대식 건물로 연건평 3백60평 규모의 이 건물은 1층 상가, 2층 불교대학, 3 · 4층 법당으로 꾸며져 있으며, 경남지역의 불교회관 역할도 함께 하게 된다.

알림 본지 20면 증면과 함께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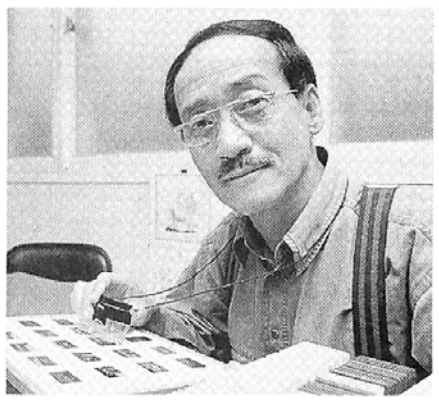
"부처님 나라 가면 마음 편안"

80차례 인도여행 김 인 섭씨

"인도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나라입니다. 인도에 가면 그 나라에 한없이 빠져들게 되고 마음이 편해짐을 느낍니다. 따뜻한 봄날 양지바른 툇마루에서 반가사유의 상태가 되듯이 말입니다. 인도에는 종교가 삶 그 자체니까요."

부처님땅 인도, 네팔을 20여년동안 80회 여행한 김인섭씨(54 · 이재실업대표). 탐험과 여행을 즐기는 그가 75년 첫 인도방문에서 받은 그 넉넉함에 매료됐던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는 인도, 네팔 관련 자료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많다. 슬라이드 필름만도 1만여점이나 되며 전문서적도 1백여권 소장하고 있다. 그는 이것들을 사무실에서 자문과 열람을 원하는 단체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그는 후배 여행자들에게 정보를 나눠주어 그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때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슬라이드 1만여장 · 도서 1백여권
성지정보 서비스… 테마여행 조언



◇부처님땅 인도 · 네팔을 80회 여행, 1만여장의 슬라이드 자료 필름을 소장하고 있는 김인섭씨.

김씨는 인도로 떠나는 여행자들에게 주제별 테마여행을 권한다. 인도는 광활하고 불교, 무갈, 힌두 등 여러 문화가 복합돼있어 자칫 수박겉핥기식 관광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여행을 떠나는 이들에게 인도의 문화에는 감탄을 하면서도 경제적으로 뒤진다고 인도인들을 무시하는 행동은 절대 금물이라는 충고도 덧붙였다.

80번이나 인도에 다녀왔지만 아직도 인도를 잘몰라 단행본 한 권조차 내기 조심스럽다는 김씨는 1백회 여행을 채울 5년후에나 인도를 글로 정리할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해인사 성보전시관 '첫삽' 해인사(주지 보광)가 7일 옛 해인초등학교 부지에서 성보유물전시관을 포함하는 해인불교단지 건립기공식을 봉행했다. 개토제를 겸한 기공식에는 법전, 도견, 성수, 보광스님을 비롯해 김혁규 경남지사, 서석재국회정각회장 등 사부대중 1천2백여명이 참석했다. 2002년 완공될 성보유물전시관은 총 60억원의 예산에 지하1층 지상2층에 대지 1천39평 연건평 5백17평 규모로, 대전시실 특별전시관 팔만대장경전시실 수장고 식당 기계실 등이 들어선다. 〈해인사=이윤호 기자〉

경주 황성공원 체육관 건립 말썽

경주시 추진에 시민단체 '녹지확보' 반발

경주 경실련, 남산보호단체협의회, 경주환경모임 등 '경주 황성공원 살리기 범시민연합'은 황성공원 부지 31만평안에 건립중인 실내체육관 건립을 저지키로 해 시당국과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91년 건설부고시 제795호로 확정된 '황성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2백38억원을 들여 지난 1월 황성공원안에 실내체육관을 착공했다. 경주시는 실내체육관 외에 야구장 레포츠시설 등을 차례로 건립, 종합체육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연합은 4월23일 경주 상공회의소에서 '21C 경주 황성시민공원 조성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황성시민공원 가꾸기 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황성공원을 보전키로 결의했다.

대구 통일기원 대법회

사부대중 7백여명 참석

민족통일을 기원하는 대법회가 9일 대구프린스호텔 대연회장에서 봉행됐다.

동화사 주관으로 열린 통일기원 법회에는 각 종단대표급인사를 비롯 지역 국회의원 문희갑 대구시장 이의근 경북도지사 각급기관단체장 등 사부대중 7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법회는 봉축법요식과 봉축문화행사로 나뉘어 진행됐다.

영천 만불회 삼존불 점안

부도탑묘 8백67기 조성

조계종 만불회(회주 학성)는 11일 영천 만불산에서 만불전의 주불인 삼존불 점안식 및 만불전 단청회향식을 봉행했다.

만불회측은 3m 높이의 삼존불이 우리나라 법당 불상으로 최대 규모라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 만불전에는 일만옥불이 봉안될 예정이다.

한편 만불회는 만불산 중턱에 부도탑묘 8백67기를 마련, 일반인들의 예약접수를 받고 있다.

재소자 80명에 수계

대전교도소불자회

대전교도소불자회(회장 정진우)는 9일 교도소내 종교관에서 대전사암연합회장 월해스님(금강정사 주지)을 수계법사로 봉축기념 재소자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재소자 80여명이 수계를 받고 불자로서 새 삶을 살게 됐다.

'바미얀 대불' 훼손위기

세계 7대불가사의…아프간 회교반군 '폭파' 공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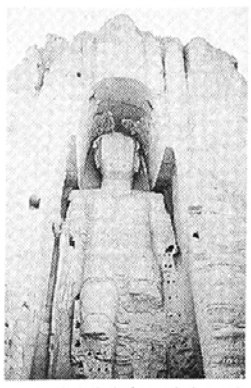
세계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이며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불상인 아프카니스탄 바미얀 대불(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 폭파위기에 처했다.

내란 중에 있는 아프카니스탄의 회교 원리주의 탈레반군 사령관은 최근 바미얀 계곡 동쪽 6백㎞까지 진군한 상태에서 "눈이 녹으면 바미얀 계곡까지 진군해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이슬람교 법에 따라 바미얀 대불을 파괴하겠다"고 공언한 것.

이 대불은 사암으로 된 절벽 2㎞에 걸쳐 마치 벌집처럼 굴을 파서 승방과 예배당을 만들고, 동서 양끝에 각각 37m, 53m의 두 초대형 입상을 조각한 것이다. 현장법사는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 "이 대불들은 도금으로 빛나고 보석(寶飾)이 찬란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이교도인 이슬람과 징기스칸 군대들이 이곳을 지나면서 얼굴을 깎아내고 왼다리와 왼쪽팔을 잘라내는 훼불을 자행, 한때 유네스코가 보수를 시도했으나 사람 키의 6배나 되는 귀를 하나 복원하는데 한계를 느껴 포기한 적이 있다.

그동안 공공연하게 바미얀 대불 파괴를 공언해왔던 회교 원리주의자들은 이번 기회에 1천년 미완의 파괴를 완수하겠다는 것. 눈이 녹으면 바미얀 계곡 진입은 손쉬운 일이고, 현지 분위기도 단순한 으름장이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더욱이 내전중인 정부의 관심은 바랄 수도 없는 처지라 유네스코의 대책마련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남아 있다.



◇세계최대의 바미얀 동대불(東大佛 · 높이 53m).

전형적인 간다라 불상을 단지 거대하게 확대시켜 놓은 이 대불은 불교미술사상 최초의 거대한 예배상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귀중한 예로, 중국의 운강(雲岡)이나 용문(龍門)석굴의 대불, 일본 동대사(東大寺)의 청동대불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해외불교

泰, 불교 국교인정 않는다

"모든종교 자유보장" 헌법개정 추진

국민의 95%가 불교도인 태국이 현행 헌법 개헌논의 과정에서 불교를 국교로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

태국에서 불교가 하나의 생활방식으로 돼있고 국가와 민간의 모든 행사는 불교의식으로 진행된 것을 감안할 때 지난 2일 태국헌법기초위원회(CDA,Constitution Drafting Assembly)의 헌법 개정 방침은 주목된다.

CDA는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현대사회를 감안, 새 헌법에서는 불교를 국교로 선언하지 않기로 했다"며 "모든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의 헌법은 1931년 국가입법위원회(National Legislative Assembly)가 처음 제정한 이래 1995년까지 수차례 개정됐다. 태국의 현행 헌법은 2조7항에서 '국왕은 불교신자며 종교의 후원자'로 명시한 만큼 불교와 밀접한 관계. 반면 지금껏 타 종교를 배척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마음 모든행위 다 수행

우리는 수행하기 위해 태어났고 수행하기 위해 살고 있다. 하루 24시간의 모든 활동-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세수하고 식사를 하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말하고 움직이고 잠을자는 그러한 모든 행위가 다 수행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성하출판 TEL:778-6826/7 FAX:778-6828



"생각없는 생각의 묘함으로서
끝없이 신령스런 불꽃을 숙고하여
존재의 근원에 돌아오면 둘이 아닌 원칙인
성품과 그 형상이 항상 머무르니. 이것이 참부처님이다."
- 「중국의 작은 부처 앙산」 중에 -

"어디가 참부처님이 계시는 곳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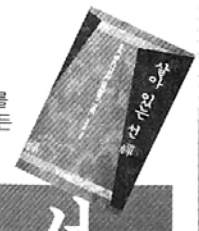
중국의 작은 부처
앙산

「중국의 작은 부처 앙산」은 선(禪)에 대해 말하고 있다.
선이란 무엇인가? 이 책에선 '그저 지켜 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을 터득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현대인에게 깨달음을 주는 「중국의 작은 부처 앙산」의
진수를 경험해 보자!
그저 지켜볼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이미 당신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작은 부처, 깨달은 자로 존재할 것이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김화영 옮김 / 값 6,500원

앙산 (仰山)
위산의 법제자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손가락 두 개를 자르고 출가했다.
마조선사의 많은 선 지식을 두루 만나 법을 구하였고,
탐원을 만나 혜충국사의 원상법문을 전해 받았는데,
한 번 보고 단박에 깨쳐 그 자리에서 태워 버렸다.
스승 위산에게 머물면서 진리를 깨친 그는 중국의 소석가로
불릴 만큼 출중하였으며, 후에 스승과 더불어
중국 오가종(五家宗)의 하나인 위앙종의 문을 열었다.

여기,
다시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달마의 벼락 같은 목소리가 있다!



송대 임제종의 원오스님이 운문계의 선사인 설두스님의 송고집에 평과 해설을 붙여 만든 〈벽암록〉은 종문제일서라 불리며 선서의 왕좌를 차지 한다. 성철스님께서 "벽암록을 읽으면 모든 알음알이가 딱 끊어진다"고 격찬한 선서의 백미이다.

살아있는 선

오쇼 라즈니쉬 강의 / 류원장 옮김 / 값 9,000원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질 때,
인도의 스승들은 불교의 정수를 모아 42편의 시로 구성하였다.
오쇼 라즈니쉬는 특유의 페이소스 넘치는 우화를 곁들여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42장경

오쇼 라즈니쉬 지음 / 황광우 · 이경옥 옮김 / 전2권 / 각권 값 7,500원

CREATIVE WOO AD

절이 변하고 있다

종무기획실등 설치 '주민 곁으로' 프로 개발

석왕사 생협운영 · 매년 문화제
보광사 시민환경센터로 개방
조계사 직장인 교리강좌 개설

사찰이 변하고 있다. 특히 도심사찰의 경우 기존의 기도와 설법의 고전적인 사찰의 모습에서 지역사회에 봉사·회향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석왕사(주지 영담)는 일찍이 생활협동조합을 통해 양질의 먹거리를 신도와 지역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또 외국인노동자의집을 설치, 외국인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밖에도 석왕사는 백중을 지역문화축제로 정착시켜 10년째 운영해오고 있다.

석왕사 사무장 김홍기씨는 "지역사회는 사찰이 존재하는 근거이며, 따라서 지역에 봉사하는 것은 사찰의 고유업무"라고 말했다. 지역주민 김학미씨(주부.31)는 시장보다는 이곳 생협을 이용해 부식거리를 장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중에 위치해 그동안 지역사회와의 유대가 소원했던 보광사(주지 효림)는 파주지역 시민환경센터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신도시 건설에 따른 주거환경이 주요한 지역현안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다른 것이다. 상반기중 환경센터를 설치, 환경강좌를 비롯한 각종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조계사는 도심에 위치한 점을 활용,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 기초교리 야간강좌의 경우 대부분의 수강자가 직장인들이다. 총무국장 선광스님은 "앞으로 신도들뿐만 아니라 비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 포교로도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중이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역사회에 한가지 이상씩을 회향하는 사찰의 특징은 종무기획실 또는 교화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해 전담인력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종무실은 신도카드관리, 기도접수 등의 신행서비스업무를 맡고 있다.

아파트촌에 위치한 광명시 금강정사, 상계동 능인정사는 도서실을 설치, 지역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구 관음사, 서울 구룡사 등은 상담전화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이같은 사찰의 변화는 불법의 자연스런 홍포를 통한 포교효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사찰의 위상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된 불자의 조직화가 가장 효율적이며, 지역사회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금강정사 총무 원명스님은 지적했다.

〈정성운 기자〉



◇북한동포를 돕기위한 범종단 불교기구가 6일 봉은사에서 발족됐다. 〈사진=고영배 기자〉



◇조계종은 4월 30일 중국 단동역에서 대북식량(옥수수) 1천3백80톤을 23량의 화차에 선적, 북한에 전달했다.

'북 생명살리기 100일 결사' 전개

범종단 북돕기 불교기구 발족…승·재가 동참

아사위기의 북한동포를 돕기위한 범종단 불교기구가 발족됐다.

북녘동포돕기 불교추진위원회(이하 불교추진위) 준비단은 6일 봉은사 선불당에서 '발족식 및 교계지도자 오찬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모금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발족식에 참석한 1백여명은 "북녘동포들을 굶어죽도록 방관한다면 우리모두 공업중생(共業衆生)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며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무주상보시 정신으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자"는 내용의 북녘동포 한 생명 살리기 결사선언문을 채택했다. 이어 불교추진위는 △21일~8월 17일까지 '북녘동포 한 생명 살리기 100일 결사운동'전개 △대중스님들의 오후불식운동 △종무기관 및 사찰 소임자(스님)의 성무비 5% 성금기탁 등 5개항의 실천지침을 마련했다. 불교추진위는 5월 한달 동안 3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02)733-2557

"옥수수 지원에 감사"

조불련, 조계종에 서한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호)은 1일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에 팩스로 보낸 서신을 통해 "옥수수 1천3백80톤을 신의주에서 정확히 인수했다"며 "월주스님을 비롯한 남녘법우들의 참보살행과 동포애적 실천에 깊은 사의를 표한다"는 내용을 전해왔다.

북동포돕기 "한마음"

송광사 학인 '자비탁발' '금요일 한끼굶기' 전개

북녘동포돕기에 불자들의 마음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송광사(주지 현고) 강원의 학인스님 60여명과 광주불교교육원(원장 영조스님) 불교문화대학생 50여명은 6일 원각사, 대인·양동시장에서 '북한동포를 위한 자비의 탁발'을 실시했다.

또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집행위원장 법륜)는 2일 불교운동본부 사무실에서 '한 주 한 끼 굶기운동' 선포식을 개최하고 매주 금요일 점심을 굶어 성금으로 내기로 했다.

산에 도라지를 심는 사람들 모임(회장 원공스님)의 최복남씨와 박용주씨도 회원들과 정성으로 모은 돈 1천3백만원을 한겨레신문사에 기탁했다.



◇국민회의 연등회는 8일 탑골공원에서 연등나눠주기 행사를 벌였다.

각정당 불자회 "부처님 오심 찬탄"

연등공양 · 지역봉축행사 적극 동참

14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각 정당불자회가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신한국당불자회(회장 함종한의원)는 지구당별로 전국 8백여개(지난해는 6백여개)의 사찰에 '신한국당 김영삼총재' 명의로 연등을 달았다.

이회창대표는 9일 조계사 주최 '봉축의 밤' 행사에 이어 14일 조계사 법요식에 주요 당직자들과 함께 참석한다.

가장 활동이 왕성한 새정치국민회의연등회(회장 박상규의원)는 4월 30일 조계사에서 김대중 총재를 비롯한 소속의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법회를 연데 이어 8일 오전 탑골공원에서 불자의원들이 직접 제작한 연등 5백개와 무궁화꽃(어버이날 기념) 1천 송이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를 가졌다. 연등회는 이와함께 전국 42개 사찰에 김총재 명의의 연등을 달았으며, 전국 사찰에 석탄일 봉축카드를 발송했다.

자민련불자회(회장 박철언 의원)는 7일 중앙당에서 2백51개 지구당에 공문을 보내 지역별 봉축행사 일정을 안내하고 불교행사에 적극 동참하도록 했다. 또 김총재 명의의 연등을 전국 5백여 사찰에 밝혔다.

밀양 7개 사찰 납골당 신청

무원사 · 석불사 · 대천사 · 백용사등

밀양시(시장 이상조)가 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및 설치를 위해 납골안치단및 납골분묘 설치신청 4월 마감결과 천불사 무원사 석불사 대천사 백용사등 7개사찰(2개 사찰 현재 미등록)이 접수했다. 〈본보 120호 참조〉

이에따라 밀양시는 우선 총 3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확충하고 7개 사찰에 시설 사업비의 50%를 시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7개사찰의 납골안치단은 1개소당 60구 안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납골분묘는 1기당 점유면적 60㎡ 이내로 축조해 60~80구를 안치한다는 계획이다.

목탁소리

위 영 란 〈취재부장〉

부처님전 상서

석가모니부처님. 만물이 존엄을 물씬 드러내는 초파일 어김없이 이 사바에 오셨습니다. 무명속의 중생들에게 자비와 평등과 대자유의 삶을 일깨워주시기 위해 매년 같은 마음으로 오셨지만, 올해 당신을 맞이하는 한반도의 제자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더없이 거룩한 잔치날, 당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한 잔치에는 당신의 가르침의 상징이며 그것을 잇는 큰 어른 조계종 종정스님의 봉축법어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초청해 놓은 손님은 당신을 의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포함되어 있고, 북녘의 동포들과도 함께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법요의식을 증명하고 이끄는 조계종 종정스님의 법어가 없으니 어리둥절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종정법어 없는 조계종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설해지는 종정법어는 불자들은 물론 국민들의 정신적 귀의처로 불은의 향기가 사회 곳곳에 배어집니다. 그런데 한국불교역사상 초유의 종정법어 없는 부처님오신날을 맞게된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 시각은 분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계종의 내부갈등과 또 부처님오신날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속에서도 형제간에 불화를 겪고 반목하다가도 큰 일이 닥치면 겉으로라도 일단 합쳐서 일을 치릅니다. 그런데 불교계의 가장 큰 명절에 불자들의 가슴에는 무엇보다 당신께 죄송하다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조계종이 다시 개혁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당신의 법음이 불자들 가슴 깊은 곳에서 힘차게 울려퍼지길 기원합니다.

현불뉴스

노인사랑방, 순국선열 추모

(사)대한불교 노인사랑방(이사장 조동희)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7일 서대문독립공원 독립관에서 국민회의 김근태의원과 유족회대표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2회 순국선열 추모제를 개최했다.

나비춤 바라춤 불교전통 영산재의식으로 거행된 이날 추모제는 순국선열 1천6백83위를 위로하기 위해 열렸다.

중리복지관 경로큰잔치

마산 중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홍스님)은 13일과 18일 개관 3주년을 기념하여 안전운전 캠페인 및 재가세대노인 결혼 50주년기념 금혼식, 지역노인 1천5백여명을 초청 경로큰잔치를 개최한다.

진관스님 징역 10년 구형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중인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2일 속개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됐다.

이날 공판에서 이용훈검사(서울지법 공안1부)는 "진관스님이 범민련에서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조총련과 회합, 통신하고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진관스님의 최종 선고공판은 20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린다.

공창복지관 25일 체육대회

부산 공창종합사회복지관(관장 심산스님)은 25일 '제1회 청소년연합체육대회'를 개최한다. 북구 사상구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행사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가두 캠페인, 청소년연합체육대회, 레크리에이션 등이 진행된다.

저소득층자녀 14명 장학금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암연합회(회장 도문·전등사 주지)는 3일 동래구청에서 제1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장학금은 저소득층 자녀, 중·고교생 14명에게 총 3백만원이 전달됐다.

소년소녀가장돕기 음악회

안산불교연합합창단(단장 정선자)은 1일 소년소녀가장 13세대에 2백만원을 전달했다. 이 성금은 4월19일 소년소녀가장돕기 자선 음악회를 개최해 모금한 것이다.

박주연양 연꽃노래잔치 '대상'

서울불교청년회(회장 김인택) 주최로 4일 동국대에서 개최된 제9회 연꽃노래잔치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심'이란 찬불가를 부른 박주연양(한마음선원)이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총 38개팀이 참가한 연꽃노래잔치에서는 박세리양(은석초등학교) 등 3명이 우수 중창상을, 최우수단체상은 '우리스님'을 공연한 불광사합창단이 수상했다.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卍 도인선사 신선의 지도자 과정인 육신통(육경신)도통 · 정진법회 안내 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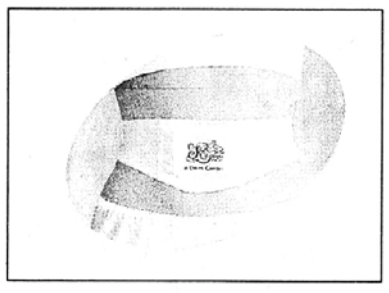
무위진인 육신통 대용맹정진에 입문하시여 대도인의 경지에서 도인·선사·신선의 지도자가 되시고 이 기도는 주인공과 장열한 氣를 찾아서 심신·정신·육신의 번뇌마장의 고통을 근본심지에 맞게 성취하는 대용맹 정진기도로써, 이 기도는 외로나 사로나 잡신수행도 아니고 이 정진수행으로 敬天動地 聖人出 亦江三日 眞人出 六神道通奇人出 神出鬼沒正人出 參禪道通禪(仙)人出 소림사에서 직송하는 도장경중의 육경신 주문과 기문둔갑 심기선법·옴마니반메홈·참선 10장생법 강의·풍수지리등...



입제일 : 97년 5월 17일 음 4.11. 亥(해)時(시). 토요일
해제일 : 97년 5월 18일 음 4.12. 亥(해)時(시). 일요일
회 비 : 5만원. (1박 2일 침식제공)
기도처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61-188 구모자원고개 하차
전 화 : 02-821-6622 (야)02-923-3110 (휴)017-236-3110
육신통(육경신)도통 회장 태일법사 합장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저는 1남 1녀를 둔 가정주부로 2~3년전부터 방광염과 불면증이 생기면서 기미가 끼기 시작했어요.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하루는 언니가 한약재 성분인 "향비"를 써보라 했습니다. 착용하는 동안 얼마 지나지 않아 불면증이 없어지고 기미도 얕아지고 혈색도 잘 도는 것 같아 생활에 자신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약 9개월이 되었는데 끈기있게 사용하고 있고 계속 착용할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향비"에 고마움을 전하고 기미, 불면증, 방광염, 생리통으로 고심하는 분들께 꼭 권하고 싶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 APT 박 지 희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로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사람, 사회, 미래를 위한 가치경영

50 現代 창립50주년



이어폰이 아니라 휴대폰 입니다

물론 본체는 따로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핸드백 속에-
휴대폰 한: 통화하는데 꼭 두손을 모두 써야 할까요?
귀 안에 바로 쏘는 이름하여 이어폰 타입-
〈시티맨 Q〉 사용하시면 두 손이 자유로와 집니다.
손 쓸 사이 없는 통화 - 〈시티맨 Q〉



신제품

• CDMA 디지털 방식의 초선명 통화품질 • 디지털 휴대폰 최초의 이어폰 마이크 채택 • 무음진동기능 • 3시간 40분 연속 통화/51시간 연속 대기의 초절전 설계
• 감각곡선의 라운드 바입 디자인 • 빨강과 까망의 2가지 폰버 칼라 • 벨소리 선택기능(10가지) • 전자수첩기능 (99개 전화번호 메모리) • 자동잠금기능 • 사용제한기능

문의처 • 이동체 영업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8(대림B/D 7층) TEL:528-9135 • 지점 및 A/S센타 • 부산지점 867-1202 • 대구지점 751-0304~5 • 대전지점 625-6722 • 광주지점 365-2005 • 울산지점 51-3381~5

■HHP-9500 ■HHP-9400

손 안대고 통화한다
이어폰 타입 시티맨 Q
Quick & Quality



"부처님 미소 닮고 싶어요"

위엄있지만 자애롭고 온화하여 한없는 자비를 느끼게 하는 미소. 무념무상의 경지에 들지 않고서야 어찌 저러한 신비의 미소가 나올 수 있을까. 중생들에게 자비, 생명, 환희를 이심전심으로 전하고 있는 제불 보살들의 영겁의 미소, 법열의 미소를 한자리에 모았다. 〈편집자 주〉



◀금동보살입상(고구려 · 6세기) 보물 333호



▲경주 남산 삼화령 석조미륵 세존상(신라 · 7세기)



◇서산 마애삼존불中 본존불(백제 · 7세기) 국보 84호 〈사진제공=안장헌〉

▼미륵대원 석조미륵불입상(고려 · 11세기) 보물 96호





◇금동미륵보살반가상(삼국시대 · 6세기) 국보 78호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상(신라 · 9세기) 국보 63호

詩心 속 불보살 미소

님의 입술같은 연꽃이 어디 있어요
아침볕에서 님의 미소같은
방향을 들었습니까
아름다운 별들은 님의 눈빛의 화현입니다
아아 나는 님의 그림자여요
〈한용운 '님의 얼굴' 中〉

황기솔솔 무른눈썹 윤이 사르르 흘러
오오 맑은 원적 일체를 먹음다
모든 함장 향하여
묽은 입술 화안히 웃으사
〈김구용 '관음찬' 中〉

당신의 그 온화한 얼굴을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서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최재형 '석불의 미소' 中〉

당신에겐 천년도 한갓 찰절인가
아 변함없는 당신의 미소!
미소짓는 당신의 얼굴 언저리에서
유음(幽音)이 소리없이 일어진다
〈김종길 '연모' 中〉

자브름하게 감으신 눈을
이렌 뜨실 수도 벙으러질듯
오므린 입가의 가는 웃음결도
이렌 영 사라질 수 없으리니
그것이 그대로 한 영원인 까닭이로다
〈박희진 '관세음상에게' 中〉

언제 보아도 안으로 향한 실눈에
입가에 맑은 미소 감도는
다소곳한 얼굴
첨첨 청산의
질푸른 숨결 감도는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의
그런 고요한 침묵이고 싶다
〈김학인 '愚·默·訥' 中〉

어리석음 다하고 성냄도 없고
탐욕도 끊어진 그 자리 그 자리
이웃도 웃고 부처님도 웃고
환희의 웃음이 법열이 되어
이대로 극락세계 연꽃이 된다
〈수안 '부사의 품' 中〉

당신의 도량에는 언제나
들은 듯하며 들을 수 없는
그 은밀한 속삼임으로 가득합니다
〈김초혜 '님에게' 中〉

균사체 보강으로
영비천®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서울대 약대 교수
약학박사 김병각



■ 영지균사체(菌絲體)란?
일양약품(주) 연구진이 특수 영지균주 IY009 를 개발한 것은 균학분야의 획기적인 진보로 평가됩니다. 이 특수한 영지균주 IY009에서 배양한 균사체는 영지버섯의 뿌리에 해당하는 균사의 집합체로서 버섯을 성장시키는 유효성분과 영양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 생명에너지입니다.



꼭! 영비천S로 주세요!

아무나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균사체(菌絲體)함유! 영비천에스

영지버섯 드링크의 역사를 만들어 온
영비천이 또 한 번 앞서갑니다.
국내 최초로 특허받은 영지균주-IY009
로부터 배양된 균사체가 함유되어
더욱 좋아진 영비천에스-
이젠 꼭 영비천에스를 골라 드십시오.

약국에서 판매합니다.

일양약품
건강사업부

유통기한 확인으로 가족건강, 나라건강

각 종단 봉축 법어

자비로 고통 구하고 지혜로 무명 깨치네!

"선행으로 오염된 마음 씻자"



보 성 〈태고종 종정〉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축복이 가득 내려지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서 인간의 고통을 벗겨 주시고 지혜로서 일체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인간들은 많은 고통과 어리석음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전쟁에 대한 불안감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해치는 지극히 혼란한 말법(末法) 시대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의 평화와 행복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과 편견을 하루빨리 불식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이타의 자비정신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잘못된 생각과 이기심들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과 생각으로 동체대비심을 발휘하여 서로를 위하고 돕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청정불국토를 이뤄나가도록 합시다.

"동체대비로 이상사회 실현을"



도 용 〈천태종 종정〉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신 것은 태양이 어두운 밤을 깨뜨리고 온 누리를 환하게 비추듯이 지혜광명으로 미암(迷暗)의 우리 중생계를 밝게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중생세계는 오욕탐심을 근본으로 하여 분노심과 우치심으로 서로 싸우고 해치고 죽이고 하는 온갖 죄업을 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계와 물질문명에 예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기주의, 황금만능주의, 향락지상주의가 온 사회에 팽배하여 부패는 만연하고 도덕성은 마비되고 있으며, 상호 반목과 대립, 갈등과 분규 등으로 사회적 혼탁이 격심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보이신 동체대비의 정신과 자주, 평등의 이념과 상의상존(相依相存)의 인연법으로 살아가며 인간사회의 불안과 고뇌 암흑을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신 참뜻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되새겨 스스로 마음을 정화하고 사회정화의 횃불이 되도록 다함께 서원하고 기도합시다.

"마음자리 밝혀 대자유 누리길"



각 해 〈진각종 총인〉

원래 부처님께서는 가심도 오심도 없이 항상 여여히 진리로 계시지만 무명에 가리워져 사바를 헤매이는 중생에게 진리의 빛을 보이게 하시려고 저 인도 정반왕의 태자로 나투셨습니다.

석가모니께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고행하심은 중생을 위한 대자비였고, 보리수 아래에서의 깨달음은 중생들에게 지혜광명이었습니다.

이 뜻깊은 오심은 모든 불자, 아니 온 인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축복은 중생들의 탐진치로 인하여 오염되고 파괴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현상의 어느 것 하나라도 독단적으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는 연기와 인과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부처님의 인류구원의 대법기를 높이 들고 서원정진합시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지혜의 연등을 높이 들고 자비의 연등을 널리 밝힙시다. 그리하여 모든 중생을 부처님의 세계로 인도합시다.

"일체중생이 이익을 얻는도다"

대 천 〈관음종 증정〉



世尊出現三千載(세존출현삼천재)
娑婆衆生度無休(사바중생도무휴)
丁丑聖誕燈燭明(정축성탄등촉명)
慧照輝光亘十方(성조휘광긍시방)
一切衆生悉枯潤(일체중생실고윤)
大地含生各得所(대지함생각득소)
民族統一願成就(민족통일원성취)

부처님께서 이 땅에 출현하신지 어언 삼천년/사바중생 제도에 쉴사이 없네/정축년 부처님 강탄을 봉축하여 등촉을 밝히니/성스런 지혜광명이 시방세계에 두루하네/마른나무에 물 오르듯 일체중생과/뭇 중생이 제각기 이익을 얻는도다/민족통일 성취를 기원합니다

고해중생 건지려 부처님 오셨네

구 암 〈대한법회종 증정〉



塵墨劫前早成佛
진묵겁전조성불
爲度衆生現世間
위도중생현세간
嵬嵬德相月輪滿
외외덕상월륜만
於三界中作導師
어삼계중작도사

억만겁전 부처님 고해중생 건지고자
이 세상에 나투셨네

거룩하신 덕상높아 둥근달 밝아스라·
삼계에 큰 스승 나무서가모니불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모두들 귀의하야
무상도를 이루옵소서

"인내·정진으로 부처님 됩시다"

혜 안 〈보문종 종정〉



우리는 해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재현하실 것을 믿고 먼저 오셨던 부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에는 우리 스스로 부처되는 체험을 해야만 합니다. 너와 내가 어우러져 하나되는 연극관처럼 신명나게 모두 부처님이 되어 봅시다. 내 배 부르려면 곯는 배 채워 베품의 보살행을 익힙시다.

부처님오신날에는 내 삶의 평안을 위해 모든 이의 질서를 깨는 일을 삼가하여 지킴의 행을 익힙시다. 다른 이의 괴로움을 대신할줄 아는 견딤의 행을 실천하고, 장작불을 지펴야 펄펄 끓는 가마솥처럼 우직하게 정진해 봅시다. 시시비비의 모든 관념을 떨치고 무아의 행을 익혀봅시다. 너도 나도 주인공인체 하는 사바세계에 참 주인공을 상면합시다.

"극락·지옥 내마음에 있어요"

록 정 〈총지종 증령〉



오늘은 부처님께서 무명과 번뇌망상에 빠진 사바중생들을 제도코자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시며 일체 진리의 등불이신 부처님께서 오탁악세의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가슴 속 깊이 되새기는 참회의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자대비한 마음 대신에 이기심으로 무장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기심과 아집을 버리고 제법실상을 직관하여 내 마음 바로 세우는데 게을리 하지 말하야 할 것입니다.

지옥과 극락이 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니, 마음을 잘 다스려 타오르는 삼독심을 끊어 없애고 밝고 환희한 마음으로 어두운 무명세계를 걷어내고 자비의 등불, 지혜의 등불로써 부처님 오신날을 일심으로 맞이합시다.

"분별심이 밝은 마음가리네"

동 광 〈총화종 증정〉



此本源淸淨心(차본원청정심은)
常自圓明編照(상자원명편조)인데
世人不悟 祇認見聞(세인불오 기인견문)
覺知爲心 爲見聞覺(각지위심 위견문각)
知所覆所以不覩(지소복 소이부도)
精明本體(정명본체) 하는도다.

근본 바탕인 청정한 마음은 항상 스스로 둥글고 밝아서 두루 비추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보고 듣고 분별하고 아는 것으로 마음을 삼아
그것으로 덮어 씌워있기 때문에
밝고 오롯한 본체를 보지 못하는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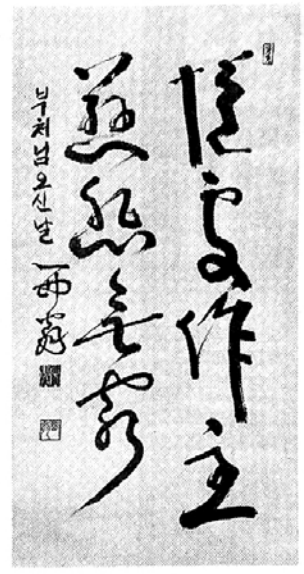
"법의 등불 칠흑 어둠 길 밝히네"

일 공 〈원융종 증정〉



佛祖遷化三千年
圓融法日更扶桑
優曇發花香滿世
幽現蒙得脫摩網
宇宙回運摠是春
法燈開明迷暗路
山河大地涅槃樂
有情無情成正覺

부처님 가신지 삼천년에
둥근법의 해는 다시
동쪽에서 솟아오르네
우담발화꽃이 피여
향기가 세상에 가득하고
죽은 이나 산 이나 모두가
티끌의 그물 벗음을 얻도다
우주에 운수가 돌아오니
모두가 이에 봄이요
법의 등불은 어두운 칠흑의 길을 밝히도다
산과 들과 대지는 열반의 즐거움을 얻고
유정물이나 무정물들은 모두가 정각을 이루었네



봉축휘호

서 옹
〈조계종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남북불교도 봉축 공동발원문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오늘은 사생의 자부이신 거룩한 부처님께서 무명속에서 헤매이며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고자 이 사바세계에 몸을 나투신 뜻깊은 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어 고해의 무명중생들과 언제나 함께 하였으며 성스러운 진리만을 설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의 법신이 있음으로하여 불교는 사바세계의 역사흐름과 더불어 중생구제의 대승보살행과 찬란한 개화발전의 길을 이어왔으며 민족자주정신과 문화의 기저를 이루어 왔습니다.

불기 2541년의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은 사바세계의 한생을 중생구제에 바쳐오신 부처님의 행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 보면서 분단의 가슴 아픈 설움을 가시지 못한채 남과 북의 모든 사찰들에서 부처님 오신날 봉축 동시법회를 갖고 사회와 중생을 위한 대승보살도의 실천행에 용맹정진할 서원을 굳게 하고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부처님전에 삼가 서원합니다.

우리불교도들과 7천만 겨레는 나라가 분단된 때로부터 52년이라는 긴세월이 흘렀으나 아직도 분단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단된 7천만 겨레 통일조국을 발원 하옵니다

부처님, 발고여락의 이념이 실현된 통일조국, 불국정토를 일으켜 세우려는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이 하루빨리 성취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부처님, 민족의 자환과 자립을 실현하며 전쟁을 반대하고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려는 온 겨레의 염원에 원력을 내려주시고 위엄과 가피력을 주십시오. 단군이래 우리 나라와 민족은 언제나 하나였고 하나의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화해화합으로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고 통일조국에서 복락을 누려가려는 불교도들과 겨레의 소망에 가호를 주십시오.

거룩하고 지혜구족하신 부처님.

우리나라는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 분단국으로 남아있습니다. 나라의 통일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하려는 우리 겨레에게 거룩함과 지혜를 심어주십시오. 저희들의 소망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처님전에 간절히 발원합니다.

부처님 오신날 남·북 봉축 불교도 일동

남측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

북측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장 박태호

2541 부처님 오신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

● 6月 1日부터 비자 발급 개시 !! ●

영남지방 불자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불교의 나라 인도행 비자를 부산 주재 영사관에서
발급개시 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주)부산 경남 인도 명예 총영사관 총 영 사 류 진 수

▶ 주소 : 부산시 동구 초량동 1204-7 혁정빌딩 7층
TEL : 051-464-1881 FAX : 051-464-4786

초파일에 띄우는 서원

부처님오신날 특집

어둠의 세계에 새 빛 되도록 …

5월 14일은 모든 생명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부처님이 이땅에 나투신 날. 天上天下 唯我獨尊, 하늘 위 하늘아래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 한 시인은 "어둠의 이 세계에 봄소식 전하시려/거룩하셔라 새 부처님 오셨네"라고 노래했다. 주요종단 신도회장 및 조계종 교구신도회장들의 서원을 통해 불자들의 가슴마다에 세상 어둠을 물리치는 등불을 밝힌다 〈편집자 주〉

주요종단 중앙신도회장

남북통일 빨리 왔으면



송 재 건〈조계종〉

이 땅의 모든 비극의 원인은 국토분단에서 발생된 것이다. 때문에 나는 기도할 때면 반드시 서두에 남북통일을 기원한 다음 내 신상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나의 서원은 더욱 애절하다. 누가 뭐래도 우리의 미래는 남북통일에 있으며, 우리의 비극해소 또한 통일에 있음에랴. 나무관세음보살.

'나' 속에서 '나'를 찾기로



김 철 회〈태고종〉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나 속에서 잃은 것을 나 속에서 찾자'는 서원을 세웠다. 불교의 진리는 '나' 속에 있다. 나를 나답게 하는 것도, 나를 나답지 않게 하는 것도 모두 다 나 속에 있는 불성이다. 불교는 나를 지는 종교다. 나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요, 나를 지는 것은 모든 것을 찾는 것이다. 모든 것이 내 탓임을 깨닫고 부처님 앞에 참회하자.

건강해야 나라도 부강



김 유 혁〈천태종〉

2년전부터 20여년간 타고 다니던 자가용을 없애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자연히 하루 평균 4천보 이상을 걷게 되니 건강 또한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다. 그러다보니 하루하루가 즐겁고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절로 생기게 된다. 건강한 불자는 '건강유지'를, 그렇지 못한 불자들은 '건강'을 서원으로 삼아보도록 권하고 싶다. 모든 불자들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해질 수 있다.

각자 최선다해 깨닫자



박 종 태〈진각종〉

깨달음은 한 개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혼란스런 사회, 어려운 경제 등 나라의 모든 분야가 깨달음을 필요로 하고 있다. '모두가 깨닫자'는 서원을 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불국토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미덕을 보여주는 것이다. 깨달음도 바로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 올 부처님 오신날이 깨달음의 진정한 의미를 통해 서로 화합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슬기를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팔정도 닦아 지혜얻길



홍성호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기원한다. 여덟가지 바른 길 즉, 팔정도(八定道)를 닦으면 재산이 늘고 도에 가까이 다가서 남이 공경하고, 죽을 때 후회가 없으며 덕망이 세상에 널리 퍼진다고 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 때, 그 삶의 길은 팔정도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2교구 용주사〉

나라안녕 천하태평을



김노언

나는 요즘 조석예불 때 올리는 '행선축원문(行禪祝願文)' 가운데 "국계안녕병혁소 천하태평법륜전(國界安寧兵革消 天下太平法輪轉)"의 의미를 자주 되새긴다. "나라가 편하고 병란이 없고 그래서 천하가 태평해야 불법이 제대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축원하는 스님의 간절한 마음을 요즘에야 알 것 같다. 〈제3교구 신흥사〉

무명·악·苦 사라지길



김종락

초파일을 맞아 불자들은 모두 하나 이상의 등을 밝히고 소원을 빈다. 등불이 어둠을 물리치듯 무명을 밝히겠다는 서원이 서려 있다. "보시한 사람은 복을 얻고, 마음이 자비로운 사람에게는 원수가 없으며, 악이 사라지고 괴로움이 없어진다"고 했다. 서원한켠에 굶주림의 고통에 시달리는 북한의 동포들을 위하는 마음 한자락 깃들길 서원한다. 〈제4교구 월정사〉

나누며 경건하게 살자



윤석관

물질문명의 만연으로 우리는 인간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관계는 대립과 경쟁, 불화로만 치닫고 있다. "남에게 베풀면서 경건하게 살며, 일가친척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비난받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위없는 즐거움"이라고 했다. 우리들의 삶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제6교구 마곡사〉

조계종 각 교구 신도회장

21세기 참지도자 선출



김한곤

불자로서 정치인으로서 올해 시행될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국민과 나라를 위한 지도자를 뽑아 다가올 21세기를 번영과 평화 가득한 불국정토로 만들길 기원한다. 불자들부터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명한 의식전환을 기대한다. 〈제7교구 수덕사〉

남북 한자리 모여 봉축



이병춘

평화적 통일을 간절히 서원한다. 이번 부처님오신날엔 기필코 거룩하신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남북한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민족통일의 과업을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주어서는 안된다. 〈제8교구 직지사〉

法의 향기로 도덕성회복



최동원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한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혼탁한 사회속에서 새로운 각오와 실천으로 마음의 불을 밝혀, 도덕성 회복을 위한 사회의 등불이 될 것을 다짐한다. 맑고 향기로운 삶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갈 것을 서원한다. 〈제9교구 동화사〉

양보·관용의 미덕 실천



서정수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하여 양보와 관용을 베푸는 불자가 되길 서원한다. 국민 개개인이 자기희생의 정신으로 국태민안을 이룸은 물론 개인적인 소원도 성취하길 기원한다. 6년 투병끝에 이웃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이의 성불을 축원한다. 〈제10교구 은해사〉

어려운 이웃돕기 앞장



권영락

신도회와 사중(寺衆)이 합심하여 불국토를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신도들도 예전과는 달리 화합하고 조직화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고 청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게 되길 서원한다. 아울러 신행보다는 휴식과 관광을 목적으로 사찰을 방문하는 예비불자들이 경전을 읽고 불심을 느끼게 되었으면 한다. 〈제11교구 불국사〉

'대장경에 새 생명' 성공



김동기

해인사가 법보종찰(法寶宗刹)인 만큼 고려대장경연구소와 중앙일보가 함께 벌이고 있는 대장경 전산화 후원사업이 성공적으로 회향되길 서원한다. 또한 가야산 주변에서 야기되고 있는 골프장 건설로 인한 사찰환경 파괴가 중지되길 바란다. 온 불자들이 마음을 모아 대장경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으면 한다. 〈제12교구 해인사〉

사회에 빛이되는 불자



이종환

부처님오신날은 자신만이 깨달은 진리를 가엾은 중생들에게 회향하기 위해 부처님이 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신 날이다. 생활속의 수행으로 사회의 모범이 되어 빛이 될 수 있는 불자가 되었으면 한다. 〈제13교구 쌍계사〉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류진수

연꽃 한송이에 법향 담아 만중생을 향하여 들어 보이신 부처님. 연등에 불심 담아 지극정성 봉축한다. 오탁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청정하고 고결하게 피어난 우리의 불심은 진리의 향기되어 온 세계에 메아리친다. 만중생이 부처님 품안에서 행복한 삶 함께 하고 자등광명의 영광 이루길 기원한다. 〈제14교구 범어사〉

법의 수레 쉬지않고 돌길



박봉식

진흙속에서 피는 연꽃과 같은 불자들이 되기를 기원한다. 부처님의 구족하심이 중생계에 두루하여 함께 자유인이 되는 그날까지 법의 수레바퀴 쉬임없게해 세상의 어둡고 밝은 분별이 없는 그 자리, 불국토가 오늘에 이루어지기를 서원한다. 〈제15교구 통도사〉

화합단결하는 선진국



권세목

부처님의 자비정신이 온누리에 전파되어 맑은 사회가 하루속히 이뤄지길 서원한다. 또한 21세기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방향을 잃은 현실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온 국민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진정한 선진국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제16교구 고운사〉

教理行果 가르침 실천



오주헌

교리행과(教理行果)란 가르침을 되새긴다. 教란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理는 진리를 깨달은 것이고, 行은 진리의 실천이며, 果는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다. 教理行果를 실현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성불의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 〈제17교구 금산사〉

생활속에 숨쉬는 신행



이순규

전법의 해인 금년 조계종 중앙신도회의 정식 출범과 함께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게 되어 기쁘다. 금년 참사람 결사로서 구체적인 수행깃발을 내세운 백양사 신도회장으로서 신도들 뜻을 같이하고 자신의 삶속에 살아 숨쉬는 신행생활을 하길 소원한다. 〈제18교구 백양사〉

北동포 고통 벗어나길



최종대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북녘동포들이 하루빨리 기아의 고통에서 벗어나길 서원한다. 진한 동포애를 갖고 우리 불자들부터 솔선수범하여 부처님의 자비를 전해야 한다. 밥 한공기 나누는 마음으로 북한동포돕기에 앞장섰으면 한다. 〈제19교구 화엄사〉

밝고 명랑한 사회구현



곽종형

해마다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하기 위해 모두들 등불을 밝힌다. 금년에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등불을 밝혀야 하는지를 각자 생각하길 바란다. 나는 올해는 이웃과 더불어 밝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도록 하는 서원을 세웠다. 〈제21교구 송광사〉

매일 108배·참선·독경



김제현

부처님께서 설한 8만4천 법문이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임을 깨달아 탐진치(貪瞋痴) 삼독을 제거하고, 육바라밀을 생활화하겠다는 원을 세웠다. 매일 108배와 참선, 경전공부로 정진에 힘써 일상생활속에서 부처님과 함께 하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제22교구 대둔사〉

正道·正進하는 참불자



강창식

정도(正道) 정진(正進)의 서원을 다짐한다. 불자들이 정성을 모아 부처님 오신뜻을 봉축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정성이 부족한 탓인지 우리 사회는 아직도 암울하기만 하다. 불교인만이라도 정도, 정진하여 진정한 종교인의 제 위치를 찾아 살맛나는 세상, 불국정토를 이룩하는데 앞장서야 겠다. 〈제23교구 관음사〉

현실문제 적극적 개선



이상현

오늘날 우리현실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부처님께서도 현실문제에 대한 투철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주어진 현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한 실천가였다. 우리 중생들도 각자 자기가 안고 있는 현실문제를 정당하고 올바르게 해결하려는 노력과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깨끗하고 안정된 사회가 될 것이다. 〈제25교구 봉선사〉

2541 부처님 오신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

● 진흥기계공업사 ●

농·업·기·계·제·작·전·문

대표 이 영 무

▶ 주소 : 경남 양산시 어곡동 158번지 유산공단내
TEL : 0523-386-1778~9 FAX : 0523-83-3177

부처님 사바에 왜 오셨나

석가모니불 과거 500대원

"지혜로 중생 번뇌 씻으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자굴산에 계실 때였다. 적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부처님들과 달리 어찌하여 이 더럽고 추한 오탁 악세에서 정등각을 이루셨습니까? 어떤 인연으로 사바세계에 오셨습니까?

"선남자여, 그 이유는 보살 마하살이 大悲를 성취하여 사바세계를 취하는 것이니, 나도 그와 같으니라. 이제 그 인연을 말하여 줄테니 잘 들어라."

부처님은 적의 보살에게 숙세의 인연을 말씀하셨다. 과거 항하사 같은 아승지겁전에 산제림이라는 세계가 있었다. 그때의 부처님은 브장여래이셨다. 그 나라는 무쟁념(無諍念)이라는 전륜성왕이 다스렸다. 그 왕에게는 보해라는 바라문 신하가 있었는데 보장여래의 아버지였다. 무쟁왕과 왕자들은 보장여래를 공양한 공덕으로 천상의 왕이나 부자가 되길 원했다. 아무도 무상보리를 구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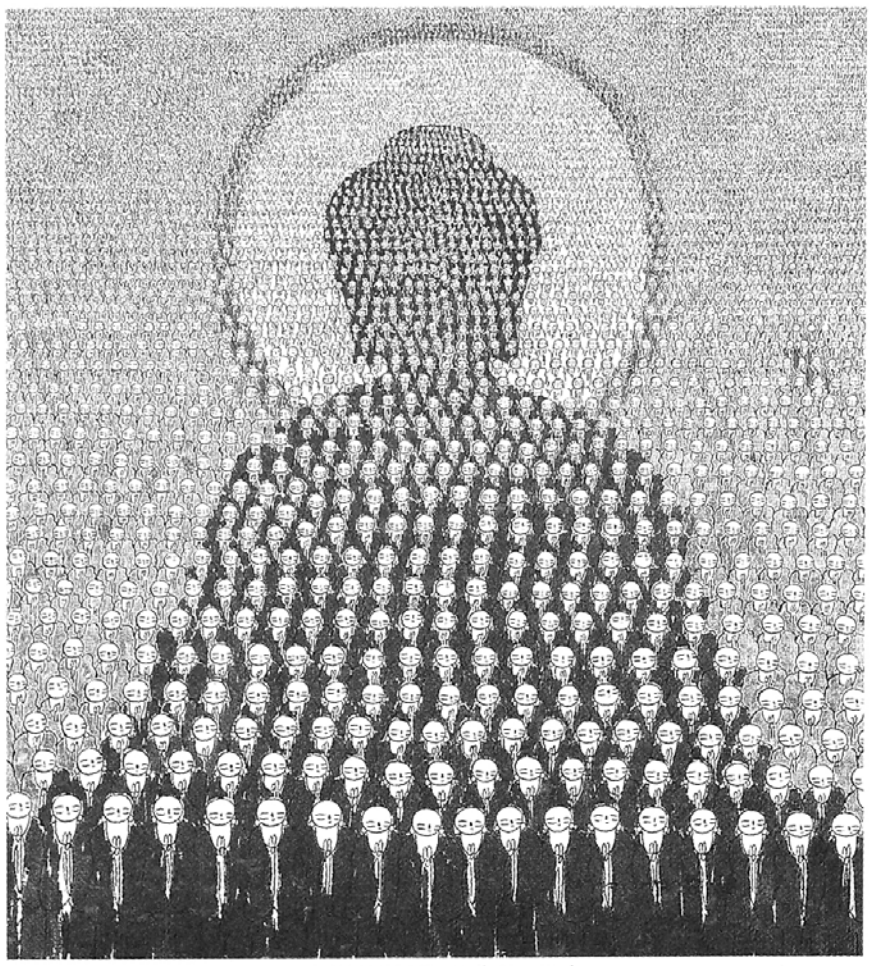
보해 바라문은 왕과 왕자에게 보리심을 발하여 성불할 것을 권했다. 왕은 51대원을 세우고 보장여래로부터 무량수불 수기를 받는다. 왕자들도 서원에 따라 보살 수기를 받았다. 그러나 사비중생을 구하려는 서원은 없었다. 이때에 보해 바라문은 500대원을 세운다.

"내 이제 서원을 세우니 보살의 대비를 성취하고 정등각을 이루면 내 이름을 들은 중생들이 희유한 마음을 내리라. 그 뒤에 대비를 성취한 보살 또한 내 이름과 착한 원을 경탄하며 윤회중생을 제도하고 열반에 이르게 하리라." 이때에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

"착하구나 대장부여, 거룩한 원을 세워 지혜의 물로써 중생의 번뇌를 씻어주려 하는구나."

보장여래는 찬탄하며 보해 바라문에게 사바세계에서 성불하여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리라는 수기를 주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까닭을 밝힌 〈悲華經〉의 내용이다. 이 경전의 핵심인 '부처님전생 500대원'을 통해 부처님께서 사바에 나투신 뜻을 되새겨 신행의 거울로 삼자. 〈편집자 주〉



◇허허당 향훈스님 作 '華嚴法界圖'

굶주린 중생에게 내육신 주어 배부르게 하고
육바라밀 행하되 과보 바라지 않길…

1괴로움 참고 이겨 중생들을 삼매력으로 제도하길 원하옵니다. 2과보 바라지 않고 육바라밀 행하고 3중생이 목숨을 요구해도 보시하고 4어떠한 보살도' 미치지 못한 수승한 보시바라밀로써 5미래세의 어떤 보살도 따르지 못할 수승한 것이길 원하옵니다. 6백천억겁에도 보시바라밀 행하여 7미래세에도 끊기지 않길 원하옵니다. 8계지키는 고행도 9인욕도 10정진도 11선정바라밀도 보시바라밀 같길 원하옵니다.

12백천 아승지겁을 정근하여 반야바라밀 닦아 13반야바라밀 닦지 않는 보살을 위해 선법 끊이지 않길 14보살도를 닦아 일체 선법 끊기지 않길 15보시하되 스스로 칭찬하지 않길 16계 지킨다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17인욕 18정진 19선정에 들었다는 것에 의지하지 않길 원하옵니다. 20지혜에 애착하지 않고 6바라밀 행하되 과보 바라지 않길 21七財(믿음·습관·반성·부끄러움·경청·보시·정혜) 멀리하고 바르게 정진하길 22육바라밀 함께 닦길 원하옵니다.

23중생에게 선근을 심기 위해 10겁 동안 아비지옥에서 지옥고 받길 2410겁동안 축생에 들어가 선근 심길 2510겁동안 아귀에 2610겁동안 빈궁한 귀신에 2710겁동안 비천한 인간돼 선근 심길 원하옵니다. 28선근없어 근심하는 중생을 거둬 항복받고 선근 심길 29현생이나 그 중간에 이르기까지 천상의 쾌락받지 않길 30인간의 쾌락 받지 않길 원하옵니다.

31도솔천에 머물며 성불할 때까지 일겁만은 제외하길 32시방의 부처님께 공양하길 33부처님 처소에서 선한 공덕 얻길 34일체중생 교화해 위없는 보리도에 머물게 하고 35성문들을 36연각들을 37대승들을 교화해 보리도에 머물게 하길 원하옵니다. 38부처님이 출현하지 않은 세계에서 착한행으로 중생을 십선에 머물게 하고 39오신통으로 삿된 견해 멀리하길

40마혜수라천(摩醯首羅天) 41팔비천(八臂天) 섬기는 중생이 있다면 교화하고 42해 43달을 섬기는 중생이 있다면 해·달로 몸을 나투어 44범천 45금시조 46토끼를 섬기는 중생이 있으면 교화하여 선한 법에 머물게 되길 원하옵니다. 47굶주린 중생에게 내육신을 주어 배부르게 하길 48죄지어 고통받는 중생의 죄를 대신 구호하길 49선심없는 미래세 중생들이 정진하여 보살행 닦길 50화만마아나바하가 정등각을 이뤄 구류손불로 출현할 때까지 중생 교화하길

51부처없는 세계에 버려진 중생들이 정등각심 일으켜 52이들이 보시바라밀 53반야바라밀 54인욕바라밀 55정진바라밀 56선정바라밀 57지혜바라밀 행하길 원하옵니다. 58또 불퇴전지(不退轉地)에 머물길 59법륜을 굴려 선근을 심고 악도에서 벗어나길 60부처님 계시는 곳마다 중생을 보내 정등각심 수기와 다라니삼매 인욕을 얻게 하고, 구류손불이 정등각 이뤄 설법하는 것 보길 61구류손불이 성불할 때, 갖가지 공양구 올리길 원하옵니다.

62그 부처님께 출가하여 제일가는 계 지키길 63제일가는 법을 닦아 삼매 이루길 64제일가는 미묘한 법 증득해 부처님을 제외하고 가장 뛰어나길 65고통 속에 허덕이는 자 정법으로 제도하길 66구류손불의 인연이 다하더라도 세상에 남아 불사짓길 67가나모니불이 설법하시더라도 남아 불사짓길 68가섭불이 출현하시더라도 남아 불사짓길 69중생을 천상에 태어나게 해 천상사람들을 정법으로 교화하길 70사람수명 120세가 되면 삿된 법을 의지하니 그때 도솔천에서 내려와 전륜성왕과 왕비를 부모로 태중에 들길 71태에 들 때 아가니타천(阿迦尼吒天)에 두루 비치는 대광명 놓길 원하옵니다.

72이때 지옥 중생들이 적멸열반 구하길 73아귀들이 열반의 뿌리 심길 74축생들이 적멸열반 구하길 75인간들이 열반의 뿌리 심길 76천상 중생들이 적멸열반 구하길 77형체없는 중생들이 열반의 뿌리 심길 78형체있는 중생들이 적멸열반 구하길 79생각이 있는 중생들이 생사 벗어나길 80생각이 없는 중생들이 모든 번뇌 끊길 81생각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없는 것도 아닌 중생들이 적멸열반 구하길 원하옵니다.

82태 중 열달 동안 무생공삼매(無生空三昧)에 들어 미래세 중생 제도하길 83출가하여 정등각 이뤄 인연있는 중생들을 해탈시키길 84중생들이 저를 보되 모태에서 진보삼매(珍寶三昧)에 머물렀음을 알길 85열달이 차면 오른쪽 옆구리로 나오길 86일체공덕으로 성취한 삼매의 힘으로 사바세계에서 아가니타천까지를 6가지로 진동하길 87지옥의 중생들이 88아귀들이 89축생들이 90아수라들이 91인간들이 92천상의 중생들이 깨닫길 원하옵니다. 93다시 미묘광명으로 사바세계를 두루 비추면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이 깨달음 얻길 94인연이 없어 깨닫지 못한 중생이 선근을 심고 삼매의 싹이 나길 95오른쪽 옆구리로 출태하여 발로 땅을 밟을 때 사바세계와 아가니타천까지 6가지로 진동하길

96물에 의지하는 중생 97땅에 의지하는 중생 98허공에 의지하는 중생 99태생(胎生)들이 깨닫길 100습생(濕生)들이 101화생(化生)들이 102난생(卵生)들이 103오도(五道)에 있는 중생들이 모두 깨닫길 원하옵니다. 104중생들이 삼매를 얻고, 불퇴전지(不退轉地)에 머물길

105사바세계에 있는 범천(梵天)의 왕들이 106마천(魔天)의 왕들이 107도리천이 108일월천이 109사왕천이 110큰 용왕들이 111큰 산신들이 112건달바들이 113아수라들이 114가루라들이 115긴나라들이 116마후라가들이 117화생신선들이 118야차들이 119나찰들이 제게 와서 공양하길 원하옵니다.

120낳자마자 일곱걸음을 걷고, 선택공덕(選擇功德)삼매력으로 정법을 설해 대중이 환희심 내며 삼승에 머물길 121성문승이 이생에 조복하길 122연각승이 일화인욕삼매(日華忍辱三昧) 얻길 123대승이 삼주(三住) 뛰어넘길 124대용왕이 내몸을 씻어줄 때, 중생들이 환희심 내며 삼승에 머물길 125왕궁에서 온갖 재주를 부릴 때 중생들이 환희심 내고 전생있음 깨닫길 126결혼하고 오욕락 탐하기를 보여줘 중생들이 인과응보 알고 발심하길 127금은보화와 영락 버리는 것을 보고 나건자같은 외도가 항복하길 128분소의 입고 보리수 아래 좌정해 일체공덕성취삼매력에 든 것 보고 중생들이 3승법 깨닫길 129이 법을 듣고 부지런히 정진하길

130성문을 발한 이가 일생동안 제 처소에 있으면서 번뇌를 씻고 제도하게 되길 131연각을 발한 이가 인욕 얻길 132대승을 발한 이가 사지(四地:하늘·땅·자신·타인)를 뛰어넘길 133길상초를 보리수 아래 금강보좌(金剛寶座)에 깔고 결가부좌하며, 생각이 삼매에 머물길 134삼매력으로

정등각 이뤄 8만4천 중생심 살피길
여래의 한량없는 법속에 들어가길

호흡 멈추어 정(定)에 한낮 한밤을 들며, 매일 쌀 반톨과 마씨 반알을 먹고 나머지 반은 남에게 나눠주며 오래 고행닦길 135금강제와 아가니타천에 사는 중생들이 제게 와서 공양 찬탄 증명하길 136선근있는 성문승이 일생을 제 처소에서 정진하길 137선근있는 연각승도 138선근있는 대승자도 그러하길

139용들이 공양하고, 고행 증명하길 140귀신들도 141건달바들도 142아수라들도 143가루라들도 144긴나라들도 145마후라들도 146성문들도 147연각들도 148대승들도 그러하길

149고행을 쓸모없다고 여기는 형체없는 사람이 보고 따르며 공양하길 150성문을 발한 자도 고행을 보고 환희심 내며 발심하길 151연각을 발한 자도 152대승을 발한 자도 그러하길 원하옵니다. 153왕들도 154대신들도 155사람들도 156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들도 저의 고행을 보고 공양하길 157여인이 고행을 보고 공양 올리면 다시는 여자 되지 않길 158성문이 고행을 보고 공양 올리면 다시는 남자 몸 받지 않길 159연각이 고행을 보고 공양 올리면 금생을 끝으로 남자몸 받길 160대승이 고행을 보고 공양 올리면 금생을 끝으로 남자몸 받길 161금수들도 고행을 보고 귀의하면, 다시는 축생보 받지 않길 162미세한 작은 벌레도 163아귀들도 그러하길 164중생들이 고행 증명하면, 무량무변 아승지겁에 해탈종자 심게 되길

165저의 고행이 과거 어떤 중생도 166과거 어떤 외도라도 167과거 어떤 성문이라도 168과거 어떤 연각이라도 169과거 어떤 대승이라도 일찍이 하지 못한 수승한 것이길

170저의 고행이 미래의 어떤 중생보다 171미래의 어떤 외도보다 172미래의 어떤 성문보다 173미래의 어떤 연각보다 174미래의 어떤 대승이라도 능히 하지 못하는 뛰어난 고행이길

175정등각을 이루기 전에 마왕과 그 무리들의 항복받길 176정등각을 이루고 중생을 제도하며 남은 과보 대신 받길 177백천무량 신족을 나타내 중생들을 정견에 머물게 하길 178백천무량법문을 설해 근기에 따라 성과에 머물게 되길 179금강지혜로 중생의 번뇌산을 부수고 삼승법을 설해 일체 중생 제도하길 180백천 유순을 지나더라도 신통력을 쓰지 않고 설법하여 두려움없는 경지에 오르게 하길 181저의 법에 출가하면 나약함의 장애 없어지길 182또 열등함의 장애 183물러남의 장애 184실의의 장애 185광란의 장애 186교만의 장애 187어리석음의 장애 188두려움의 장애 189번뇌 많은 장애가 없어지길 190산란함의 장애가 없어지길 원하옵니다.

191여자가 출가하여 도를 배우고 대계를 받아 대원 이루길 192비구가 193비구니가 194청신사가 195청신녀가 모두 공양얻게 되길 196모든 하늘 197사람 198귀신이 4성제 얻길 원하옵니다. 199용들이 팔계를 지니며 청정한 범행 닦길 200아수라들도 201축생들도 그러하길 202중생이 화를 내고 칼 등으로 상처를 내더라도 참고 업을 대신 받아 정등각 이루길 203나쁜 말로 비방해도 204업신여기고 욕을 하더라도 205독넣은 음식으로 해치려고 해도 그러하길 206해치려고 갖가지 악행을 하더라도 계로 설득해 청정심 내고 참회하며 천상과 인간에 장애없이 나길 207설법으로 제도하길 208삼매로 설득하길 209대비훈심으로 설득하길 210법음묘성으로 설득하길

211저를 해하려는 이들이 천상과 인간에 태어나면 욕심과 악을 여의고 해탈하길 212업이 남아 있는 중생들은 잔업 여의길 213제가 정각을 이루면 매일 쉼없이 화신불이 나와 거룩한 32상 80종호로 장엄하길 214부처없는 세계로 각 중생의 근기따라 나투어 제도하길 215부처있는 세계로 각 중생의 근기따라 나투어서 제도하길 216오탁악세로 각 중생의 근기따라 나투어서 제도하길

217정법과 성인을 비방하고 악업을 짓는 중생들이 한량없어도 화신불이 항상 두루 설법하길 218마혜수라 섬기면 그 몸이 되어 설법하길 219제명호를 부르며 찬탄하면, 기쁜 마음으로 선근을 심고 제 세계에 나길 220일념으로 저를 부르는 중생들이

"꺼지지 않는

봉 축

강금순 강정기 고영미 권효재 김계순 김근명
강기수 강정심 고진오 권 훈 김계영 김근배
강성남 강정화 고창순 구영배 구재근 권동희 권명숙 권복련 김건영 김 곤 김기범
강성학 강지숙 고현주 구자승 구재홍 권두상 권명숙 권선혜희 김경복 김광래 김기연
강 승 강지연 고호병 김경숙 김광삼 김기자
강신준 강홍자 공봉순 김경애 김광숙 김기철
강연선 고경운 곽상희 권소형 권 엽 권재형 권주원 권 혁 김경연 김광현 김기호
강우정 고광배 곽순신 권수경 권오수 권정환 권준범 권혁상 김경열 김군보 김기훈
강우진 고수정 광주이씨 권 열 권재법 권주용 권태형 권 홍 김경환 김귀숙 김길응

김나리 김대진 김도균 김동식 김명찬 김삼선 김성경 김성혜 김세호 김수배 김수현
김남선 김덕기 김동기 김동찬 김문배 김상국 김성미 김성호 김소연 김수연 김순금
김남운 김덕윤 김동성 김동현 김문옥 김상림 김성민 김성희 김수련 김수옥 김순기
김미란 김상술 김성수
김미래 김상호 김성숙
김동환 김명숙 김미숙 김병주 김복남 김선영 김성은 김순득 김승호 김언년 김영근
김득련 김명순 아기 김병철 김봉기 김선정 김성진 김순자 김승환 김연수 김영대
김만복 김명식 김민옥 김보미 김부안 김선태 김성헌 김순희 김식자 김연수 김영락
김신아 김연주 김영만
김신태 김영걸 김영민
김영희 김용범 김유진 김영환 김영정 김영은 김영옥 김영애 김양숙 김영관 김영숙
김옥경 김용석 김윤국 김영희 김영진 김영장 김영옥 김영열 김양일 김영규 김영순
김옥례 김용예 김은숙
김옥순 김용필 김인석
김옥연 김용환 김인숙 김일엽 김재숙 김재현 김정숙 김정웅 김정자 김종구 김종연
김용기 김우조 김일대 김자령 김재우 김재환 김정순 김정은 김정헌 김종수 김종열
김용기 김원우 김일엽 김재봉 김재운 김재흥 김정아 김정지 김정희 김종숙 김종원

김종윤 김주원 김중련 김진호 김하석 김현배 노상우 민규희 박두원
김종헌 김주일 김지연 김진화 김하석 김현석 노양우 민금홍 박만식
김종호 김주흥 김지원 김찬곤 김학균 김현숙 노영애 민두희 박명숙
김종희 김준기 김지환 김창수 김학기 김현식 노종훈 민미홍 박명순
김주수 김진응 김진규 김창수 김학표 김현정 담양전씨 민병완 박미경
김창언 김한수 도기영 민선욱 박미자
김철호 김 향 도양순 민선흥 박민효
김춘결 김향순 도용재 민세녕 박병곤
김춘근 김향화 도정현 민수기 박병하
김형두 김타원 김 혁 도정희 민씨영가 박병희
김형중 김태근 김현건 도준선 민의창 박상균
김형진 김태수 도태환 민인숙 박상숙
김형창 김태윤 도필선 민정숙 박서준
김혜경 김태철 류승수 민종여 박서진
김혜숙 김태학 류종열 민태희 박서현
김희연 김홍일 김평효 류호문 민하늬 박선영
김희정 김화남 김필연 맹순재 박건영 박성수
김희주 김화례 맹정주 박건필 박성호
나관숙 김희성 명을식 박경식 박소미
나윤찬 나동호 김희순 문상준 박경애 박숙이
남상록 나숙희 문선희 박경자 박승현
남상호 나순옥 문정숙 박규호 박승협
남재천 남옥순 나영흠 미숙딸 박금용 박신수
남정숙 남은지 나원호 민경세 박금향 박신영
남종우 남인복 민경태 박기본 박양임
남창기 남장희 민경화 박남순 박연범
노범식 남장희 민경희 박내화 박연임

박정옥 박동근 박지은 유춘자 윤인
박재원 박종두 박종혁 박지현 박형봉 원은식 유하석 윤양
박은영 박재은 박종열 박주연 박지혜 박혜란 백규석 위석래 유현숙 윤덕
박영윤 박을수 박재진 박증원 박주희 박진우 박호선 백기화 서기조 오희숙 위석철 유현준 윤순
박연호 박영주 박인선 박정부 박누리 박중찬 박차선 박효열 백민수 서기조 왕일순 위영복 유화 윤덕
박영숙 박왈목 박일호 박정순 박대성 박지성 박찬웅 박희순 백범석 서동역 우경자 위재동 유화순 윤지
박영애 박원규 박장훈 박찬희 박희정 백승란 서말희 우성란 유건삼 유흥근
박영옥 박윤희 박재순 박철성 반승현 백승우 서병학 운지웅 유보현 윤경환
박청자 방태균 백천조 서세영 원규재 유성희 윤기석
박춘혜 배국향 백효연 원명찬 유승식 윤남수
서순이 박태호 배득진 법 경 원문숙 유영미 윤명기 이기
서재옥 서영나 박팔근 배혜숙 변은숙 원병재 유인숙 윤미라 이종
선문빈 서정수 서윤아 박해순 백광선 서경민 원병찬 유재용 윤병창 이남
선송훈 서춘건 서윤재 박현실 원성구 유중순 윤상민 이남
선정환 선우리 서충우 서일문 박형권 원순덕 유지자 윤순이 이남
신건우 선종남 선유진 서혜빈 서태선 원유열
신정모 신금섭 선주연 선인각 서희건
신정우 신길순 설대호 선정호
신택건 신남선 성말순
심규순 신동현 성무경
심성학 신민철 성유완
심영신 신복순 세화당 안계수 안종우 양종문 염준근 오병주 오순탁 오은정 이응국 이우택 이예진
심영주 신선준 손문재 안성우 안종철 양태현 염흥수 오병진 오신재 오은주 이인상 이운화 이옥순
심은미 신선필 송분준 안우희 안춘남 양희전 오강록 오복남 오영신 오종육 이인숙 이월례 이옥자 이
심재례 신선희 송정의 안재범 안태규 엄정임 오문세 오분이 오옥현 오지민 이인재 이유선 이완숙 이
심정철 신순호 송정화 안재홍 안택순 연인권 오미환 오선아 오윤옥 오지현 이일용 이윤호 이용규 이
심형덕 신시균 송춘가 안정숙 양은석 염기환 오병건 오순옥 오윤환 오홍근 이은선 이용수 이
이은자 이용필 이
이우석 이
이우승 이

석가모니불 과거 500대원

부처님 사바에 왜 오셨나

"大悲성취 어둠 밝히오리"

임종할 때, 그들 앞에 나타나 마음을 밝혀주지 못한다면 결코 정등각을 이루지 않을 것을 221귀의한 중생들이 죽어 3악도에 떨어진다면, 정법도 당연히 무너지고 222불사도 성취되지 않길 223저의 법을 따라 수행하는 이도 이같이 되길 224타방세계에 있는 오역죄인과 악업 중생들이 목숨을 마치면 저의 세계에 태어나길 225고통 받는 이들과 사바세계의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 갖가지 불사 시현이 백억 모든 나라마다 가득하길

226한소리로 설법하면 성문승을 배우는 자가 성문 법장 알게 되길 227벽지불승 닦는 이가 벽지불법 알게 되길 228대승을 닦고 배우는 이가 대승법의 순일무잡함을 알게 되길 229지혜광명을 닦는 이가 재물로 보시하길 230천상을 구하는 중생이 계 받아 지니길 231인간의 즐거움을 구하는 이가 선업 행하길 232서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중생들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넉넉한 마음 가지길 233살생을 즐기는 중생이 자비심 내길 234간탐 인색 질투심을 잘 내는 중생이 환희심 닦길 235중생이 색을 탐하여 방종과 안일한 마음을 내었다면, 설법을 듣고 곧 버리는 마음 얻길 236음욕이 많은 중생이 부정함 보게 되길

237대승을 배우고 마음이 흔들리는 자가 몸과 마음이 바로 머무는 법 얻길 238반딧불 같은 소견으로 스스로 크게 깨달아 아는 것처럼 말하는 자가 12인연법 알길 239보고 들은 것이 적으면서 아는 체 하는 중생이 변함없는 다라니 얻길 240사견산(邪見山) 들어간 중생이 법의 공함 알길 241알음알이 덮힌 중생이 무상법문 알길 242청정하지 않은 소원을 비는 중생이 無作法門 알길 243마음이 더러운 중생이 청정심 얻길 244많은 인연으로 얽힌 중생이 보리심 잃지 않는 이치 알길 245성내는 중생이 설법통한 진실상(眞實相)을 알아 수기 받길 246의리심 강한 중생이 의지할 것 없음을 알길 247애욕에 사로잡힌 중생이 모든 법이 청정함을 알길

248착한 마음 잃어버린 중생이 깊이 밝은 마음 지니게 되길 249마군의 짓을 일삼는 중생이 청정한 법 알게 되길 250사특한 중생이 정법 행하길 251번뇌 중생이 번뇌 여의는 법 보길 252악한 길을 걷는 중생이 돌이키게 되길 253불법을 멀리하고 삿된 법을 좋아하는 중생이 바른 견해 가지길 254생사계를 싫어하는 보살이 생사계에 나타나는 마음 지니길 255착한 경지를 알지 못하는 중생이 선지(善地) 알길 256남이 착한 일 하는 것을 싫어하는 중생이 환희심 얻길 257마음이 서로 맞지 않는 중생이 걸림없는 광명 얻길 258나쁜 짓을즐겨하는 중생이 나쁜 짓의 과보 알길 259대중을 두려워하는 중생이 신뢰심 얻길

260반성하기 싫어하는 중생이 빨리 수능엄삼매 얻길 261불국토 광명을 보지 못한 중생이 장엄광삼매 알길 262미워하고 질투하는 중생이 평등심 얻길 263불법광명을 얻지 못한 중생이 묘법삼매 얻길 264지혜를 떠난 중생이 법의 햇불 만나길 265의심과 어둠이 마음 가득한 중생의 마음이 밝아지길 266말 재주 없는 중생이 갖가지 변재를 얻길 267불질의 화합을 물거품처럼 보는 중생이 없어지지 않는 법 얻길 268마음이 불안정한 중생이 마음이 안정되길 269부처님의 정수리를 보고자 하는 중생이 부처님 정수리 뵙길

270원력을 놓아버린 중생이 서원 세우길 271신통 없어진 중생이 한마음 이루길 272보리심에 의혹을 내는 중생이 변치않는 마음 알길 273중생계를 멀리하는 보살이 생사의 두려움 없음을 알길 274남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중생이 타심통 열길 275근기가 예리하고 둔함을 모르는 중생이 마음의 눈 열길 276모든 소리를 다 아는 음성삼매 얻길 277법신을 얻지 못한 중생이 모든 몸을 분별하길 278부처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중생이 지혜 열길 279인연에 얽혀 있는 중생이 다툼이 없어지게 되길 280불법을 의심하는 중생이 믿는 마음 열길 281삿된 일을 좋아하는 중생이 불법의 즐거움 알길 282몸은 죽지만 자아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중생이 한량없는 불국토 알길 283좋은 인연 맺지 못한 중생이 갖가지 장엄삼매 얻길 284중생이 모든 언어에 능통하길

285일심으로 지혜를 구하는 중생이 경계없는 법계 알길 286수행을 포기하는 중생이 발심하길 287법계를 알지 못하는 중생이 대지혜 얻길 288본서원을 잊어버린 중생이 잊어버리지 않길 289도를 생각으로 헤아리는 중생이 도는 분별을 떠난 데 있음을 알길 290지혜 허공같기를 추구하는 중생이 소유할 것 없음을 알길 291중생이 바라밀 행하길 292사섭법 실천하길 293사무량심 가지길 294 37가지 정진법을 모르는 중생이 다시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도리 깨닫길 295희망과 선업을 잃은 중생이 큰 바다와 같은 지혜인 되길

296마음이 어두워 법을 믿지 않는 중생이 우주만물의 본질 같으나 모양은 다르다는 법상 얻길 297무엇이든 잘 잊어버리는 중생이 불실념삼매 얻길 298법을 즐겨 듣지 않거나 듣고도 기뻐하지 않는 중생이 청정한 혜안 얻어 의심이 없어지길 299삼보께 믿음이 없는 중생이 공덕 증장하길 300법비에 목마른 중생이 만물이 두루 설법하는 것 깨닫길 301인체와 만상은 반드시 멸하고 없어져 공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는 중생이 모든 보배로 장엄한 것 알길 302악업을 짓고 부지런히 정진하지 않는 중생이 변하지 않는 지혜 얻길 303번뇌로 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500대원을 본받아 성불의 그날까지 큰 서원으로 보살행을 실천하자.

인색·어리석음·나약·교만 등 장애 없어지길
5계·10계 선법 설하고 방편으로 해탈 이끌길

없이 얽힌 중생이 허공같은 마음 열길 304나와 내 것에 집착하는 중생이 세간에서 해탈하길 305여래의 구족하신 공덕을 모르는 중생이 세간에서 해탈하길 306부처님께 공양하지 못한 중생이 신족변화 얻어지길 307단 한 줄의 경전도 해석하지 못하는 중생이 설법듣고 일체가 한 법계임을 알길 308경전 한권도 읽지 못한 중생도 일체 법이 평등한 것임을 알길

309청정 수행자의 화합을 깨뜨리는 중생이 인과법 얻길 310불가사의한 해탈법을 알고도 정진하지 않는 중생이 모든 신통 얻길 311분별심으로 여래장에 들어가고자 하는 중생이 무심삼매 얻길 312보살도를 부지런히 수행하지 않는 중생이 지혜얻고 부지런히 정진하길 313부처님의 본생경을 보고 듣지 못한 중생이 일체가 여래임을 깨닫길 314도를 이루지 못한 중생이 설법듣고 수기삼매 얻길 315여래의 십력을 구족못한 중생이 변함없는 도리 깨닫길 316중생이 사무외심 증득하길 317중생이 부처님과 함께 하는 도리 알길 318바른 소견을 갖추지 못한 중생이 어리석음 없는 소견 갖추길 319일체불법의 문을 깨닫지 못한 중생이 일체 불법 깨닫길 320모든 지혜 갖추지 못한 중생이 일체 선업 닦길 321일체 불사를 이루지 못한 중생이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 마음 얻길 322이와같이 중생들이 설법듣고 각각 믿고 이해하길

323아첨이나 의심없는 보살들이 팔만사천 법문 얻길 324팔만사천 일체 삼매문 얻길 325칠만오천 다라니문 얻길 326대승을 닦는 한량없는 아승지 보살마하살들이 불퇴전지에 머물길 327보살마하살이 갖가지 장엄의 견고함을 얻기위해 불가사의한 서원일으키길 328불가사의한 지견 더하길 329삼십이상으로 스스로 장엄해 팔십가지의 거룩한 모습 갖추길 330묘한 장엄소리로 설법해 중생들이 기뻐하며 지견 얻길 331마음으로 장엄해 삼매 성취하여 퇴전하지 않길

332일체 다라니 성취하길 333모든 법 알길 334일체 먼지같은 뜻까지 알길 335착한 마음으로 장엄해 견고한 서원대로 열반에 이르길 336견고한 정진으로 열반에 이르길 337오롯한 마음으로 장엄해 수행의 차례대로 증득하길 338보시로써 장엄해 모든 것을 베풀길 339지계로써 장엄해 착한 마음이 때묻지 않길 340마음이 결백하길 341청정함이 물들지 않길 342인욕으로써 장엄해 마음에 걸림이 없길 343정진으로써 장엄해 일체 도움을 다 성취하길 344선정으로써 장엄해 일체 삼매 얻길 345지혜로써 장엄해 번뇌의 습성 알게 되길

346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체중생 생각하길 347용서하는 마음으로 고통 함께 나누길 348기뻐하는 마음으로 일체법에 의혹이 없길 349버리는 마음으로 장엄해 마음에 높고 낮음이 없길 350신통으로 장엄해 일체법에 자유로움 얻길 351공덕으로 장엄해 보배손 얻길 352슬기로 장엄해 중생들의 마음 알길 353뜻으로 장엄해 일체 중생 깨우치길 354광명으로 장엄해 지혜의 눈 얻길 355공덕의 말로 장엄해 법에 맞도록 말하길 356두려움 없음으로 장엄해 마군들이 방해하지 못하길 357공덕으로 장엄해 부처님들께서 소유하신 복력 얻길 358법으로 장엄해 걸림없는 변재로 묘법 설하길 359거룩한 빛으로 장엄해 일체 불법의 광명 얻길 360광명으로 장엄해 부처님 세계 두루 비취지길 361타심으로 장엄해 어지러움 없길 362부처님 가르침으로 장엄해 계(戒) 지키길 363신족으로 장엄해 자유로이 열반 언덕에 오르길 364여래의 한량없는 법속에 들어가길 365법 증장으로 장엄해 삿된 소견 멀리하길

366일체 선법을 따라 바른 행 행하길 367중생들이 공덕 이익 모두 얻길 368한 글귀의 법으로도 청정한 법을 두루 갖추길 369보살들이 다른 이에게 더 듣지 않아도 큰 법광명 성취하길 370모두 함께 정등각심 이루길 371팔만사천가지 중생심을 살펴 근기에 따라 팔만사천법 설해 제도하길 372가장 수승한 대승 수행자가 보시바라밀 설하길 373지계 374인욕 375정진 376선정 377지혜바라밀 설하길 원하옵니다.

378선근을 심지 못한 채 성문을 수행하는 자 삼보께 귀의시켜 보시바라밀에 머물게 하길 379지계 380인욕 381정진 382선정 383지혜바라밀에 머물게 하길 384살생 좋아하는 중생 불살계에 머물길 385악탐 일삼는 중생 불투도계에 머물길 386음행하는 중생 불사음계에 머물길 387고의로 비방하고 거짓말하는 중생 불망어계에 머물길 388술 마시는 중생 불음주계에 머물길 389이 다섯가지를 모두 범하는 중생이 있으면 재가신도 오계 설하길 390선법을 좋아하고 환희심 내지 않는 중생 팔재계 지니도록 391선근은 적으나 노력하는 사람은 미래세에 출가해 불법을 배우도록 십계 설하길 392선근법을 구하는 중생이 청정범행 성취하는 대계 설하길

393중생들이 선묘하고 적멸하며 두려움 없는 열반에 머물길 394모든 법구의 뜻을 설명해 열반에 머물게 하길 395음(陰)을 열어 396계(界)를 열어 397입(入)을 열어 398고(苦)를 열어 399무상을 열어 400무아를 열어 열반에 머물게 하길 원하옵니다.

401비구를 위하여 설법하되 논의를 원하는 중생에게 바른 법 설해 주길 402비구니를 위하여 403청신사를 위하여 404청신녀를 위하여 이같이 하길 405해탈을 구하는 이에게 공무(空無)를 논해 주길 406마음이 바르지 않고 선법을 즐겨하지 않으면 선업을 행하도록 설법하길 407마음이 바르고 선한 법을 즐기는 이에게 공(空)을 설하여 해탈케 하길 408삼매를 설하여 해탈케 하길 409정(定)을 설하여 해탈케 하길

410중생을 위해 신족통 쓰지 않길 411한량없는 방편으로 법구의 뜻 풀어 열반에 이르도록 해도 싫증내지 않길 412신족 시현하기를 열반에 이르도록 해도 싫증내지 않길 413중생을 위하여 수명을 버리고, 몸을 겨자씨 반 정도로 무수히 나누며 열반에 들길 414제가 열반 이후 세상에 정법이 천년, 상법(像法)이 오백년 머물길 415열반 뒤에 중생이 진귀한 보배로 사리에 공양하면 삼승의 과보를 받아 물러나지 않길 416중생이 기악으로써 사리에 공양한 인연으로 이같이 되길 417누구나 사리에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한 번 돌더라도 이같이 되길 418누구나 사리에 합장하고 찬탄하면 이같이 되길 419열반 뒤에 어떤 중생이 꽃 한송이를 공양한 인연으로 이같이 되길 420열반 뒤에 중생들이 계 한가지라도 지키면 이같이 되길 421중생들이 경전 한 구절이라도 독송하고 남을 위해 설하면 이같이 되길 422중생들이 법사께 절을 올린 공덕으로 이같이 되길 423중생들이 삼보께 공양한 공덕으로 이같이 되길

424사바세계에 정법이 멸하여 진귀한 보배가 없을 때 사리가 意相瑠璃寶珠로 변해 그 밝은 빛이 강하게 뻗어 나오길 425그때 만다라화가 쏟아지면 그 꽃에 청정한 광명이 있고, 그 빛이 두루 비추길 426마하만다라화도 427파리질다화도 428만수사화도 429마하만수사화도 그러하길 430모든 꽃들이 미묘한 향을 한량없이 내게 되길 431이 꽃 보는 모든 중생 환희심 내길

432한량없는 꽃비가 내릴 때 부처님 법음소리 나고 433법소리 434비구소리 435삼귀의소리 436우바새계소리 437팔계 성취하는 소리 438십계소리 439보시소리 440지계소리 441청정범행으로 대계 갖추는 소리 442범행닦는 소리 443독경소리 444참선소리 445不淨法 관하는 소리 446숨 관찰하는 수행소리 447생각도 아니고 생각 아님도 아닌 소리 448無想소리 449識處소리 450空處소리 451八勝處소리 452모든 것은 하나라는 이치 깨닫는 소리 453정혜 닦는 소리 454空소리 455無相소리 456有相소리 457지은 바 없는 무작소리 458십이인연소리 459성문장을 구족한 소리 460연각을 배우는 소리 461대승 구족한 소리나게 되길 원하옵니다.

462색계의 모든 하늘이 꽃에서 나는 미묘한 소리 다 듣고 선하지 않았던 것 자책하길 463색계의 모든 하늘이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여 십선중에 머물게 하길 464욕계의 모든 하늘이 애욕의 결박과 오욕락을 즐기는 心數法을 다 고요히 하며, 예전에 지은 선근본을 스스로 회상해 참회하길 465색계의 모든 하늘도 그러하길 466무색계의 모든 하늘도 그러하길 467모두 사바세계에 내려와 중생을 교화하여 십선 중에 머물게 하길

468모든 꽃이 허공에서 금이 되어 비처럼 쏟아져 사바세계에 가득하길 469은 470마니 471진주 472유리 473가패 474벽옥 475진보 476珍寶 477마뇌 산호 478천관이 되어 사바세계에 가득하길 원하옵니다.

479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화하고 기뻐하며 투쟁이 없어져 고요해지길 480모든 굶주림이 없어져 행복해지길 481모든 질병이 없어져 편안해지길 482다른 곳에서 오는 원적이 없어져 넉넉해지길 483口業이 없어져 태평해지길 484독성이 다 없어져 건강해지길 485번뇌가 다 없어져 고요해지길 486중생이 이같은 즐거움 속에서 3승에 머물러 퇴전함이 없게 되길 487진보들이 이러한 이익을 짓고 난 후, 본래 있었던 금강제에 이르길

488사바세계에 병겁(전쟁)이 일어날 때 저의 사리가 감유리구슬이 되어 만다라화 꽃비 내리게 하고 489마하만다라화 490파리질다화 491만수사화 492마하만수사화 꽃비 내리게 하고 493기아겁에서도 494질역겁에서도 이같기를 원하옵니다.

495대현겁 중에 열반한 뒤 사리가 이러한 佛事로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삼승에서 퇴전치 않길 496다섯 불세계의 먼지수와 같은 대겁 가운데 중생을 조복하여 삼승에서 퇴전치 않길 497정등각심 발한 후 1천 항아사겁 같은 세월이 흘러도 시방세계에 출현해 정등각 이루길 498"석가모니부처님이 중생을 육바라밀로 끌어주시고 교화하여 생사해탈 하였다"고 하게되길 499모든 부처님께서 대비심을 내어 보리도 구하는 중생의 원대로 수기하길 500모든 부처님께서 "석가불의 사리신족을 보고 정등각심 발하고 육바라밀을 힘써 닦았노라"고 말씀하시길 원하옵니다.

등불을 밝히옵니다"

윤정웅 윤충의 이강희 이경배 이경자 이금숙
윤종송 윤충의 이경남 이경숙 이경천 이금숙
윤종화 윤태원 이경록 이경순 이경출 이금재
윤 준 윤한배 이경민 이경옥 이규용 이기승
윤지훈 이강우 이경민 이경인 이규은

이동준 이룡용
이동복 이동혁 이명숙 이봉일
이대순 이흥원 이동호 이명아 이봉자
이도의 이길자 이동흔 이명옥 이뽀삐 이선정
이동격 이동주 이두형 이문선 이삼송 이선정
이동구 이미경 이상돌 이성기
이미령 이상학 이성민
이미진 이상혁 이성봉
이방훈 이상현 이성애
이방훈 이상호 이성일
이수봉 이방훈 이상화 이성현
이수옥 이배영 이석구
이승희 이순자 이수진 이병도 이석순
이시종 이승남 이수환 이보경 이선봉
이아리 이승은 이숙옥 이복희 이선우
이여근 이승철 이순이 이영호
이연옥 이승현 이순임
이연태 이승훈
이영득 이승희

이지형 이창희 이택진 이필규 임영국 장기숙
이진구 이채린 이택진 이하현 임옥재 장명욱
이진승 이천우 이평구 이학송 임원일 장봉천
이종희 이진승 이철희 이풍구 이해순 임은희 장삼숙
이주복 이진택 이 청 이허영 임재규 장성윤
이주혜 이진호 이큰길 이혁수 임재환 장세규
이정훈 이주화 이창근 이태훈 이현규 임정선 장세락
이정희 이준덕 이창세 이현석 임태연
이정희 이준영 이창호 이현숙 임혜경
이일용 이종락 이준호 장화숙 이현주 임 호
이임출 이종욱 이중근 장화숙 이형순 임화순
이장욱 이종웅 이중록 전광운 이형호 장경희
이재윤 이종택 이중성 전병관 이혜숙 장계순
이재하 이종판 이중원 전연자 이 훈 장규봉
이정민 이종학 이지미 장세인 장윤석 전영미 이희경 장규숙 정규상 정남철 정성길
이정순 이종한 이지수 장소현 장정자 전영옥 이희승 장규순 정규식 정동하 정성운
이정엽 이종호 이지영 장숙례 장주연 전용진 이희준 장규훈 정금석 정명규 정세민
이정욱 이종화 이지은 장승윤 장주희 전원용 임경순 장근순 정길수 정문규 정숙경
장준영 전유진 임공례
장준호 전장학 임성만
장지현 전정욱 임소연
장지횡 전중기 임소정
장영길 장축자 전중수
장영찬 장태현 전충구
장우현 장현남 전충남
장욱진 장형호 전태흡
장윤상 장호숙 정경순

조우현 조흥래 주운영
조원희 조흥열 주인공
조윤희 주)민영주청자
조노미 조일형 주)삼민지세호
조동규 조정현 주경분 지수연
조맹규 조지은 주영우
조민기 조창현 주영준
조병옥 조태성 주옥녀
정정길 조복숙 조필순 주용직
정정식 조상완 조하림
정정자 조상희 조혜인
정주영 조석진 조홍규
정지선 조석진 조홍엽
정 진 조성국 조홍일
정진원 조성옥 조홍휴
정승지 정진이 조성일 조훈심
정시선 정진익 조성찬
정안숙 정진한 조소영
정연모 정태용 조수형
정연우 정해순 조순지
정영길 정현동 조영조
정숙희 정영안 정효숙 조우정
정 순 정영자 정희석
정순덕 정우식 제주고씨
정순자 정은경 조경부
정승언 정자영 조경자
정승원 정재윤 조금숙

지승호 진혜임 최금철
지애령 진효임 최덕영
지용권 차상환 최미례
지용권 차수항 최미애
지일상 차정방 최병수
지재천 채건웅 최복내
지정삼 채광석 최상권
진경수 채명석 최상배
진광우 채미숙 최상숙
진영미 채희열 최상철
진영숙 천미희 최선영
진원중 최강희 최성희 하인혜 하혜경 한경자 한기성 한기철
진정애 최귀조 최수건 하정순 한 결 한규하 한기영 한나라

한승오 한초월 홍기상
한승일 한훈부 홍명숙
한승환 한혜정 홍미경
한아름 함민성 홍미리
한연우 함영주 홍복표
한영환 허광현 홍옥수
한용수 허광현 홍윤표
한용호 허석남 홍인숙
한은희 허선복 홍일표
한일환 허의숙 홍정민
한재준 허종환 홍주연
한정교 허필창 홍진성
한정원화 현임성 홍진식
한지희 홍경석 홍태섭
한진우 홍기돈 홍현숙

최수경 최은진 최해곤
최양순 최이빈 최현민
최영봉 최재두 최호병
최영주 최재승 최 훈
최예심 최정일 최흥남
최우성 최정희 최희근
최우영 최종국 표선옥 홍혜숙 황규범 황지환 김종영 김 은 김학수 박종육 신완희
최우진 최종석 하덕근 환완종 황성훈 황향숙 이채원 김편수 선현자 박승수 신승현
최은숙 최진봉 하승규 황경숙 황정현 황제영 김경수 송진선 김송아 이명학 신기복
최은주 최창환 하영욱 황귀복 황준제 황영조 김현경 신홍재 차대봉 권계순 이분순

민수기 김명숙 민하의

<2,000등 법보시>

2541 부처님오신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

한국불교태고종

종 정 鄭寶城
종정사서실장 宋宗演
총무원장 洪印谷
총무부장 李智性
교무부장 柳肝潭
재무부장 禹慧空
사회부장 片白雲
규찰부장 玄守悅

중앙종회
의 장 李昤潭
부 의 장 金大雲 柳南波

사 정 원
부 원 장 李白牛

▶ 서울 성북구 성북동 292-1
전화 : 745-2030~2
전송 : 745-1614

大韓佛教天台宗

宗正 金道勇 大禪師

【總務院】
總務院長 田雲德
總務部長 金國星
教務部長 邊春光
教育部長 金道圓
財務部長 李門德
社會部長 南宮道軾
糾正部長 朴德水
宗正私書室長 朴法傳

【宗議會】
宗會議長 尹德山
副議長 金國星
副議長 裵斗出

【監査院】
監査院長 朱正山
監査委員 李法山

【參議院】
參議院長 朴炯喆
中央信徒會長 金裕赫

宗典譯經院長 李昌燮
宗典研究院長 金煐泰
金剛佛教大學學長 李載昌
救仁寺專門講院 金智福

▶ 忠北 丹陽君 永春面 柏子里 132-1
전화 : 0444/423-7100~8
전송 : 0444/20-3399

大韓佛教眞覺宗

總 印 覺 海
總印司書室長 烋明

【統理院】
統理院長 省超
總務部長 悔淨
財務部長 守性
文化社會部長 孝庵
建設局長 觀天

【宗議會】
議 長 慧一
副議長 于勝
副議長 福善定

【查監院】
查監院長 眞堂
查監部長 惠明

【教育院】
教育院長 一靜
教法部長 惠淨
教育部長 觀證

【眞覺大學】
學 長 碩峯
教務處長 義玄

▶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전화 : 913-0751~3
전송 : 915-6032

佛教總指宗

宗 領 綠靜
統理院長 法空

總務部長 圓峰 教政部長 四弘花
財務部長 園松 企劃局長 知 性
社會部長 慧唵

法藏院長 曉岡

宗議會議長 松霞 副議長 愚勝

查監院長 總持花

서울·경기 교구장 (教區長) 鏡觀
부산·경남 교구장 (教區長) 義剛
대구·경북 교구장 (教區長) 修成
충청·전라 교구장 (教區長) 法水願

▶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76-2
전화 : 552-1080~3
전송 : 552-1082

大韓佛教觀音宗

宗 正 金大天
司書 金性眞

【元老院長 李慧雄】
委員 朴宗泳
安慧明
趙慧鏡
李印峰
張暎月

【總務院長 李泓坡】
總務部長 金智攝
教務部長 黃法明
財務部長 金鏡徹
社會部長 金性哲
監察部長 金和嚴
組織部長 李宗炫
布教委員 鄭法性

【宗會議長 鄭法輪】
副議長 金法華
事務局長 池法頊

【教育院長 金東靈】
修教部長 洪智默
譯經部長 吳慧圓

▶ 서울 종로구 숭인동 178-3
전화 : 02/763-3345,3109
전송 : 02/763-5851

대한불교화엄종

종 정 한구하
의 장 정희수

▶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산21
전화 : 032/422-2066~7
전송 : 032/422-0413

(재단법인)화엄승가장학재단

(공익법인)대한불교화엄장학회

이사장 정희수

▶ 서울 종로구 청진동 11-6
삼선B/D 101호
전화 : 02/730-0798~9
전송 : 02/722-3205

大韓佛教海東宗

종 정 석 봉

원로원 원장 인현

총무원 원 장 송산
부원장 법성

총무부장 청운
교무부장 진웅
사회부장 혜월
재무부장 보성
사정부장 상호
포교부장 진각

중 앙 종 회 의장 성타
중 앙 사 정 원 원장 능선
중 앙 포 교 원 원장 대원
중 앙 복 지 봉 사 원장 대경
중앙불교문화예술 원장 원표
중 앙 연 수 원 원장 백담

▶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성복리 393
전화 : 0331/262-1577
0331/263-1353

大韓佛教眞言宗

부처님 오신날을 경축하오며, 부처님 가피력으로
남북평화통일이 속히 성취되기를 기원하옵니다

종 정 六 字

원로원장 현 주 종리원장 직무대리 금 광
원 로 재 산 재무부장 종 밀
석 암 종회의장 법 륜
호법원장 국 복
감사원장 혜 공

大韓佛教眞言宗 宗理院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52-3 (용두진광원내)
전 화 : 967-2479
팩 스 : 968-3350

大韓佛教宗正協議會

고 문 이법홍(원효종 종정),김도용(천태종 종정)
각 해(진각종 총인)
명예회장 신인왕(여래종 종정)
회 장 이대산(삼론종 종정)
부 회 장 정일화(법륜종 종정)
감 사 정청암(한국조동종 종정)
유법수(미륵선종 종정)

이 사
박운파(대한조동종 종정)
우영명(법상종 종정)
박성도(대승종 종정)
최석봉(해동종 종정)
우경조(불입종 종정)
배일공(원융종 종정)
김목정(총지종 총인)
문구암(대한법화종 종정)
권인수(일승종 종정)
최명도(법왕종 종정)
김광태(한국법화종 종정)
김무찰(일붕선교종 종정)
박무현(용화종 종정)
이동광(총화종 종정)
권벽암(미타종 종정)
권태허(본원종 종정)
이회수(천화불교 교정)
이정희(진언종 종정)
하청하(법사종 종정직무대행)
정근철(성도종 종정)
김해근(열반종 종정)
현봉해(일붕선교
(전)종정직무대행)
자문위원 이우암
사무총장 서병렬
총무국장 윤석화

▶ 서울시 중구 순화동 6-17 혜명빌딩 6층전관
전화 : 02/756-1227
전송 : 02/774-1487

大韓佛教圓融宗

宗 正 靈山 一空
宗正司書室長 林體觀

總務院長 寶印 輔宇
副 院 長 崔法輪
總務部長 林普國
社會部長 具性道
財務部長 朴大月
規定部長 張體乘

宗議會 議長 李平信
副 議 長 金善眞
規定院長 閔性雲
副 院 長 曺性觀
教育院 副院長 釋正觀
布教院長 韓和潭

各市道 宗務院長

仁川廣域市 張體乘
京畿北部 車性印
京畿南部 曺性觀
忠淸南北道 金體依
江 原 道 柳舞松
慶尙北道 孫志廣
全羅南北道 李井光
光州廣域市 金仁觀
濟 州 道 韓眞聖

▶ 서울특별시 九老區 九老 2洞 704-39號
전화 : 02/857-5094
전송 : 02/859-1042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 장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수석부회장 홍인곡 태고종 총무원장
부 회 장 전운덕 천태종 총무원장
부 회 장 김성초 진각종 통리원장
상임부회장 김월서 조계종초심호계원장
부 회 장 방지하 중앙승가대학장
부 회 장 이홍파 관음종 총무원장

이사 김혜정 일승종 총무원장
이사 이법공 총지종 통리원장
이사 송무진 원효종 총무원장
이사 배일공 원융종 종정
이사 이육자 진언종 종정
이사 이혜우 법륜종 총무원장
이사 김무찰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이사 이법덕 용화종 총무원장
이사 윤일오 대승종 총무원장
이사 신인왕 여래종 종정
이사 권성우 미타종 총무총장
이사 김능관 조계종 사회부장
이사 김국성 천태종 총무부장
감사 김성관 조계종 문화부장
감사 김회정 진각종 총무부장

이사 정혜일 보문종 총무원장
이사 김대호 대한법화종 총무원장
이사 정법륜 법상종 총무원장
이사 전남정 총화종 총무원장
이사 김송정 조동종 총무원장
이사 이청봉 염불종 총무원장
이사 이대산 삼론종 종정
이사 김혜민 한국법화종 총무원장
이사 이대화 본원종 총무원장
이사 김해곡 열반종 총무원장
이사 정혜창 조계종 총무부장
이사 이지성 태고종 총무부장
이사 최효암 진각종 문사부장
감사 편백운 태고종 사회부장

사무국 윤자월 사무차장
이남재 총무과장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19
전화 : 732-4885
전송 : 737-7872

불심 현장

부처님오신날 특집

"아침-저녁 점호 예불로"

태풍부대 화랑불교중대 탐방

불심(佛心)의 전우애로 맺어진 부대가 있다. 매일 아침에 불로 하루를 열고 저녁예불로 일과를 마감하는 경기도 연천군 무적 태풍부대의 '화랑불교중대'가 바로 그곳. 부대에 들어서자 마자 '봉축 부처님 오신날'이라는 현수막이 휘날린다. 또 병영안이 온통 연등으로 화사하게 장식돼 있어 이곳이 '불군정토(佛軍淨土)'라는 생각이 든다.

김기태 중대장을 비롯 윤종식 증위 정영길상사 인완식중사가 이끄는 화랑불교중대는 박형규병장이하 70여명의 중대원이 똘똘뭉쳐 74년 창설이래 24년 무사고를 자랑하고 있다.

넙당앞에는 '화랑불교중대' '호국불심당'이라는 현판이 선명하고 행정반에 들어서니 벽에 '불심' '마음다스리는 글' 등이 다양하게 걸려있다. 향내음나는 내무반 곳곳에 卍자 표시와 법구등이 즐비하다. 이 중대는 전군 유일의 불교중대답게 청담스님이 명명한 화랑불교중대라는 명칭에서 생활까지 불교로 시작돼 불교로 끝난다.

화랑불교중대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간혹 잘못하여 군기교육을 받아야 할 때도 법당에서 부처님이 용서해 줬다고 느낄때까지 참회한다. 또 마음이 우울한 사병은 언제라도 법당에 달려가 정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용납돼 있어 장병들의 표정이 밝다.

부대이름에 걸맞게 중대장 선임하사 소대장들 모두가 불심돈독하기로 유명하다. 특히 윤종식증위는 천주교 신자였지만 불교중대에 오면서 개종했고 정상길상사와 인완식중사는 생일도 초파일날이다. 정상길 상사는 "어머님이 해인사초파일 법회에 참석했다가 태어났다"며 "무엇보다도 불심으로 하나되어 뭉친 사병들과의 생활이 좋아 12년을 불교중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종병 박형규병장은 "불교라는 구심점이 있어선지 다른 중대보다 의기투합이 잘된다"며 "그렇지만 법회참석을 강요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고 자율적이다"고 말했다. 단지 다른 중대에 배타적으로 보일까 항상 주의한다고 덧붙였다.

중대원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군인상은 중대를 창설한 신말업장군(예비역대장). 신말업장군은 95년에도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초파일날 찾아와 장병들을 위문하기도 했다. 장병들은 군생활중에도 매일 1백8배정진했던 신말업장군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꼽는다. 장병들은 "요즘세상에 4성장군으로 참모총장까지 역임하고도 물러나 조용하게 사시는 신말업장군같은 분이 있느냐"며 "장군님을 뵐 때마다 중대원으로서 자부심이 커진다"고 입을 모은다. 또 장교들과 선임하사들도 역대 지휘관들과 아직도 왕래가 잘될 정도로 끈끈한 정이 통한다며 '훈시문'으로 군부대내에서도 널리 알려진 신말업장군의 군인정신을 본받겠다고 밝힌다.

천주교신자인 대대장 강병주 중령은 부대훈련을 앞두고 '부처님 생신이 불교중대의 생일이니 초파일 행사를 갖도록하라'며 앞당겨 하루일과를 할애해줬다. 그래서 6일에는 도선사 주지 동광스님을 모시고 중대장이하 전 중대원이 모여 30여평 남짓한 법당에서 초파일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우렁찬 찬불가와 반야심경 봉독은 음의 고저가 통일돼 있다. 법회에서 동광스님은 "군생활중에도 훌륭하게 수행하는 장병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흐뭇해진다"며 "불심이 스며있는 화랑정신으로 나보다 남을 위한 마음을 밝히는 모범군인이 되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이어 김기태 중대장은 "24년의 호국불교중대 전통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불심을 하나로 모아 무사고의 전통을 이어가고 불교포교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화랑불교중대는 불력으로 군정신력 강화를 통해 부대 단결력을 배양하고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973년 8월 8일 독실한 불자인 신말업 대대장이 재임시 창설했다. 원래는 천주교와 기독교중대도 함께 창설했으나 모두 없어지고 불교중대만 남아있다.

강병주대대장은 "불교중대의 빛나는 전통을 부대 지휘관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중대전통이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매년 창립기념법회와 함께 열리는 23차례의 진중합동 수계식을 통해 장교 3백여명 사병 6천여명을 배출한 불교중대는 불교지도자 강연, 무사고 안전기원법회, 위문법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1975년에는 강석천병사등 중대원들의 공동조각작품 '석조아미타여래좌상'으로 불교미술대전에 출전해 종정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같은 불교중대의 발전을 위해 도선사 보성사 화장사 자재암 동두천사암연합회의 지원이 있었으며 특히 도선사 주지 동광스님은 "불교중대법당을 새로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부처님 가르침인 국가관과 화합을 군인정신으로 삼고있는 불교중대는 통일을 앞당기고 있었다.

연천=김원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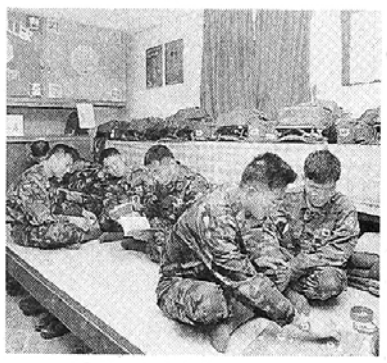
◇전국 유일의 화랑불교중대는 74년 창설이래 24년 무사고를 자랑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6일 초파일기념법회이후 도선사주지 동광스님 대대장 강병주중령 김기태중대장 등과 70여명의 중대원들이 불교중대의 발전을 기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대대 위병소에 내걸린 부처님오신날 봉축 현수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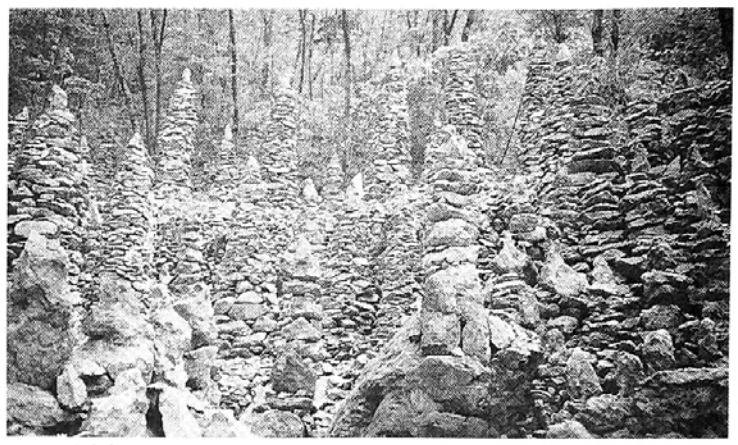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불교중대 내무반은 항상 화기애애하다.

중대원 70명 모두 불자 '佛軍淨土'

내무반 곳곳 卍자·법구등 즐비

군기교육도 법당서 참회수행



◇마산시 양덕3동 팔용산 먼등골 중턱에는 무려 643기의 돌탑들이 능선을 따라 빼곡히 들어서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있다.

마산 팔용산에 가면

돌탑도량 '장엄'

'오늘의 김대성' 이삼룡씨 4년동안 643기 조성

한사람의 원력이 무려 643기의 돌탑들을 세우고, 능선을 따라 빼곡히 들어선 그 돌탑들이 하나의 도량이 되어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는 곳이 있다. 마산시 회원구 양덕3동 해발 328m의 팔용산 먼등골 중턱에 위치한 이 돌탑들은 이삼룡(49·마산시청 위생계장)씨가 93년 3월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쌓아온 수행의 산물로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특히 이 돌탑들의 꼭대기를 장식하는 돌이 아기동자상, 부처님상, 신선상 등 각기 다양한 것이 또 하나의 특징.

이곳에 오르면 탑체에 드리운 그늘같은 청정한 기운속에 다람쥐와 청솔모, 까치등이 탑을 오르내리고 바람이 탑 사이사이를 넘나들며 오는 이를 반긴다. 높이 0.5m에서 부터 6m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의 돌탑들은 이씨가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산에 올라 약수터 청정수로 얼굴을 씻고 산정상의 돌을 질통으로 져 내리기를 두세번씩 반복하며 모은 돌로 쌓은 것이다. 큰 돌탑 하나를 쌓기 위해서는 꼬박 한달간 돌짐을 지고 오르내려야 한다.

"불심이 깊으셨던 어머니께서 절을 조성하는 것을 소원하시다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어찌나 가슴이 아팠던지 돌 하나 하나가 어머니 영가를 위로하는 다리라고 여기며 탑을 쌓았습니다."

신라 김대성이 어머니를 위해 불국사를 세웠듯 이삼룡씨는 돌탑을 쌓았던 것이다. 자신 비록 출가해 수도는 못해도 또 사찰불사를 하지 못하더라도 돌탑을 쌓아 도량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이제는 천탑 조성을 목표로 중생들의 업장소멸과 통일염원을 모아 돌탑 쌓기에 한층 더 마음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 돌탑들은 그만의 원이 아니라 이곳을 다녀가는 사람들이 돌 하나씩이라도 쌓고 있어 모든이들의 불사가 되고 있다.

그는 돌탑쌓기 뿐 아니라 10년째 이곳의 다람쥐, 청솔모, 까치들에게 먹이를 주어 거두고 있으며 하산할 때는 산에 버려진 담배꽁초까지 수거하고 있다. 맑고 깨끗하고 향기로운 도량으로 가꾸고 있는 것이다.

이삼룡씨는 돌탑쌓기를 통해 깨친 지혜 한가지를 일러준다. "탑은 사회와 같습니다. 큰 돌은 밑에서 받쳐주어야 하고 작은 돌은 위로 올라가야 하고 또 자갈들은 그 사이사이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조화가 되지 않으면 무너져 버리지요." 조화롭고 하나된 세상은 거지든, 사장이든 모두를 부처로 존중해 주는 것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가 세상에 무주상보시한 '탑사(塔寺)'를 다시 되돌아 보았다.



◇93년부터 돌탑을 쌓아온 이삼룡씨.

새벽마다 천탑불사 돌짐 나르며

통일염원·어머니 영가 위로

"크고 작은 돌의 조화 배워요"

마산=천미희 기자

2541 부처님 오신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

천진선원
(사)감로심장회 (이사장 권한대행)
주지 보운
사부대중일동
▶ 경남 진주시 상봉서동 1235-2
전화 : 0591-745-0522

한국역술연구원 **성운철학관**
(사)감로심장회 (이사)
여광동
▶ 경남 진주시 상봉서동 1450-29
전화 : 0591-42-9380

송원사
(사) 감로심장회 (이사)
주지 송월
사부대중일동
▶ 경남 진주시 옥봉남동 878
전화 : 0591-745-2038

제일불교서림
불상·단청·개금·범종·불교서적
4.8용품·신년달력외 불교용품 일체
대표 신홍주
▶ 경남 진주시 평안동 188 (진주MBC앞)
전화 : 0591-41-5832

약천사
(사) 감로심장회 하동지부
주지 적령
▶ 경남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신촌
전화 : 0595-63-5311

대한불교 조계종 **선원사**
조실 선산
주지 성원
신도회장 조원태
배발심화
신도회 일동
• 팔만대장경 판각성지 사적 259호 •
▶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691-1
전화 : 032-934-8484
933-8834
933-8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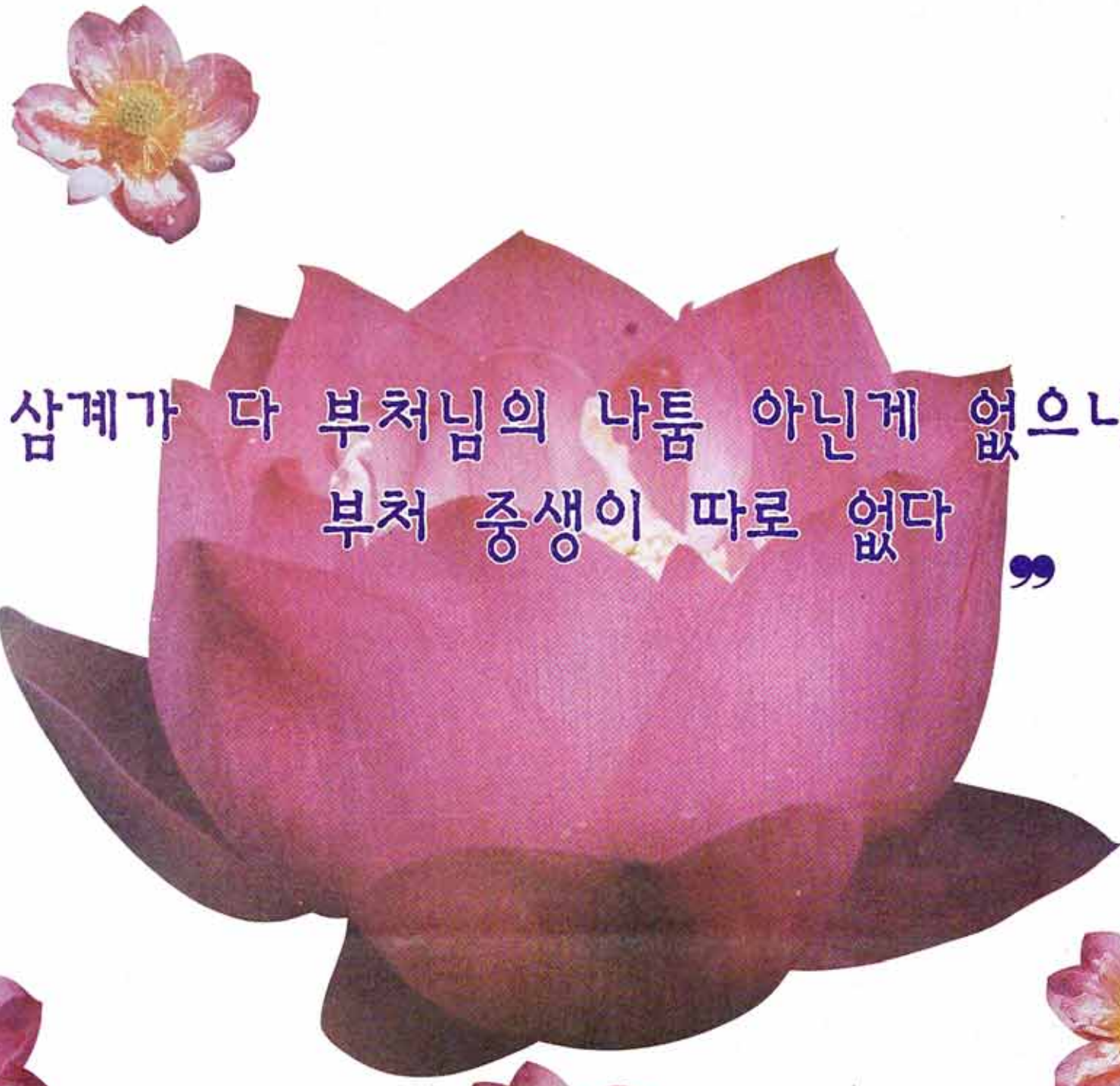
대한불교 조계종 **보문사**
주지 원종
▶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629번지
전화 : 032-933-8271~3
FAX : 032-933-8278

대한불교 조계종 **마하연포교원**
금강불교대학
주지 일지
신도회 거사림회
▶ 인천시 부평구 부평1동 542-69
전화 : 032-523-9911
FAX : 032-511-6194

동양한의원
원장 최종백
▶ 강원도 강릉시 금학동 95-1
전화 : 0391-43-7575

2541 부처님오신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



"삼계가 다 부처님의 나툼 아닌게 없으니
부처 중생이 따로 없다"

이장욱 이정욱 이정식 오병언 오병주 염홍수 조인숙 조성찬 장규봉 남상호
김하석 한능우 한영기 한기성 한승화 한승관 한나리 김용범 김정아 김용석

불기 2541년(丁丑年)

온누리에 마음의 불 밝히니 날마다 부처님 오신 날일세

大韓佛敎 曹溪宗

한마음선원(禪院)

원 장 대 행
주 지 혜 원

사부대중 일동

▶ 본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 전화 : 사무처 (0343)72-3100
팩 스 (0343)72-2746

● 국내지원 ●

- ●금왕지원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4구 산5-2 Tel : 0446-877-5000, 0462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하동 1500번지 Tel : 064-21-4662
- ●부산지원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 : 051-403-7077
- ●광주지원 광주시 서구 치평동 201-5 Tel : 062-373-8801-3
- ●아산지원 충남 아산시 온천1동 13통 1049번지 Tel : 0418-44-1464
- ●울산지원 경남 울산시 중구 태화동 13블럭 9-2노트 Tel : 0522-44-0884
- ●대구지원 대구시 중구 남산1동 2105-2 대광빌딩 7층 Tel : 053-426-2779
- ●마산지원 경남 마산시 합포구 산호2동 405-107 2~3층 Tel : 0551-42-6638-9
- ●진주지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 0591-746-8163
- ●대전지원 대전시 서구 갈마동 344-21 Tel : 042-532-1481
-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상도동 18-99 Tel : 0562-75-3163
- ●청주지원 충북 청주시 봉명동 833 Tel : 0431-273-6946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 989 Tel : 0391-651-3003
- ●통영지원 강원도 통영시 도천동 113-3 Tel : 0557-43-0642

● Overseas Branch 해외지원 ●

-U.S.A (미국지원)

- New York (뉴욕 플러싱지원) 144-39,32 Ave. Flushing Ny.11354 Tel : 718-460-2019/ Fax : 718-939-3974
- Washington (워싱턴지원) 7807 Trammell Rd. Annandale VA. 22003 tel/Fax : 703-560-5166
- Los Angeles (LA지원) 210 N Catalina St. LA.CA 90004 Tel/Fax : 213-382-1711
- Chicago (시카고지원) 7852 N.Lincoln Ave.Skokie IL 60077 Tel : 847-674-0811/ Fax : 847-674-0812

-CANADA (캐나다 토론토지원)
20 Mobile Dr.
North York, Ontario M4A 1H9 CANADA
Tel : 416-750-7943

-ARGENTINA (아르헨티나)

- Buenos Aires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 Miro 1575(1406) Cap.Fed Rep. of Argentina Tel : 541-921-9286/ Fax : 541-925-0054
- Tucuman (뚜꾸만지원) El corte (Frente Policia) Avenida. Aconquiza Yerba Buena Tucuman Rep. of Argentina Tel : 5481-25-1400

-GERMANY (독일지원)
Broicherdorfstr. 102
41564 Kaarst, Rep. of Germany
Tel : 49-2131-969551/ Fax : 49-2131-969552